


2021
국제출판포럼

기후위기와 ! 재난시대의 출판



주최 |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YouTube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2021 국제출판포럼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

•1일차 / 11월 11일

환영사 및 기조강연

시간	프로그램
09:30~09:31	1분 · 개회선언 / 사회자:한성봉
09:31~09:35	4분 · 환영사 / 고영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장)
09:35~10:30	55분 · 기조강연 / 강수돌(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녹색평론> 편집위원)

세션 1. 출판이 알아야 할 생태주의 담론

시간	프로그램	
10:40~11:05	25분 ·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 / 조천호(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진행 / 한성봉]
11:05~11:30	25분 · 환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 / 하승수(변호사/前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1:30~11:40	10분 Break Time	
11:40~12:05	25분 · 환경을 보는 여성, 종교의 시선 / 박경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2:05~12:30	25분 · 환경과 교육 문제 / 최원형(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환경정의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	
12:30~	· 세션 1 종료	

세션 2.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재난 - 사례 발표

시간	프로그램	
14:00~14:30	30분 · 위기의 해양동물 / 이영란-(WWF(세계자연기금) 팀장)	[진행 / 이수정]
14:30~15:00	30분 ·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 한국의 경우 / 유영초(풀빛문화연대 대표)	
15:00~15:30	30분 Break Time	
15:30~16:00	30분 · 역사의 규모 / 吉見俊哉(요시미 순야)(도쿄대학교 교수)(영상발표)	
16:00~16:30	30분 · 우리의 섬-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 / 柯金源(거진위안)(다큐멘터리 감독)(영상발표)	
16:30~17:00	30분 ·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한 홍콩 출판 사례 / 李偉才(리웨이차이)(작가,前 홍콩 천문대 선임 과학관)(영상발표)	
17:00~	- · 세션 2 종료	

행사 일정

 • 2일차 / 11월 12일

세션 3.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각국 출판의 동향

시간		프로그램	
09:30~10:00	30분	·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 / 표정훈(출판평론가)	[진행 / 강성민]
10:00~10:30	30분	· 기후 감수성 / 박혜진(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 팀장)	
10:30~11:00	30분	Break Time	
11:00~11:30	30분	·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평행 출판인의 인식과 공헌 / 徐海 (쉬하이)(중국 鳳凰출판그룹 편집장)(영상발표)	
11:30~12:00	30분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신서 / 落合勝人(오치아이 가쓰토)(일본 集英社 신서 편집장)(영상발표)	
12:00~12:30	30분	· 팬데믹 이후 출판계의 미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만 출판 및 독서의 가능성 / 胡金倫(우감륜)(타이완 時報출판사 편집장)(영상발표)	
12:30~		· 세션 3 종료	

세션 4. 종합토론-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 방향 및 출판도시의 역할

시간		프로그램	
14:00~16:00	120분	· 표정훈(출판평론가) · 박혜진(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 팀장) · 박경수(뜨인돌 출판사 기획실장)	[진행 / 안희곤]
16:00~		· 포럼 종료	

CONTENTS

기조강연 / 지구 위기 시대, 출판계의 자기성찰	1
강수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세션1

출판이 알아야 할 생태주의 담론	11
-------------------------	----

01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	13
조천호(경희대학교 겸임교수)	
02 환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	23
하승수(변호사/前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03 환경을 보는 여성, 종교의 시선	37
박경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04 환경과 교육 문제	55
최원형(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환경정의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	

세션2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재난 - 사례 발표	67
-------------------------------	----

01 위기의 해양동물	69
이영란(WWF-한국세계자연기금 팀장)	
02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 한국의 경우	85
유영초(풀빛문화연대 대표)	
03 역사의 규모	109
吉見俊哉 요시미 슌야(도쿄대학교 교수)	
04 우리의 섬-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	123
柯金源 거진위안(타이완 다큐멘터리 감독)	
05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홍콩 출판 사례	131
李偉才 리웨이차이(작가/前홍콩 천문대 선임 과학관)	

세션3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각국 출판의 동향 135

- 01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 137
표정훈(출판평론가)
- 02 기후 감수성 149
박혜진(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 팀장)
- 03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평향 출판인의 인식과 공헌 161
徐海 쉬하이(중국 鳳凰출판그룹 편집장)
- 04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신서 169
落合勝人 오치아이 가쓰토(일본 集英社(슈에이사) 신서 편집장)
- 05 팬데믹 이후 출판계의 미래 179
胡金倫 우감룬(타이완 時報(쉬바오)출판사 편집장)

세션4

종합토론 187

- 진행 : 안희곤(사월의책 대표)
- 패널 : 표정훈(출판평론가)
박혜진(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 팀장)
박경수(뜨인돌 출판사 기획실장)

지구 위기 시대, 출판계의 자기 성찰

강수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우선, 올해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출판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이 포럼에는 한국의 출판계는 물론 동아시아 각국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 출판인도 아닌 제가 초대를 받아 기조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강수돌 교수입니다. 1996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25년간 고려대에 재직하면서 노동, 교육, 경제, 생명 등의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교수로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람을 보는 관점은 ‘노동력’(상품)이 아니라 ‘인격체’(생명)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출판인도, 투자자도 아닙니다. 굳이 제가 초대받았을 법한 이유를 제 나름 생각해 보자면,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설득력 있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는 1985년에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인간 노동이나 노동시장, 노사관계 이슈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강의해 왔는데, 다른 학자들과 달리 시종일관 ‘노동력’ 관점이 아니라 ‘인격체’ 관점을 견지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력 관점이란 이미 상품화된 노동력이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에서 임금 등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격체 관점이란 사람이 관리 및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책임성 있는 주체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노동력 관점이 삶의 객체를 상징한다면 인격체 관점은 삶의 주체를 상징하죠. 이번 ‘국제출판포럼’에서도 기후위기 등 전환기를 맞아 출판계가 내적인 성찰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삶의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 과연 기후위기 등 삶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의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저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6년간 대략 5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 또는 번역해 왔습니다. 평균 잡아 1년에 두 권씩 낸 셈이죠. 저로서는 부족하나마 그때마다 저의 연구 결과나 사유의 결과를 책이라는 형태로 발표를 해온 사실에 대해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제 스스로 성찰할 때 이러한 저술 활동이 오늘날 기후위기에다 일조한 게 아닌가,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술가로서 우리 출판계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니, 제대로 반성해 보라는 의미로 초청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셋째로, 저는 1991년 11월에 창간된 한국 최고의 생태주의 교양지 <녹색평론>에 직·간접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아마도 그 활동 경력이 이번 포럼에 초대된 배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1997년경에 처음 필자로 참여하기 시작해 2005년부터는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슬프게도 2020년 여름에 <녹색평론>의 발행인이던 김종철 교수께서 별세하는 바람에 아마 그 대신 저를 이 소중한 자리에 ‘핑 대신 닭’으로 부른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하여간 저로서는 이 귀한 자리에 초청되어 기조강연을 하는 것이 무척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물론, 제 말씀이 행여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적잖이 걱정도 됩니다.

2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위기 내지 전환의 시대를 맞은 우리 출판계의 큰 흐름을 짚어 보면서, 그 속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법 내지 대안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3

그 전에 우선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말이 대세였는데, IPCC 등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자칫하면 인류 전체가 얼마 안 가 공멸로 치닫게 된다는 경고를 거듭 진지하게 지적하는 바람에, 그리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다음 세대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빼앗지 말라.”며 저항행동을 범지구적으로 해오는 바람에 기후변화 개념이 ‘기후위기(climate crisis)’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열정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이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또 진정으로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아니, 과연 70억 인류가 범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마음이나

진지하게 갖고 있는지 의심조차 듭니다. 특히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대량소비와 대량폐기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기후위기에 가장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본과 권력이 진정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연동되어 70억 명의 세계시민들 역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힘겹게 적응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체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대량소비와 대량폐기의 중독 시스템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라 착각하며 중독 행위자로 살아온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중독적인 삶이란, 갈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갈수록 더 많이 소비해야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이 인류를 공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시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바쁩니다. 오히려 자본이나 (그 동반자인) 권력이 위기에 처하면, 일반 시민들은 너도 나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본과 권력만 중독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체로 중독 행위자로 기능해 왔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4

그럼 이제부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 출판계가 과연 어떤 면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첫째, 경영 방식의 문제, 둘째, 노동 방식의 문제, 셋째, 출판 내용의 문제입니다.

5

첫째로, 경영 방식의 문제는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대다수 출판인이 이윤을 위해 책을 만드는 것이지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책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독서 문화의 육성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 책을 만든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일차적인 동기가 돈에 있는 건 아니라 말하는 출판사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설사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온 사회가 자본주의 관계망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돈 문제를 무시하고 경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세계 곳곳의 훌륭한 출판인들이 비록 도도히 흐르는 탁한 강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한 권 한 권 좋은 책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비교적 좋은 책이나 논문들을 골라 읽으며 학자로서 성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책을 만들어 인류의 문화유산과 시대정신을 이어나가는 출판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판업자 개개인의 독특한 철학과는 무관하게 출판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구조가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자가 있고, 대기업에 버금가는 대형 출판사들이 있으며, 유통망 역시 거대 유통망이나 대형 서점들이 사실상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계의 큰손인 도매상이나 대형서점, 인터넷서점은 출판사에게 도서 정가의 50% 내외 가격으로 (심한 경우는 그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횡포가 너무나 막대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출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 요구에 응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대형서점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매대(賣臺)를 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판사로 하여금 서점 공간 내 책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본력이 있는 출판사나 전략적 행위를 하는 출판사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비교적 좋은 위치의 매대를 차지해 책 판매고를 올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출판사는 갈수록 위기로 내몰립니다.

여기서 이른바 ‘베스트셀러’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그 내용이 자기계발서이거나 재테크 전략(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같은 것입니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적인 무한 경쟁을 당연시한 채 그 속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책들이 종종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은 (때로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서점을 두루 둘러보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책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른바 ‘사재기’를 통해 출판사나 대행사가 특정 책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출판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죠. 요즘은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니까 파워 블로거나 파워 페부커, 파워 트위터 등을 조직하거나 인터넷 서점의 홈페이지 광고 내지 대형서점의 매대 노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벌급 대기업 같은 경우는 친자본 내지 친기업적인 내용을 담은 특정 서적에 대해 수천 내지 수만 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전 직원에게 필독서로 나눠 줌으로써 스스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책 판매고, 즉 출판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자본지향적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정치의 이슈가 됩니다.

반면, 소매점에 해당하는 동네 서점들은 이러한 유통구조에 수직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서점들은 도서 정가의 70% 내외로 공급받아 판매를 해야 하니 월세 내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인터넷서점(예/ 아마존, 예스24 등)이 유통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간상이나 마을 서점을 뛰어넘어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네 서점 또는 작은 서점에서 이뤄지는 인간관계나 책방 문화 형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에 상품, 화폐, 가격 경쟁만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다른 한편, 오늘날은 기존의 종이책 대신 디지털 문화나 영상 문화들이 대세를 형성해감에 따라 출판의 생태계도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책들을

요약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경향입니다. TV나 라디오조차 책 관련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다. 이제 독자들은 굳이 책을 사서 밑줄 그어가며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내에서 관련 책을 검색하고 브리핑 받듯이 훑어버립니다. 그 결과 책의 한 줄 한 줄마다 우리나라 오는 감흥을 느끼는 과정이나 그 감동을 타자와 공유하는 과정은 생략되기 쉽고, 책의 내용이나 그와 연관해 생기는 정서들은 매우 휘발성이 높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시대를 2년째 경과하면서 사람들은 (인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면서도 지루함을 유발하는) 책을 읽기보다 넷플릭스 영화를 선호하는 추세도 생겨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도 기껏 몇 만 권 수준이지만 넷플릭스 영화는 일단 인기 목록에 오르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수록 소규모 출판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요컨대, 오늘날 출판계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무한경쟁 원리 내지 효율성 원리가 작용하는 위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사실상의 독과점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대형 출판사들은 자금력만이 아니라 기획력, 마케팅 네트워크까지 탄탄해서 출판 시장을 안하무인으로 지배합니다. 때로는 대기업이나 주류 언론 등이 체계적으로 책을 홍보, 구매합니다. 인터넷 서점 역시 몇몇 대형 유통망이 지배합니다.

그 와중에 영세 출판사, 1인 출판사는 설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결과는, 독서문화, 책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 형성이나 독서 문화 및 공동체 형성 등의 차원은 갈수록 약화하고 그 대신 살벌한 자본 경쟁, 가격 경쟁, 상품 경쟁만 갈수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훈훈한 인간관계 대신 무미건조한 상품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물신주의(fetishism)가 온 사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이라는 인류의 문화 공공재를 더 이상 상품 시장에 방치하지 말고,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 도서관, 각급 학교와 대학, 언론, 종교 등 다양한 공적 기관들이 문화 공공재인 책의 생산과 보급, 독서와 토론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더욱 많이 연대하고 소통,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판사는 문화 공공재를 기획, 생산, 보급하는 핵심 주체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물신주의 풍토 대신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둘째로, 출판 노동 내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판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장시간 노동 및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단계별로 주5일제(하루 8시간, 주 40시간)가 시행되어, 201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실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 진영의 반발로 단계별 정착이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다시 주 40시간제(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판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77%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7%를 차지하는 구조(즉, 50인 이상 사업장은 총 3%밖에 되지 않는 구조, 그러면서도 대형 출판사들이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은 꿈이고 대체로 10시간 내지 12시간 노동을 예사로 합니다.

〈2015년 출판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노동자의 72.7%가 연장 근로를 한다고 했고, 37.3%는 휴일 노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4.7%가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했고, 44.3%는 휴일 노동에 대한 보상조치 없다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주 출판노동자의 52.1%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한다 했고, 12~14시간 일하는 경우도 8.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부터 ‘보리출판사’에서 주30시간제, 즉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명암은 있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출판계의 노동 환경을 감안한다면, ‘보리’의 실험은 오래 전 미국 ‘켈로그’사의 6시간 노동제(1930~1985년)처럼 일반 사회에 신선한 충격파를 던지며 새 혁신의 신호탄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험은 불행히도 전 사회적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합의가 불충분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체 사회 구조가 함께 변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 한두 조직에서의 선도적인 변화만으로는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은 제아무리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 등 위험 신호가 거세도 여전히 차별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만이 살 길임을 철칙처럼 믿습니다. 나아가 상당수 사회운동가들의 활약과 제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대다수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 안에서 안정된 직업과 더 높은 임금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인생 목표로 삼기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어렵습니다.

출판 노동 관련, 두 번째 문제로는 사장 내지 편집장의 ‘갑질’입니다. 여기서 ‘갑질’이란 일종의 권력 문제로, 자본주의 조직경영에서 흔히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인사관리 관행입니다. 이는 전체 출판사의 70~80%가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일례로, 사장이 편집장이나 일반 직원들에 대해 강압적, 일방적 명령을 내리거나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정이 촉박한데도 성과 달성을 강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편집장 역시 사장에게 시달리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는 사장처럼 군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리한 출간 일정으로 인해 편집장은 물론 일반 직원들이 모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아가

노동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역시 보장되지 않기 일쑤이고 만일 무리해서라도 휴직을 하고 나면 죄책감으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외주 노동자들은 예사로 임금체불을 경험합니다. 상기 <외주출판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88.8%의 외주노동자가 ‘작업비 체불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판 노동의 세 번째 측면은 집단적 노사관계 차원입니다. 출판 노동자의 독자적 노동조합 결성 문제와 단체협약 문제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으나 출판 노동자의 독자적 조직은 뒤늦게 출범했습니다. 마침내 2012년 한국에서 “행복한 노동이 좋은 책을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출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출판 관련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약 4만 개의 출판사가 있고, 직접적인 종사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출판 노조 조합원은 1%도 안 됩니다. 그간 선진 활동가들이 노력한 덕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전술한 노동시간 문제나 ‘갑질’ 문제, 그리고 부당해고 문제 등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회원사로 가입 중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사용자 대표로 나와 출판 노조와 ‘업종별 단체협약’을 체결, 출판 노동관계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7

이제 마지막으로 출판 내용의 문제, 또는 출판과 생태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어차피 책을 만드는 것은 종이를 써야 하고 이 종이는 나무나 숲으로부터 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한 해에만도 약 8만 종의 신간이 발행된다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늘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라 하더라도 책 발행의 규모는 결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녹색평론> 발행인이던 고 김종철 선생님이 “히말라야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1996년에 발표한 글을 인용해 봅니다. 이 글은 1999년에 발간된 <간디의 물레>에도 나옵니다.

프랑스의 저명 언론인 기소르망(Guy Sorman, 1944~)이 인도를 방문해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아시스 난디(Ashis Nandy, 1937~)를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빈곤 문제를 포함해, 현대 인도 민중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인도의 높은 문명률을 줄여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아시스 난디가 답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 민중이 문자를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신문이나 책을 읽으려고 할 것이며, 그리되면 히말라야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소수의 지식인 외에는 글을 읽고 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른바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는 생태주의(ecology)와 양립 불가함을 통찰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문맹을 줄여나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회 발전을 이루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생태적 파멸이 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외에도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 등 파국적 상황에 고통을 겪는 배경도 결국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경제 시스템, 즉 자본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18세기 이후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온 사회가, 아니 전 지구가 자본주의적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역설적인 결과 중 하나가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가 아니던가요?

물론 여기서 ‘발전’이란 형식적 차원에서 근대성(modernity)의 외피를 두른 것이고, 그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전통과 공동체의 파괴, 자연의 대상화, 타자 내지 약자의 식민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전’ 패러다임의 주체는 엄밀히 말해 유럽 자본주의였고, 그 이후 미국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은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 세계화한 자본주의, 더 깊이는 우리들 가슴 깊이 내면화한 자본(internalized capital)까지 모두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 및 내면화가 진전되면서 앞서 아시스 난디가 말한 “히말라야”에는 다행히 아직 나무들이 좀 남아 있지만 벌써 빙하는 지난 40년간 약 30%가 줄었으며, 2100년까지 잔존 빙하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실제로는 더 앞당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건 빙하건 그 소멸은 결국 인류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음을 뜻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에 따르면 향후 지구는 2050년 내지 그 이전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 합니다. 기후 위기가 곧, 지구 위기요 인류 위기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출판되는 책들은 가능한 한 지구의 위기를 저지하거나 극복하는 데 헌신해야 할 듯합니다. 전술한 김종철 선생께서 1991년 가을에 한국에서 생태주의 교양지 <녹색평론>을 창간할 때 “범람하는 인쇄물 공해의 시대에 또 하나의 공해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를”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삼림파손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 잡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을 실토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십년이나 삼십년쯤 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김 선생님은 자신이 새 잡지를 만드는 일에 그다지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일요판이 나오기 위해서 캐나다의 숲이 하나씩 없어져야 하는 시대에, <녹색평론>이 아무리 재생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보려고 애쓴다 해도 결국 헛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그 뒤로 약 30년이 흘러 김 선생님은 1년 전에 흠으로 돌아가셨지만, 대다수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기를 바랄 뿐 아니라 잘살기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우리는 책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종이와 나무 펄프, 숲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

적으로, 팔리는 책을 만들기보다 필요한 책을 만들어야 하며, 지구위기 내지 인류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이거나 위기를 막을 지혜를 담은 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자기파멸적인 중독 체제(addictive system)를 극복하는 데 도움 되는 책 들이 절실합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민중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가 1935년경에 쓴 ‘톱질하는 사람들’이란 시를 같이 음미해볼까 합니다. 중독 체제 속에 사는 중독자들의 모습, 즉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에 앉아
자신이 앉아 있는 가지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다.
누가 더 빨리 톱질할 수 있는지 시험하듯이.
그러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아래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쳐다보던 다른 이들은
톱질을 하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또 톱질을 힘차게 계속 했다.

이 시가 호소하듯, 우리는 더 이상 ‘자기가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책이 상품으로, 또 출판사가 자본으로 기능하는 한, 이 자기파멸적인 중독 체제의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책은 더 이상 상품(사유재)이 아니라 공공재로, 출판사는 공공문화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듯합니다. 국가나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이런 차원에서 책의 출판과 독서 문화 진흥, 나아가 토론과 성찰을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책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 습득의 도구로 여기기보다 지혜와 통찰을 얻고 공유, 소통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반 일리치(1926~2002)의 지적처럼 중세 후기 서양에서 시작되어 근대 산업주의 문명으로 연결된, ‘고립 속에서 침묵으로 행하는 독서’라는 습관보다는,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여럿이 모여 책을 읽고 대화나 토론을 통해 상호 깨우침을 행하는 공동체적 습관을 온 사회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 홀로 독서’를 넘어선 ‘더불어 독서’는 나를 바꿀 뿐 아니라 서로를 바꾸는 것이자 온 사회까지 바꾸는 미시적 혁명입니다.

요컨대, 지구위기 내지 인류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출판계가 크게 세 측면에서 깊은 성찰을 하고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양적인 차원에서, 책이나 출판물의 과잉생산을 멈추고 적정생산 내지 생산절제의 방향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질적인 차원에서,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 생존에 도움 되는 것 위주로 출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동아시아 연대의 차원에서, 각 나라에서 나온 좋은 작품들을 상호 번역 출간함으로써 연대와 소통을 촉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찰과 실천이 줄기차게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가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스스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지구 위기나 인류 위기를 극복할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8

이제 제 기조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 지구인이 꼬박 2년째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 그간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를 앗아갔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죽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 위기 내지 인류 위기 등과 마찬가지로, 지구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와의 내적 연관성을 꿰뚫어볼 수 있게 ‘성찰의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국제출판포럼’이라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된 것 역시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모쪼록 우리 동아시아 출판계가 먼저 나서서 제가 말씀드린 출판의 경영 방식, 노동 방식, 그리고 출판의 내용 등 세 차원에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는 데 일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션1

출판이 알아야 할 생태주의 담론



- 01.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조천호)
- 02. 환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하승수)
- 03. 환경을 보는 여성, 종교의 시선(박경미)
- 04. 환경과 교육 문제(최원형)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



조 천 호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

2019년 10월,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차된 지하철 위로 두 명의 남자가 뛰어 올라가 “Business as usual = Death” 이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쳤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죽음’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은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란 환경운동 단체에 의해 벌어졌는데 당시 시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한쪽은 미래 세상을 안전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제 시간에 출근해 현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속하려 한다. 양측 모두 생존을 두고 염려한다는 점은 같다. 인류는 새로운 통찰이 필요한 세상에 들어섰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사회를 지탱해오던 시스템이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다보스 포럼이다. 세계 각국의 정상,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자리의 최근 가장 큰 화두가 ‘기후위기’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앞으로 10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해 설문 조사를 한다. 2021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가장 큰 위험은 기후 환경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 세 번째가 경제적 요인이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 포럼은 경제적 요인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위험 순위가 바뀌어 버렸다. 지구 환경이 제공하는 에너지와 물질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 경제 활동인데 지구 환경이 무너져 경제가 무너지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어떤 기후환경 조건에서 이루어졌나? 기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어 왔다. 빙기에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의 극한 날씨보다 더 변덕스럽고 혹독한 기후에 맞서야 했다. 이런 기후에서는 농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냥꾼이자 채집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매년 한 번 정도 한반도를 지나간다면, 피해를 복구해서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태풍이 매년 여러 번 휩쓸고 지나가면 복구가 의미 없으므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2만 년 전부터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후퇴했다. 마침내 1만 2,000년 전에 빙하기를 뒤로하고, 현재의 따뜻한 간빙기인 홀로세에 들어섰다. 홀로세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로운 ‘완전한 시대’라는 뜻이다. 빙기보다 기후변동이 매우 작은 안정한 시기였다. 이때 구석기에서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홀로세는 전 세계 인구 79억 명을 먹여 살리고 현대 사회를 지탱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기후 조건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역겹의 세월 동안 태양에너지를 축적한 석유와 석탄, 즉 화석연료를 태우면 에너지가 다시 나온다. 이것은 그 이전 사회 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던 수많은 제약을 없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류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

지구상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1900년에는 생물 총량(biomass)의 3% 크기 정도였는데 2000년에는 절반 크기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2000년에 비해 두 배가 되어 이제는 생물 총량과 거의 같은 양을 차지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매년 약 3%씩 성장한다. 이렇게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는 두 배가 된다.

거대한 가속은 기후위기와 지구환경의 파괴와 궤를 같이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이득을 안겨주었던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인류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잘 살아가려면 부득이 치러야 할 비용이다. 이 비용 때문에 1만 2,000년 전부터 지속해온 홀로세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래도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은 인간 세상이 커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의 속도는 80만 년 전 이후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일어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100배 그리고 기온 상승은 10배나 빠르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크기보다 속도에 달려있다. 기온상승이 빨라질수록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강력하게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날씨 재난 발생 횟수가 1980년에는 약 250개였는데 2019년에는 800개를 넘어섰고 그 증가율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만큼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가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만큼 기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어 그 가열 효과가 누적된다.

지구는 지속적이고 강력해지는 충격으로 속은 멎고 있다. 화를 꺾고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더해지면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증가라는 충격이 계속 누적되면, 어느 순간 기후계 균형이 무너지는 돌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후에는 자연 스스로 위험이 증폭되어 회복할 수 없다. 지구는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후위기를 스스로 증폭시키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건 단순히 더워서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가뭄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물에 잠기면서 인류 생존 근거가 무너진다. 결국 기후위기는 자연만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급변적인 기후가 우리 눈앞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면, 사회 불안정, 정치 갈등, 국경 분쟁, 난민 발생, 인종 청소 등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 경제와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내몰려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지구에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 지금까지의 기후와 지구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대부분의 체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의 성장은 인간의 두뇌와 근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성장은 그만큼 더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와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야 이를 수 있다. 지구는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곳이다. 자연법칙은 한쪽은 고갈시키고 다른 한쪽은 쌓아두는 불균형을 반드시 붕괴시킨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더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될 수 없다.

이제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구 안정성은 흔들린다. 소득은 늘었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어려서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웃을 이기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불안이 우리 삶을 치열하게 만든다. 이처럼 우리 삶의 원동력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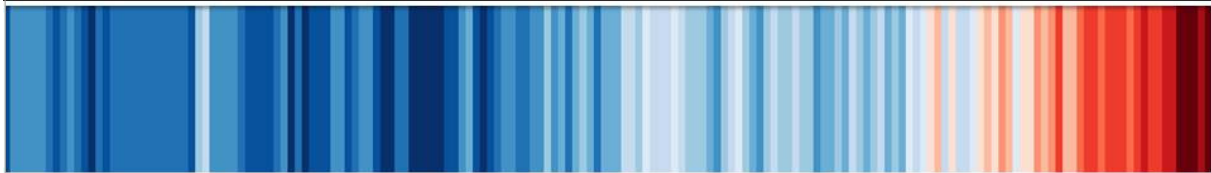
이 불행의 원동력이 에너지와 자원을 착취하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을 멸종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사회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부와 자원을 흡수해서 꼭대기로 끌어 올리는 이런 시스템은 자연도 사회도 함께 붕괴로 몰아갈 최적의 조건이다.

이제 지구환경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부차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 위험을 넘어서면 안 되는 '최우선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 기후위기보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제한을 가하는 지배적인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잠재적 파멸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멸은 일어나게 될 결론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면 된다. 뒤틀리고 짓밟힌 우리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후위기이다. 우리는 불이 나면 시험 때보다도 더 빨리 뛸 수 있고 바로 그래야 할 때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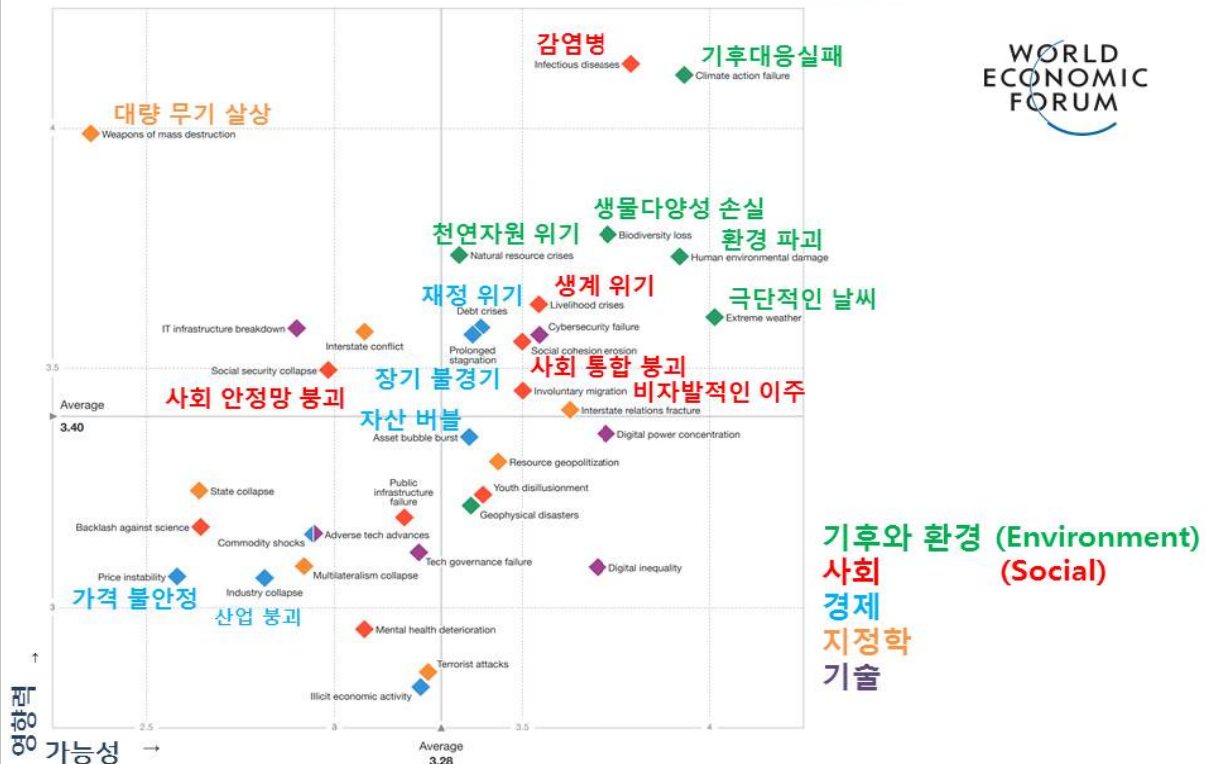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

거대한 가속 (Great Acceleration)에서
담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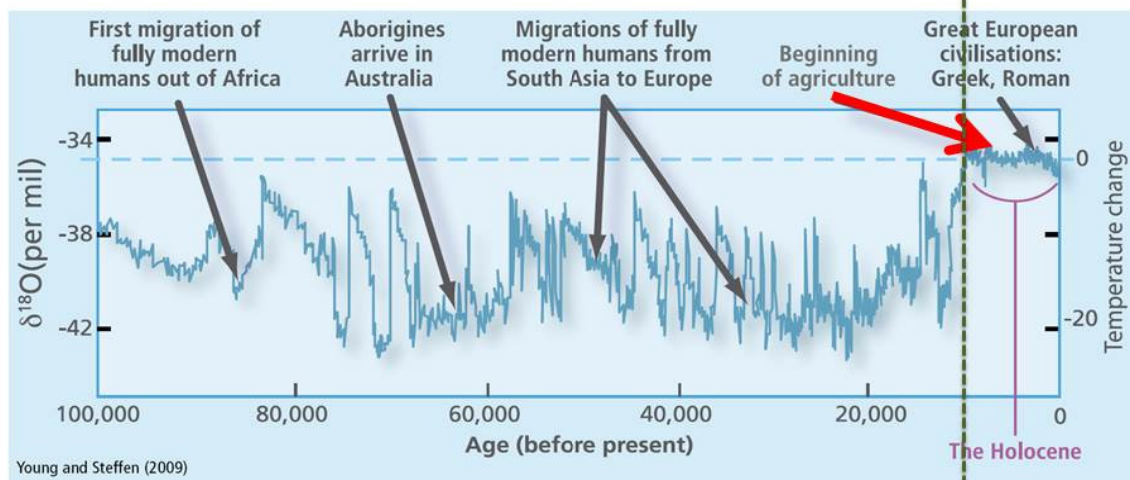


앞으로 10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2021년



문명 탄생의 기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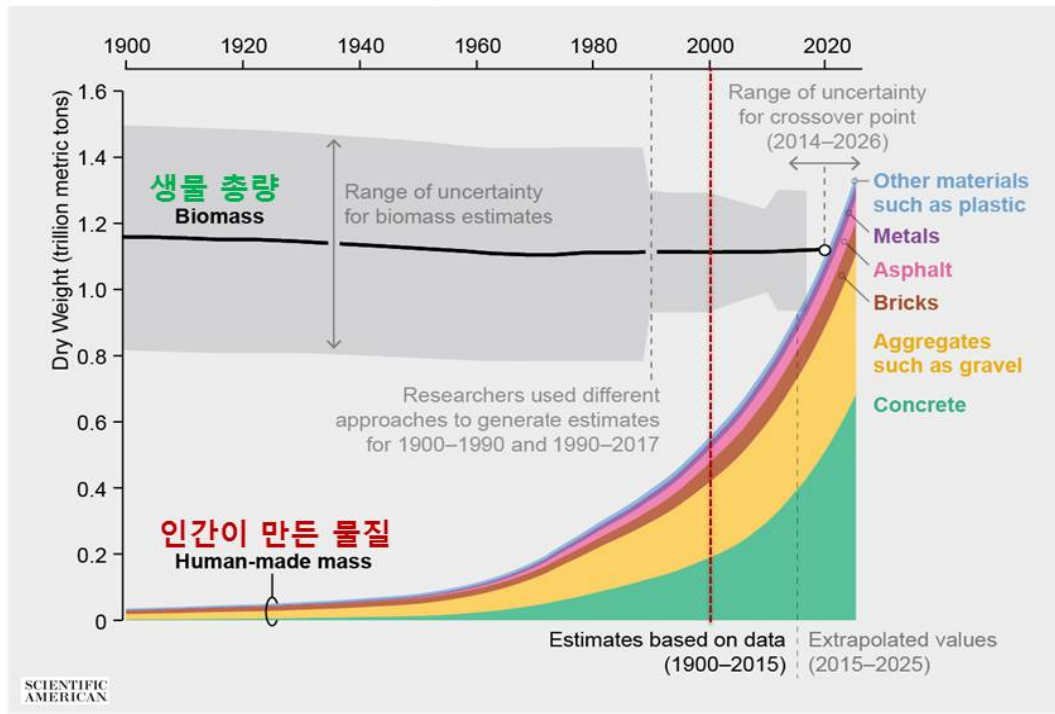


지난 10만 년 동안 기온 변화 (그린란드)

홀로세는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현대 사회를 지탱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유일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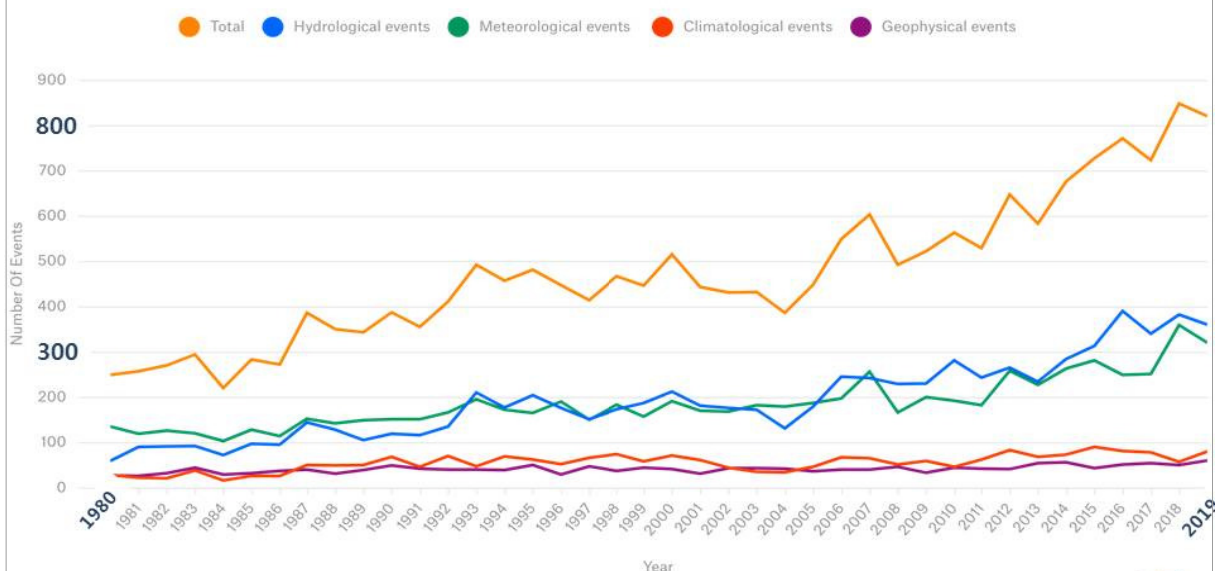
출처: Young, O. R., and W. Steffen. 2009. The Earth system: sustaining planetary life-support systems. Pages 295–315

거대한 가속 (Great Accel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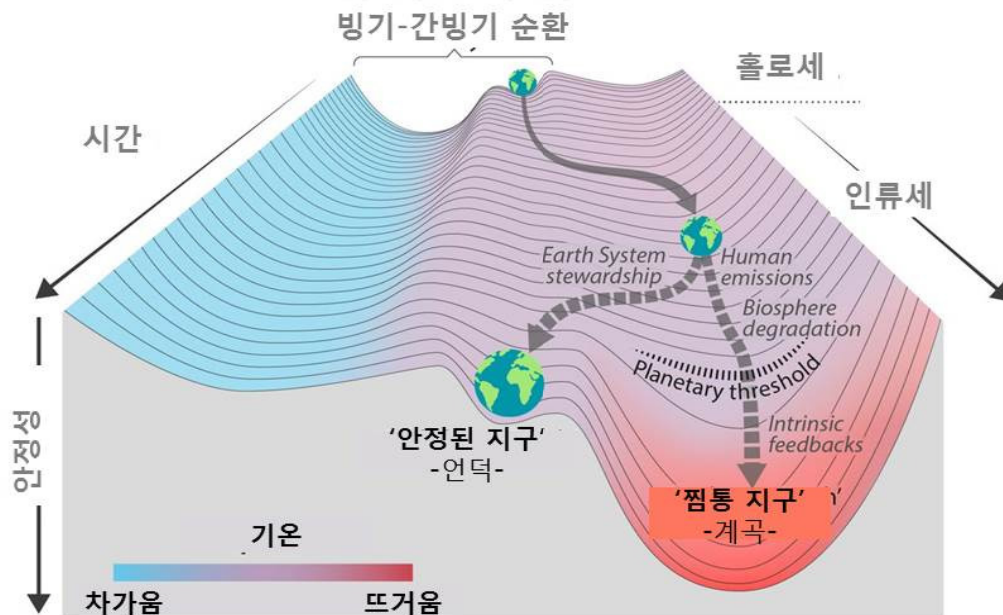
Nature(2020)

전 세계 날씨에 의한 재난



Munich 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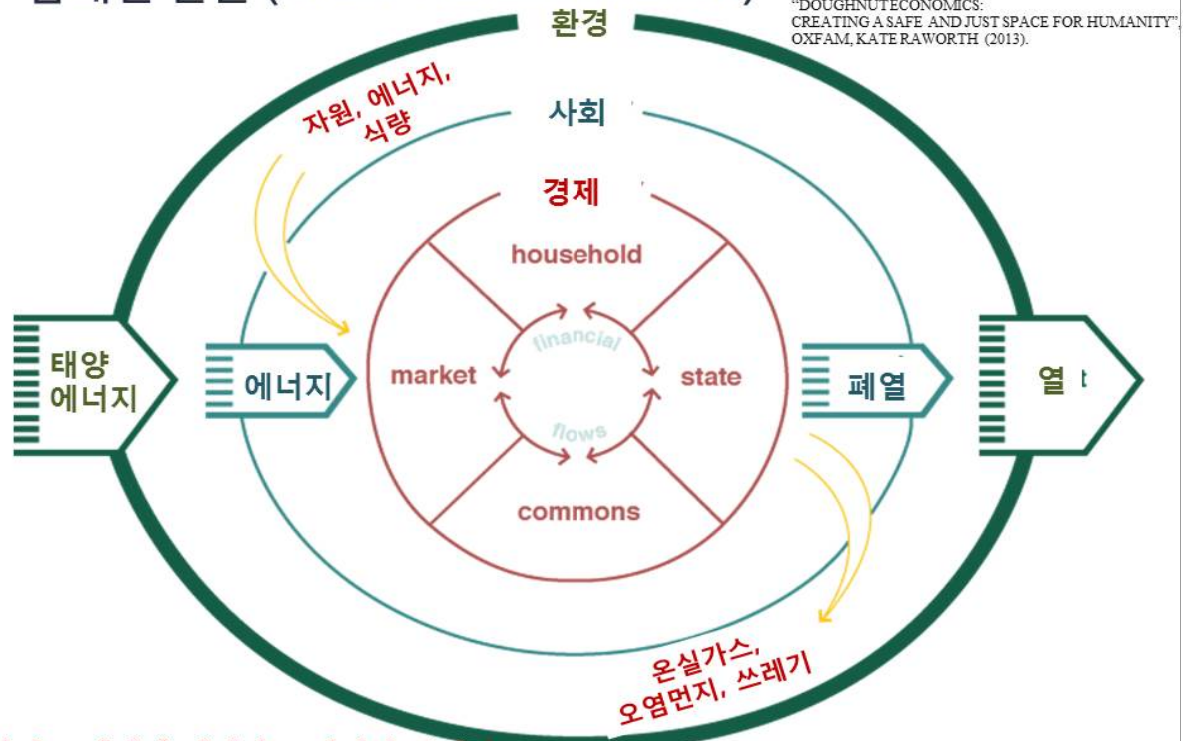
회복 불가능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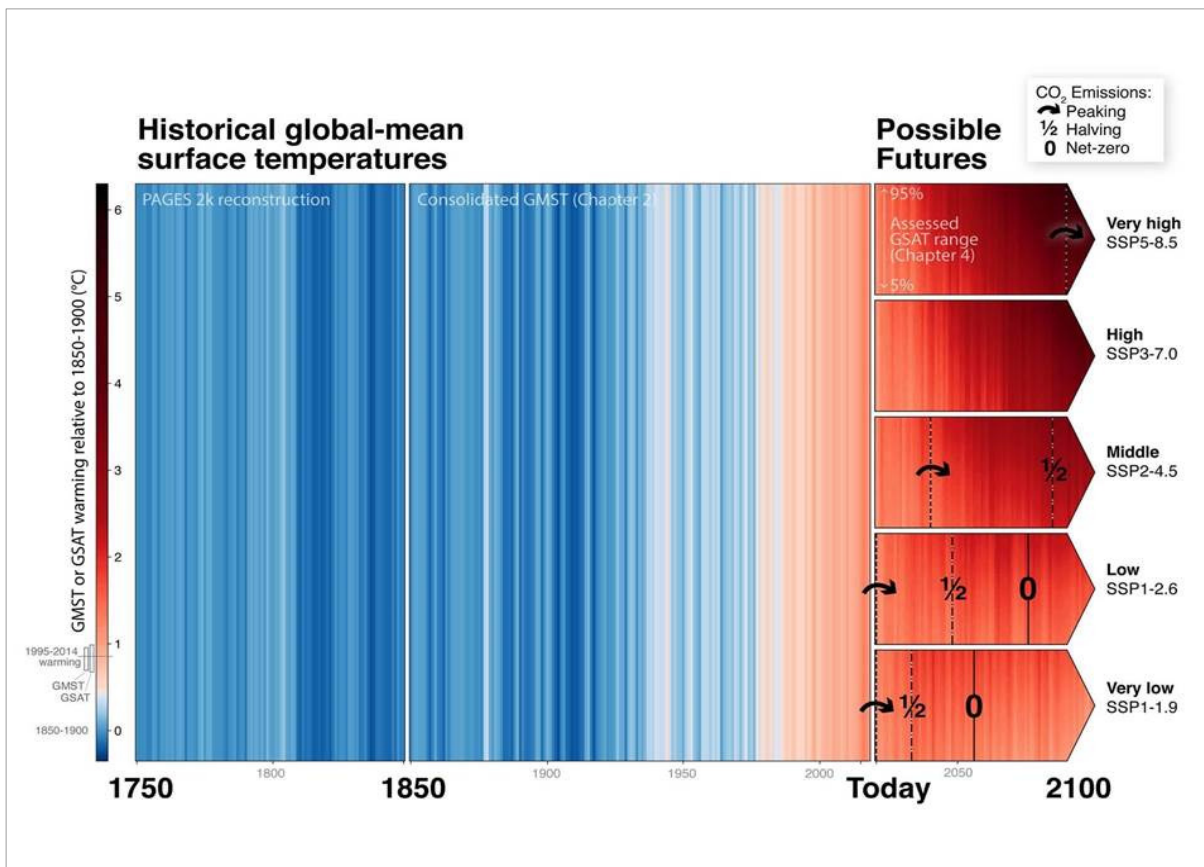
Will Steffen et al. PNAS doi:10.1073/pnas.1810141115



담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경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사회는 지구 한계의 안전한 운용 공간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





환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



하 승 수

변호사/前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을 위한 정치경제적 관점

기후위기 시대, 정치·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 기후위기의 상황

기후위기는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실천만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화석연료 의존 산업구조, 교통, 농업·먹거리, 건축, 폐기물 등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0년 413.2ppm에 달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C에서 막으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Net Zero)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단기적이면서도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꿔보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 대한민국의 상황

대한민국도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들을 겪고 있다. 이상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의 겨울은 전국 기상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기온이 가장 높았다.

2020년 여름에는 54일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를 겪었다. 2021년에는 가을장마가 길었다.

이런 이상기후는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긴 장마로 인해 쌀 수확량이 2019년 대비 6.4%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확량 감소폭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냉해로 인한 과일재배 농가들의 피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가을에도 병충해로 인해 전북지역의 벼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배추농사도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곡물자급률이 20%대,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한민국은 ‘식량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는 대한민국은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된다. 식량가격이 폭등하거나 굶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나 마찬가지이다. 국외에 진출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식량을 들여오도록 ‘반입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 상황이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2억 9,290만 톤(CO₂eq)에서 2018년 7억 2,760만 톤에 달했다. 1990년 대비해서 149%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증가추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했다. 1990년에 6.8톤이던 대한민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14.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소극적이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 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했지만, 정작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게다가 국외에서 3천3백 톤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기술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 크지만, 기존 산업계가 반발하는 탓도 크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온 에너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대량배출기업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포스코(1위), 한국남동발전(2위), 한국중부발전(3위), 한국동서발전(4위), 한국서부발전(5위), 한국남부발전(6위), 현대제철(7위), 쌍용양회공업(8위), 포스코에너지(9위), 현대그린파워(10위)의 순이다¹⁾.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1) 기업지배구조원, ‘국내외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9 참조

일차적인 관심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있지 않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높은 부동산가격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불평등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을 좁히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행복도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지난 2018~2020년 평균 대한민국의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며,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야말로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성장, 기본소득, 선거제도 개혁, 연방제와 면·읍 자치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탈성장, 기본소득,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판계에서도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출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기후위기와 탈성장

경제성장주의를 유지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유러피언 드림(European dream)〉에서 미국과 유럽사회를 날카롭게 비교하며, 미국이 유럽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다고 자랑하지만, GDP는 ‘삶의 질’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범죄가 증가해 경찰을 더 고용하고 법원과 교도소를 늘리는 것도 GDP에 포함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해서 제거하는 활동도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활동이 필요 없을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복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에서 로버트 스킨델스키와 에드워드 스킨델스키(Robert & Edward Skidelsky)는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으로 모아지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는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스킨델스키 부자는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기본재(basic goods)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제시하는 기본재는 일곱 가지이다. 건강, 안전,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이다. 그리고 일곱 가지 기본재를 위해 필요한 대안은 더 평등한 분배, 지역 분산과 분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조건 없는 기본소득, 소비를 줄이기 위한 누진소비세, 광고규

제 강화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성장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목표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도 경제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영국의 생태경제학자인 ‘팀 잭슨’은 〈성장 없는 번영(Prosperity without growth)〉에서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유한한 생태계 안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시스템이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답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탈(脫)성장이 필요하다. 탈성장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최소한 국가의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우는 것에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워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목표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경제성장주의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삼아 왔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후순위 문제로 취급해 왔다. 그래서 지금껏 화석연료를 평평 써 왔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도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목표로 인정하는 순간,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산업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에 해롭다’는 논리로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저항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정책의 지상목표로 경제성장을 놓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의 약칭을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부를 모양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대한 국민기만극을 벌이는 것이다. 이 법률로는 결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약칭은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의 본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60번 넘게 등장하는데, 그 전부터 존재해 왔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때문인 것도 있지만, 법률의 내용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UN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 UN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5,600만 톤에서 45%를 줄이려면

배출량을 3억 6,00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35%'를 줄이겠다고 한다(최근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는 감축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40%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까지 늘어났고, 그것의 35%를 줄이면 배출량이 4억 7,200만 톤 수준이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것에 비해서는 1억 1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법으로는 과연 2018년 대비 35%(또는 정부가 발표한 40%)를 감축하는 것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니라 탈(脫)성장 기본법이다.

경제성장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는 '탈성장'을 국가적으로 선언하고, 경제성장주의와 개발주의를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같은 경제부처들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총체적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전환부총리를 뒤편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부가 하는 일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말로만 전환을 얘기할 뿐, 정부가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몇 가지 새로운 일을 덧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연말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항건설하고 도로건설하는 예산들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동해안에 짓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질 것이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게 될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녹색성장기본법'은 내용을 들여다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위원회 만들고 기금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부처 장관들, 기업관계자들,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나? 독일의 '연방 기후보호법'의 경우에는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이런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

진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탈성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전환의 출발점이다.

4.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1) 전환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이다. 이제는 대통령선거에서도 기본소득이 쟁점이 될 정도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시각이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기후위기 따로, 기본소득 따로 보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면, 기본소득도 기후위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도입할 명분도 더 존재한다.

나는 기본소득을 ‘전환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해 온 산업들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마룻바닥(Floor)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2) 생태세-생태배당

물론 생태주의자 중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서 생태계를 더 파괴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보고 지지하는 사람 중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면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반대의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 없이도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되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성장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제성장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는데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유포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탈성장’이 필요하지만,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이 존재하는 이상, 개발주의와 경제성장주의는 이 사회를 계속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전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다른 사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은 ‘전환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관행농업을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얻는 소득은 줄어들더라도, 기본소득이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소득을 잘 설계하면,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기후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기존에 도입하거나 논의된 정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세(탄소부담금,

탄소경매금)로 배당을 준다'는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부담금-생태배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저질러져 온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것을 통틀어서 생태부담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담금을 매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어차피 가격이 비싸다면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서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야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생필품은 당장 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력한 생태부담금(생태세)을 도입하려 할 때에, 큰 약점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인기 없는 정책,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취급당하기 쉬웠다.

그러나 이렇게 걷은 돈을 재원으로 서민들에게 조건 없이 생태배당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걱정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태부담금 징수 - 생태배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파격적으로 줄게 되면, 생태부담금 - 생태배당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생태세 또는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면 좋은 일이다. 전환을 두려워하면 될 일이 없다.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3) 3가지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

그러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생태부담금-생태배당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다.

다른 하나는 전환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기본소득이다. 즉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되지 않는 기본소득이다. 이런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뒤서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갈 수도 있다.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면 청년, 장애인, 노인 등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마스 페인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정책도 가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민’의 범주에는 농사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민을 돕거나 농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귀향, 귀농, 귀촌을 통해 대도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닥쳐올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인구가 대도시에 몰린 상황에서는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도시는 외부에 에너지와 먹거리를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청년들의 귀농, 귀촌도 활발해질 것이다.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가장 확실한 농촌 살리기 정책이고,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귀농인구가 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소농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앙드레 고르는 프랑스에서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5배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다.

5. 선거제도 개혁과 기후위기²⁾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의 반응이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선거제도의 차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대표제(Majority System)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살로몬 오렐라나(Saloman Orellana)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에서는 17년간(1990-2007) 45.5%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국가에서는 9.5%만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각 선거제도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이 배분된다. 따라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던질 때에는 그 정당의 정책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즉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대책에 적극적인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의 총선에서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정당투표를 더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다른 정당들도 기후위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게 된다. 진보적인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정당들도 기후위기

2) 이 부분은 필자가 쓴 “정치의 녹색전환”, 『녹색전환』, 한울아카데미, 2020의 글을 요약·수정한 것입니다.

에 대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가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정치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려면, 선거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0년 이전까지 정당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국회의원 대부분을 선출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이 이 방식으로 선출하고, 300명 중 47명만을 비례대표로 선출했다. 이런 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다수대표제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런 방식을 ‘병립형(parallel system) 또는 혼합형 다수대표제(Mixed Member Majoritarian, MMM)’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준연동형’이라는 기묘한 방식이 채택됐다.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방식은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 의석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숫자의 50%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100%를 보장하는 것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면, ‘준연동형’은 50%만 연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 한해서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 한해서 ‘준연동형’을 적용한다는 상한선 조항도 부칙에 두고 있다. 그래서 누더기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총선 전에 선거제도를 다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안은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arty-list propotional representation)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독일이나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tional representation)를 도입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도로 개혁하면, 기대되는 여러 효과들이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정책 경쟁이 가능해진다. 기후위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구 선거가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다양성을 보장한다. 지금보다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낳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당만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층, 여성들의 국회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20대, 30대 국회의원 비율이 40%가 넘는 덴마크는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국가이다.

셋째,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팀이 움직이게 된다. 설사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정당은 남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기후위기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제는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장점이 크다.

넷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개혁을 하면 유능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선거 때에 급조해서 이합집산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당들이 이합집산보다는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올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길러내야 하고, 공천은 민주적으로 해야 하며,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의 비례대표제 국가들에 있는 정당들은 청년조직을 통해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양성한다. 그리고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당원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정당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쓴다.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한편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부터 낮춰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만18세에서 만17세,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연령부터 만16세로 낮추기도 했다.

비록 늦었지만 2020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거권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만25세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너무 높으므로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헌법에서 만4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헌법 개정을 할 때에 낮춰야 한다. 외국에서는 30대 국가지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인 만18세가 되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국가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은 청소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야 청소년,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정당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라면, 굳이 법으로 정당가입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권력의 분산과 농촌지역의 면·읍 자치³⁾

앞에서 국가의 전환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했다. 국가가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환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가진 권력과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는 그동안 경제성장주의와 결합하여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에너지 전환을 하고 순환경제와 자급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지역에서부터 출발해 왔다.

그런 점에서 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993년 녹색평론 8호에서 했던 아래와 같은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과 같은 권력의 중앙집중적 체계 속에서는 그 권력이 생명의 옹호를 자신의 과제로 떠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거대한 권력의 집중 그 자체에 이미 반생명적이며, 반생태적인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는 결코 거대권력의 통제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도, 또 그렇게 극복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김종철)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앙집중적 정치·행정권력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강화시켜온 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적 전환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전력정책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바닷가의 외진 곳에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짓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초고압송전선(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을 건설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오는 전력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이런 방식은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있었다면, 이런 방식은 이미 포기되었을 것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위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마음대로 발전소 지을 자리를 정하고 초고압 송전선도 건설해 왔던 것이다.

다른 한편 ‘지방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론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요즘 나오는 ‘메가시티’론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수도권을 닮은 거대도시권을 지방에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처럼 될 수 있을까? 수도권이 수도권일 수 있는 것은 정치·행정적 권력이 그곳에 있고, 사회·경제적 권력도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3) 이 부분은 <녹색평론> 2021년 11-12월호에 쓴 “농과 자치, 민주주의”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메가시티’를 얘기하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이다. 결국 ‘메가시티’라는 단어만 내세워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사업 예산이나 따오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가덕도 신공항’처럼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을 타당성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메가시티’론이 낱을 결말이 예상되는 것이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논의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연방제이다.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주권을 가진 주(州)로 구성되는 연방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도 연방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 연방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방제는 미국도 채택하고 있고, 독일도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한 구성원리이다.

그리고 주(州)의 권한은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등과 전체적인 조정역할만 하고, 나머지 역할은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자급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서울처럼 100% 자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그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 부담 없이 다른 지역에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된 문제를 떠넘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면(面), 읍(邑) 자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5.16. 군사쿠데타 이전의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자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시(市) 단위로 자치를 했고, 농촌지역에서는 면, 읍 단위로 자치를 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지방자치를 중단시키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면·읍을 군(郡)으로 강제통합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면서도, 면·읍 자치를 부활시키지 않고, 군 단위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농촌지역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기초지방자치는 시·정·촌 자치이다. 정·촌은 우리로 치면 읍·면 정도이다. 독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도 농촌지역에서는 우리의 읍·면 정도이다. 스위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도 그렇다.

지금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 면·읍의 지방자치를 부활시켜야 농촌에 맞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지금의 군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자치를 하기에는 너무 넓다. 군 안에서도 읍·면별로 사정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 군 단위에서는 제대로 된 자치를 하기도 어렵다.

지금도 단위 농협은 면·읍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더라도,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는 면·읍별로 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자립도 가능하다. 독일의 유명한 에너지자립 마을인 쇠나우(Schönaue)는 우리로 치면 면 정도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런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주민투표를 통해 했을 정도로 폭넓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쇠나우가 우리의 면·읍처럼 자치권도 없는 군청의 하부조직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가 가능해야만,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 모델이 나올 수 있다.

7. 글을 마무리하며

앞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의 과제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한 얘기도 없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정을 봐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란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5년 후, 10년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크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C, 3°C 이상 올라가고, 이상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그 상황에서 식량, 물, 에너지 등을 둘러싼 국제·국내적 갈등이 심각해질 때, 과연 인류는 평화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크다.

그러나 걱정을 한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력감에 빠져 손을 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수밖에 없다.



환경을 보는 여성, 종교의 시선



박 경 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환경을 보는 여성, 종교의 시선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나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

1

과거에는 신적 계시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이나 환상가들이 우주 대파국에 대한 어두운 종말론적 비전을 펼쳐보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학자로부터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성서의 묵시문학적 환상가들이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끓어오르는 신적 분노의 표현으로서 마지막 때의 대파국에 대한 환상을 펼쳐보였다면, 현대의 묵시가인 과학자들은 산업문명 이후 250여 년 간 이어져온 인간에 의한 극단적 자연파괴 행위의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사실들로 담담하게 보여준다. 또한 성서의 유대 환상가들이 묵시적 은유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실은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식민지 피지배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제국의 종말’에 대한 기대였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펼쳐 보이는 파국적인 미래의 모습은 결코 은유가 아니며, 그 일차적인 희생자들은 전 세계의 가난한 약자들일 공산이 크다. 결정적으로 성서의 고대 묵시가들은 파국 이후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인간을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묵시록적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고대의 묵시가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일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어떤 형태를 띠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목전에 다다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았고, 근원적인 희망을 갈구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절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야 숨 쉴 공기와 마실 물이 있을지, 인간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찾아 나서야 할지 모른다. 일자리와 부동산폭등에 대한 고민이 더 절망적인지, 아니면 희박한 물과 공기를 찾아나서는 것이 더 절망적인지 묻는 것은 부질없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문명과 그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의 위기, 과거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고,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만큼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 즉 자연환경의 파괴와 내전이 전 세계에 걸쳐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리아와 수단 등 자연파괴를 직접 겪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은 이미 내전으로 목살을 앓고 있고, 이제 그 여파는 유럽을 비롯한 중심부 세계에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서구 근대의 유산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부유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만이 아니라 후발 경제개발 국가의 개인들 역시 서구적 근대화가 약속한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계속해서 실현되기를, 자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전 세계인의 기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이 점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재산권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추구는 실은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소수의 특권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화하면서 전파시킨 이념인데, 후발 경제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더라도 한 듯이 믿고 있다. 이런 환상적인 기대 속에서 그들은 상호 협동과 의존을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후진적이라 여기고 서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기꺼이, 그리고 열렬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망해지고 이제는 돌아갈 과거도, 정신적, 실질적 고향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많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절망과 분노가 가져올 연쇄반응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몰두해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구성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도덕성을 결여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민중은 별거벗은 개인으로 위기에 내던져진다. 아담 스미스의 기대와 달리 각자의 이익 추구는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옥을 만든다.

오늘날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서구 중심부 세계는 아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우리 역시 아직 버티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중심부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말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 그의 성격과 능력, 대담한 행동들은 그 본질에서 보면 결국 자기 주변세계가 안전하다는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발전한 문명세계의 거주자들은 제도와 도덕, 경찰력과 여론의 힘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어느 문명이든 그런 확신에 근거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관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¹⁾ 그러나 전쟁이든, 자연재난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일단 그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명의 붕괴는 견잡을 수 없다. 결국 근대문명이란 조셉 콘라드가 말하듯이 일종의 얇은 베니어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계기로 인해 그 얇은 베니어판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보았던 내면의 거대하고 깊은 심연과 어둠이 드러난다.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문명의 담장 아래는 훨씬 크고 교활한 힘이, 문명과

1) 조지프 콘라드, 『어둠의 심연』 이석구(역), (을유문화사: 2011), 312.

자연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측불허의 거대한 ‘전체’의 힘이, 피부 바로 밑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 다만 근대 기술문명에 취한 우리가 그 세계와 직접 대면할 능력을 잃어버렸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짜 안전, 가짜 위안을 떨치고 위기의 본질에 직접 대면해야 한다. 이 절체절명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조건적인 희망뿐이다. 이러저러하게 잘 행동하면 잘 되리라는 기대(expectation)가 아니라, 진실한 삶, 인간다운 삶의 길을 걸으면서 기다리는 것, 즉 이반 일리치가 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hope)뿐이다. 일찍이 라인홀드 니버 역시 그리스도인의 실존구조로서의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²⁾

실존적 층위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았던 ‘축의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2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는 1976년에 나온 그의 마지막 책 『세계사: 인류와 어머니되는 지구』에서 “아마도 인간은 현재의 목적을 포기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상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는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악마적 물질적 능력과 탐욕의 응보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³⁾ 토인비가 주문했던 마음의 변화, 회심은 주로 종교에 의해 촉발된다. 매우 특이한 이 노역사가는 책 첫머리에서부터 진화 고생물학자이자 가톨릭 신학자였던 테야르 드 샤르댕을 끌어들이면서 모든 물리적 실체가 영성을 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경험의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경향에 대한 책임을 많은 부분 서구 기독교의 유일신론에 돌렸다.⁴⁾ 도덕적, 영적 차원으로부터 분리된 채 아무 제어장치 없이 오로지 자본의 지배를 받는 과학기술문명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에 대한 염려 역시 책 곳곳에서 읽힌다.

물론 오늘 우리 사회의 종교, 특히 주류 개신교 집단의 행태를 보면 토인비가 주문했던 마음의 변화를 종교 집단에게 기대하기란 무망해 보인다. 그러나 본래 종교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2)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63.

3) 아놀드 J. 토인비(1976) 『세계사: 인류와 어머니되는 지구』 강기철(역),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3), 36.

4) 이 점에서 토인비는 1967년 린 화이트가 사이언스지에 기고했던 유명한 논문에서 했던 주장을 계승하고 있다. 인류가 자연의 신들을 경건하게 섬길 때는 자연을 약탈하려는 탐욕스러운 충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유일신앙의 등장은 오랜 세월 계속된 이런 통제를 제거하고, 자연세계를 마음대로 취급하도록 고삐를 풀었으며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을 지배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가진 것 없는 민중이 희망을 만들어간 궤적이고, 자연 세계를 비롯한 삶의 신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범죄와 오류는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헤쳐 나갈 에너지 역시 과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끌어올 수밖에 없다. 종교의 남용을 막을 해독제 역시 오래된 종교 전통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결단을 위해 과거의 종교 전통들을 소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원천들은 본래의 진정한 모습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통들은 원래 끔찍한 폭력 한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이 남겨준 유산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에 이르는, 이른바 축의 시대에 서로 멀리 떨어져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문명권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문화적 변혁에 주목했다.⁵⁾ 그는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시대 국가수립이 시작된 이후 기원전 12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차와 기마집단이 등장하고, 유라시아 지역이 엄청난 폭력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 변화를 지성적이며 영성적으로 돌파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정신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보았다. 즉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폭력적 위기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선구자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답을 제시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모든 존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곧 사랑과 자비였다.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 역시 야스퍼스와 비슷하게 말했다. 그녀는 특히 핵무기의 위협과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축의 시대와 같은 영적, 정신적 혁명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첫 원자폭탄은 현대문화의 찬란한 성취 한복판에서 허무주의적 자기파괴의 현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땅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고 단순히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 재앙의 위협에 처해 있다. 뛰어난 과학기술적 재능에 뒤처지지 않는 어떤 정신적 혁명이 없으면, 이 행성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순전히 합리적이기만 한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⁶⁾ 카렌 암스트롱 역시 동서양의 인류가 고양된 정신적, 종교적 의식에 도달했던 ‘축의 시대’의 공통된 시대적 특징을 끔찍한 폭력의 상황이라고 보았다. 고대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엄청난 폭력에 직면해서 역설적으로 동서양의 전사들은 공감의 감수성을 형성했고, 그것이 축의 시대 영성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사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들의 경험의 핵심은 무엇이였을까? 적군 병사의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보면서, 살아 있는 사람의 육체 깊숙이 칼을 꽂으면서, 고통으로 떨리는 칼끝의 느낌을 손에 느끼면서 어쩌면 역설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도 내 손에 죽어가는 저 병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른다. 나도 그처럼 아파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을 경험하면서, 고통과 죽음을 공통적으로

5) K. 야스퍼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모하메드』 황필호(역). (강남대학교출판부: 2001).

6)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정영목(역), (서울, 교양인: 2010) 머리말 1.

경험하면서 전사들에 의해 공감과 자비의 영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 폭력을 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발전시켰다. 그녀에 따르면 “축의 시대 현자들에게 종교란 정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면, 즉 사랑으로 행동하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카렌 암스트롱은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축의 시대의 통찰, 축의 시대의 영성을 넘어서는 적이 없다고 한다.

야스퍼스와 암스트롱이 축의 시대 종교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했던 것은 전쟁과 폭력이었다. 그들은 축의 시대 종교들의 역사적 맥락을 치밀하게 탐구해 들어가지 못했지만, 종교의 발생과 그 역사적 맥락과의 상관성을 조명했으며, 축의 시대 영성의 인간학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축의 시대 이전 문화들이 신들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 새로운 전통들에서는 모세, 붓다, 공자, 플라톤, 나중에는 예수, 마호메트 같은 인간들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런 특별한 인물들은 새로운 종교문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축의 시대 이전 신화들에서는 초우주적 세계를 배경으로 신들이 주된 역할을 했던 반면, 축의 시대와 이후 종교들에서는 세계와 그 속의 특정 역사적 인물들, 세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⁸⁾

이처럼 축의 시대의 종교들이 초자연적 사건들보다 인간 역사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 발전시켜 올리히 두크로(Ulich Duchrow)와 프란츠 힌켈라메르트(Franz Hinkelammert)는 실제 역사와 축의 시대의 영성적 혁명 사이의 상호적 인과관계에 주목했다.⁹⁾ 이들은 특히 축의 시대 동서양에 걸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본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 그들은 축의 시대 해당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본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시장 자본주의의 지배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화폐경제와 시장경제의 고대적 버전이 이때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변화와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해서 축의 시대의 영성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인류에게도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두크로와 힌켈라메르트는 기원전 6세기에 두드러졌던 ‘군대-동전-노예 복합체’에 대한 그래버의 가설을 끌어들이며 축의 시대 해당 각 지역에서 벌어진 사회경제적 변화의 성격을 기술한다.¹⁰⁾

7) 카렌 암스트롱, 머리말 6.

8) 로이드 기링, 『가이아와 기독교의 녹색화: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다시 가이아로』 박만(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9), 236.

9) 올리히 두크로/프란츠 힌켈라메르트, 『탐욕이나 상생이나』 한성수(역) (생태문명연구소: 2018)

10)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Brooklyn, N.Y.: Melville House Publishing, 2011) Richard Seaford, *Money and the Early Greek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그래버는 축의 시대의 정치 경제 발전을 기술하고 거기에 당시의 철학과 종교가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버는 화폐경제의 새로운 시대, 즉 기원전 600년 경 동전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군사적 폭력의 새로운 수준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그것을 축의 시대를 지배했던 ‘군대-동전-노예 복합체’라고 불렀다. 두크로/힌켈라메르트, 91.

그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사회 속에 화폐, 사유재산, 이자가 도입됨으로써 일어난 일련의 변화라고 규정한다. 기원전 8세기경 초기 제국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급료를 주어야 할 직업군인들이 생겨났으며, 전쟁과 노동의 분업화가 확대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기원전 8세기경 처음에는 군인들이 전리품과 급료로 얻은 작은 귀금속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계산 단위로 화폐를 사용하는 데 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화폐가 많은 교환수단 가운데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재산은 화폐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점점 더 계산적이 되었고, 이 ‘계산하는 인간’은 갈수록 탐욕스러워졌다. 그리고 탐욕은 이자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었고,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는 토지를 잃고 노예로 전락했다.¹¹⁾ 결국 ‘화폐-사유재산-이자 경제’가 시작되면서 노동이 분업화되고 사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돈은 교환의 수단으로 출발했으나 화폐가 도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수단을 넘어 인간 내면에 재산의 무제한적 축적을 위한 탐욕을 부추겼고, 무엇보다도 ‘계산하는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상부상조하는 연대성이 사라지고 탐욕과 자기중심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두크로와 힌켈라메르트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저항이 기원전 8세기에 시작하여 점점 퍼져나갔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처음 관찰된다고 한다. 구약성서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사회상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화폐와 재산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가 축의 시대의 종교적이며 영성적인 혁신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를 가난한 자와 부자로 갈라놓았고, 농부에 대한 왕과 귀족의 전통적이며 직접적인 억압을 넘어 폭력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바꾸어놓았다. 이것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영성적 측면에서도 응답이 필요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이 바로 이스라엘, 인도, 중국, 그리스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축의 시대의 문화적, 종교적 변혁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¹²⁾

이때 발생한 종교와 사상은 하나같이 탐욕을 버리고 연대성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기원전 8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요구했고, 이후 토라는 원래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혁명적 이해에 근거해서 법을 발전시켰다. 훗날 이 전통으로부터 발전한 예수운동과 초대교회 역시 동일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¹³⁾ 붓다는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에 집중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탐(貪), 진(瞋) 치(癡)를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 폭력이 난무했던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한 도교와 유교 역시 마찬가지다. 도덕경은 견고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 남성보다 여성, 죽음보다 생명이 가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경쟁적이며

11) 두크로/힌켈라메르트, 14, 25-56.

12) 두크로/힌켈라메르트, 90-91.

13) 두크로/힌켈라메르트, 87-136.

소유지향적인 경제, 정치와 대결했고, 공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득과 명성을 추구하는 대신 서로 섬길 것을 요구했다.¹⁴⁾ 이들은 모두 새로운 경제로 인해 파괴된 세계에서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실한 답을 제시했고, 그것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탐욕에서 벗어나 타자를 받아들이는 삶,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서로 살림,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두크로와 힌켈라메르트는 축의 시대 종교의 발생에 대한 야스퍼스와 암스트롱의 관념적 접근에 실제 삶과 역사에서 기원한 물질성을 부여했다. 이들의 가설을 통해 축의 시대 종교들은 제국의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쟁의 연기와 계급분화,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피를 지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정작 이 두 학자가 그러한 작업을 통해 기여한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들의 연구 근처에 깔린 관심은 유대-기독교를 비롯한 축의 시대 종교들이 오늘날에도 현실적합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그들은 축의 시대 종교들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현실적합성을 높였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전 지구적 생태위기는 축의 시대에 시작된 화폐의 문화가 그 절정에 도달해서 생겨난 파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지배에서 고대 문명과 근대 문명 사이의 연속성을 보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축의 시대에 등장한 세계 종교들이 오늘날의 죽임의 문명을 극복할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3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역사상 축의 시대에 최초로 나타났던 화폐-사유재산-이자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이 발전한 결과이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그 규모나 질적 성격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강력해져서 이제 지구 행성에서의 삶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근대성이 종국에 도달한 필연적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내면적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근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파국으로 치닫는 생태적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며, 생태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든다. 생태 위기를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중심에 시장 자본주의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태적 회심과 그에 부응하는 실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개인의 의지를 넘어 인간을 더욱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생태 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긴박성을 생각할 때 개인의 변화와 사회정치적 변화는 둘 다 놓칠 수 없다.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는 본질상 금융위기와 기후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결국

14) 두크로/힌켈라메르트, 17.

사회적, 생태적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을 미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본축적과 산업생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이 소비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소비주의로 이어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탐욕스러워졌고, 지구 생태계는 위기에 처했다.¹⁵⁾ 이 체제의 목적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끝없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그 결과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근대 문명의 압도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 중심주의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지, 또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원해야 할지를 규정한다. 시장은 철저하게 인간을 소비자로 규정하며,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시장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과 무관한 시장 참여자로서 개인이며,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한다. 시장참여자로서 개인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다 큰 어떤 것의 일부라고 의식하며, 함께 행동한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인간은 혼자서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자이며,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그러므로 시장적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 가치와 행위를 모두 개인적 선호의 범주 안에 밀어 넣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대안적인 도덕 가치와 공동체적 비전의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시장이 더 강력하게 지배할수록, 우리는 소비자 역할을 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민주주의는 약해진다.¹⁶⁾

또한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연은 사적인 부분들로 구획되고, 상품으로 파편화된다. 자연은 그 자체로 통전적인 생명의 그물망, '대지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유주의 통제를 받고 시장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일 뿐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가치가 없다.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으로 기여할 때뿐이다.¹⁷⁾ 이러한 문화적 경향은 인간 역시 지구 행성의 거대한 생태적 그물망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로막으며, 서슴없이 '대지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게 한다.

에릭 프레이포글(Eric Freyfogle)은 최근 그의 저서 『가장 오래된 과제』에서 '대지의 공동체'를¹⁸⁾ 파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근대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탐구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근대의 미덕이라고 칭송해 마지않는

15) 두크로/힌켈라메르트, 146.

16) 에릭 T. 프레이포글, 『가장 오래된 과제: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다』 박경미(역), (한울 아카데미: 2021), 258.

17) 프레이포글, 172-176.

18) 프레이포글은 미국의 자연보존주의자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가 말한 '대지의 공동체'를 그의 생태윤리의 규범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흙과 바위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전체 생명공동체와 인간까지 포함한다.

것들로부터 어떻게 근대의 독이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밝혔다. 그 역시 오늘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근대적 가치들의 기원을 17,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계몽주의의 문화적 경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부르주아 시민혁명이라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의 지적 선구 격인 17세기 과학혁명은 실은 ‘인간 예외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다양한 생물 중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밝혀주었고, 갈릴레오는 방대한 우주에서 지구가 결코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뉴턴 역시 지구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에서 인간을 비롯한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님을 입증해주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예외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었고, 인간의 이성적, 감각적 지각능력이 지니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유럽의 시민혁명과 맞물리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료주의적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강조는 세계 안에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고, 자연 안의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두드러지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효율성의 지배로 인해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서양에서 기독교가 지탱해주었던 인간관과 세계관이 무너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인간을 자연 안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피조물로 규정했고, 기독교의 구원론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즉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신의 종복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거였고, 또한 인간을 죄의 노예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토대였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을 전통과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확실한 근거였다.

프레이포글은 이러한 기독교적 인식을 계몽주의 철학자들 역시 견지했다고 본다. 존 로크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도덕과 규범적 사고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형이상학과 윤리를 전제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윤리학자였던 아담 스미스 역시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기능을 말하기 전에 인간 행동의 규범적 근거로서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전제했다. 그들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사적 소유를 강조하고, 도덕에서는 기독교적 윤리를 그냥 전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와 경쟁적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존재의 역설적 성격에 대한 기독교적 관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계몽주의 이성의 원리와 기독교 신앙의 동거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오직 한 방향,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밀고나가고, 합리적, 도구적 이성을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원래 과학혁명은 인간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았지만,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 사상은 과학혁명의 이 측면은 제쳐둔 채 인간중심주의와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관철시키고자 했다.

프레이포글이 말하는 근대의 이러한 문화적 경향은 막스 베버가 설명한 근대의 '합리성'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베버는 근대의 구성적 특징을 '합리화', 즉 인간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설명했다.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계를 경이롭고 신비한 장소로 경험하게 했다면, 근대 합리적 세계관은 세계를 측정가능하고 이해가능한 장소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과 상식의 세계를 건설했다. 근대 과학혁명이나 시민혁명은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화 과정의 결과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근대 국가가 형성되었고, 시장경제와 관료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합리화된 세계 안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보려 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고 능률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것을 막스 베버는 '목적 합리성'이라고 했으며, 이때 사용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다. 즉 근대의 합리성은 베버에 의하면 수단-목적 관계의 합리성이다. 근대 세계에 대한 기술로서 이러한 베버의 통찰은 정확하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 세계의 주어진 현실에 대한 기술일 뿐, 근대 세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결여하고 있다. 베버가 말하는 수단-목적 합리성은 행위의 합리성이 행위의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가치론적인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 오히려 베버가 말한 수단-목적 합리성은 가치의 문제를 애초부터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돌리고, 행위의 합리성과 행위자 자신을 분리하며, 가치판단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한다.¹⁹⁾ 베버는 근대 세계에서 목적합리적 행위가 가치합리적 행위를 압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합리성을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으로 돌렸다. 따라서 근대 세계는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마치 개인적 취향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한다.

수단-목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인 반면, 그러한 행위가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적 선호와 취향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적, 과학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수단-목적 합리성은 행위자의 살아 있는 삶으로부터 분리된 합리성이며, 필연적으로 행위자 자신과 그의 주변세계를 파괴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생태 위기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태 위기를 극복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창출해내는 데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두크로의 말대로 오늘날 우리는 근대적 목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경험하고 있으며,²⁰⁾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목적 합리성의 치명적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의미 있으려면, 즉 진정으로 합리적이려면, 행위의 결과가 파괴적이거나 궁극적으로

19) 막스 베버, 『가치 자유와 가치판단』, 김덕영(역), (갈: 2021).

20) 두크로/힌켈라메르트, 249-294.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의 삶은 결코 여타의 목적과 경쟁하는 하나의 목적일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삶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간은 행동의 참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수단-목적 합리성 밖으로 걸어나가서 그것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행동할 때도 인간은 계산하며, 이때 계산은 특정 목적의 성취가 자신의 삶과 미래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한다는 의미에서의 계산이다. 이때 인간은 수단-목적 합리성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현실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 역시 합리적이고 공적인 사실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경험과학에 속한다. 베버는 그것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하여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가치판단을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추방하고 무력화시켰지만, 그것은 생사가 걸린 판단이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²¹⁾

이것은 종교의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마치 개인적 취향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는 세계에서 종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인간 역시 주체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종교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영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왜소해진다. 그리고 왜소해진 종교는 근대 세계가 내장한 본질적 문제와 대면하지도, 시장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런 종교는 근대 세계의 침몰과 함께 그 운명을 다할 것이다.

4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는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인간을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규정하며, 무엇보다도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목적 합리성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실리를 얻는 것, 즉 사적 소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는 국가와 사회를 향해 각자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하며, 그로 인해 정치는 시시각각 요동친다. 지금 우리는 거대하고 동질적인 세계 시장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은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기질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일한 것을 열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역사가이자 과학자, 신학자이며 현대 세계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반 일리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간 내면에 끼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밝혀주었다.²²⁾ 그는 마치 과거로부터 현재를 방문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

21) 두크로/힌켈라메르트, 254-256.

22) 이반 일리치에 대한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줄고, “근대의 공리와 우연의 상실; 이반 일리치의 비(非)근대사상”, 『신학사상』 170호, 41-74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저는 과거에서 나와 현재로 들어올 때 저의 정신공간을 생성하는 논리적 공리의 대부분이 경제학에 몰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²³⁾

일리치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인간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주목했다. 이때 그가 특별히 주목한 역사적 경험은 중세 말 영주에 의해 공유지가 사유화됨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이며, 이 이행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한다. 그에 따르면 공유지 내지는 공유재(Commons)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자급적 삶을 위한 공유재가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희소한 가치’로 탈바꿈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간은 자급적, 자치적 존재가 아니라, 늘 무언가를 욕구하는 존재,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존재로 탈바꿈해갔다. 늘 ‘기본적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되어야 하는 소비자이자 산업노동력,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탄생한 것이다. 중세 말 영주가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 농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농민이 행사하던 초지지배권이 영주에게로 넘어간 이야기는 잘 알려졌다지만, 일리치의 탁월한 점은 공유재의 파괴가 지니는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변화, 즉 공유재의 파괴로 인해 인간이 주변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원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천착해냈다는 데 있다.

일리치가 말하는 공유재(Commons)란 자기 집 대문 밖에, 즉 자기 소유 밖에 위치해 있으나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뜻한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부분이다. 가령 중세 농민들은 공유지에서 열매를 줍기도 하고 장작을 얻기도 하며, 양을 치거나 때로는 축제를 위해 사냥을 하기도 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했다. 말하자면 공유재란 가족과 공동체의 자급적 삶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었다. 또한 공유재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에서 ‘희소한 가치’(scarcity)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가 사유화됨으로써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희소한 가치’로 되었고, 인간은 자립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자원’, 또는 ‘희소한 가치’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 욕구’를 지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된 것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다.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지닌 존재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욕구불만의 상태로 되고, 가족과 이웃을 신뢰하는 경험은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실망과 고립, 소외는 자급적인 지역공동체의 소멸과 병행하며, 결국 인간을 관리받고 싶어 하는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관리자로 나서게 된다. 또한 공유재는 경찰

23)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현대의 상식과 진보에 대한 급진적 도전』, 권루시안(역), (느린걸음: 2013), 27-8.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원은 그렇지 않다. 자원은 경찰, 다시 말해 국가가 지키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물리적 힘은 비대해진다. 이와 함께 자주적 주체자가 시민수혜자로, 국가에 연금된 사람으로 바뀐다.²⁴⁾

‘욕구’에 근거해서 인간의 조건을 정의하는 근대의 공리에 따르면 인간의 평등 역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욕구는 동일하다는 ‘확실성’(certainty)에²⁵⁾ 근거해서 이해된다. 각자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킬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가 결정된다. 일리치에 따르면 평등을 내세우는 대안적인 경제학 역시 인간에 대해 이러한 ‘비참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를 전제하고 있다. 대안 경제학자들 역시 욕구, 가치, 희소성, 자원이라는 근대의 ‘확실성들’(certainties)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대안적 경제학이 민중의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아무리 강력하게 표명해도 인간에게 욕구와 결핍이라는 짐을 지우는 전제 자체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일리치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을 곤궁에 빠진 동물처럼 인식하는 것이고, “문화를 경제학으로, 선을 경제적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자아는 뿌리 뽑히게 된다.²⁶⁾ 이때는 사람을 그가 속한 고유한 맥락 속에서가 아니라 결핍, 내지는 ‘욕구’라는 추상으로 정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주어진 ‘삶의 필연’ 속에서 거기 적응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일리치는 이러한 ‘희소성의 세계’가 전면에 나선 것은 불과 2백여 년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우연과 축복과 은총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한다.²⁷⁾ 가령 이제까지 축복, 또는 부담으로 가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던 할머니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변하고 나면 ‘경제적 노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 할머니는 실질적으로 가정 밖으로 밀려나 한 사람의 늙은 여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수령하게 된다. 설사 할머니가 필요한 돌봄을 받는다 해도 ‘욕구충족’의 권리와 무관하게 그 동안 당연히 받아왔던 대우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할머니가 경험하는 것은 희소성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을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다.²⁸⁾ 왜냐하면 할머니가 박탈당한 것은 경제적 희소성이라는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지에서 더 이상 양을 치거나 부식을 얻을 수 없게 된 농민의 경험, 자동차에 길을 내준 사람들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처럼 잃어버린 영역이야말로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자유와 우연의 영역이다. 우리가 종교와 문화라 일컫는 것,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구 사이의 우정은 이 영역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욕구와 희소성의 세계가 전면에 나서게

24)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190.

25) 일리치는 근대 세계의 인간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만, 오랜 인류의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매우 이질적이고 특이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근대의 ‘확실성’(certainty)이라고 표현했다.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근대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출발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26)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30.

27)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33.

28)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39.

될수록 문화와 은총과 우정의 영역은 경제의 그늘에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일리치는 희소성의 가치 대신 토착가치를 말한다.²⁹⁾ 토착, 즉 vernacular라는 말은 “뿌리를 내린 상태”나 “머물러 살기”라는 뜻을 함축하는 인도 게르만어 어원에서 온 말이다. 그리스로마 고전 시대에 이 말은 “집에서 담근”, “집에서 만든”이라는 뜻을 지녔다. 일리치는 공유재에서 이끌어낸 모든 가치로서 시장에서 사고팔지는 않지만 개인이 자기 것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을 일리치는 상품 및 산업경제에 대비되는 말로 쓰기를 제안했다.³⁰⁾ 일리치는 이러한 토착영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선구자들로 레오폴드 코르(Leopold Kohr)나 프리드리히 슈마허(Friedrich Schumacher)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 이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식안, 각자가 나름으로 경험하는 즐거움, 한 집단에서는 높이 평가받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수 있는 삶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중시했고, 오늘날 도구를 활용하면 옛 시대의 자급에 따른 고단함을 상당히 덜면서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일리치에 의하면 이들이 내세우는 소규모 기술, 상품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방식은 끝없이 새로이 형성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토착 가치 위주로 생활하는 공동체는 매력적인 본보기가 된다는 점 말고는 다른 공동체에 그다지 제공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³¹⁾ 이것은 칼 폴라니의 표현으로 하자면, 경제를 원래 그것이 속했던 자리로, 인간의 삶과 문화에 ‘묻혀 있는(embeded)’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일리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질게 드리운 경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5

자본주의 질서에 근거한 근대 문명은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해서 자신의 욕구와 결핍을 충족시켜야 하는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탄생시켰으며, 각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강과 바다, 흙을 오염시키는 인간을 탄생시켰다. 또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 즉 욕구와 권리를 지닌 자율적 개인이라는 자기의식은 생태계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깊이 규정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도덕적 성찰의 토대가 될 때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이러한 근대인들이 모인 근대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상호 관계하는 인간들의 ‘사회’는 실종되고 고립된 개인들만 부유한다. 그들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라고 정치가를 향해, 시스템을 향해 제각각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충족될 수 없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대와 요구야말로 인간을 더욱 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homo miserabilis)’로 만들며, 생태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삶을 더욱 피폐하게

29) 일리치는 ‘토착 가치’에 대해서 다음의 두 책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Shadow Work*, (London: Marion Books, 1981); *Gender*, (New York: Pantheon, 1982) .

30)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132.

31)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134-5.

만든다.

근대 세계는 사적 소유권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켜세우는 질서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것은 정치보다 시장과 시장의 공정성을 더 믿는 질서이다. 이 질서는 세계를 파편화해서 보며, 협동보다 경쟁을 옹호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문화이다. 자연은 단순히 원자재를 공급하여 시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재료가 떨어지면 다른 대체재를 구하면 된다. 사회적 공동체건, 자연공동체건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의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며, 단기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기꺼이 도박을 걸 용의가 있는 쪽을 선호한다.³²⁾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집단행동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특히 그것은 소비자 역할을 벗고 시민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쟁의 효율성과 경제적 생산성이 공동선의 중심에 있으면, 환경운동가든 누구든 집단을 위해 대안적 도덕 비전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지고, 개인적 선호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집단적 가치와 목표에 대해 말하는 것 역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은 탐욕을 부추겨서 악덕을 미덕으로 바꾸는 요술을 부릴 수 있다고 유혹하며, 이로 인해 인간의 탐욕을 비판해온 오랜 도덕적, 종교적 전통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공적 선이 고도의 경제활동과 동일시된다면,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할수록 존경받는 시장 참여자가 되기 때문이다.³³⁾ 오늘날 이러한 시장적 세계관은 헤게모니적 위치를 점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며 근대를 압도하는 특징이 되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조직화된 시민의 힘 역시 퇴조했다. 자본주의 시장이야말로 근대의 독이 증식하는 온상이다.³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며, 우리가 바꾸어야 할 공적 가치의 틀이고, 개혁을 위한 노력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태위기에 직면해서 개혁을 위해 중요한 첫 단계는 현재 도덕의 지배자 행세를 하는 시장을 강등시켜 건전한 도덕과 생태 질서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자연의 지배자 노릇을 하고 시민의 결정권을 빼앗고 수많은 도덕 가치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버린 시장을 바꾸어야 한다.³⁵⁾ 왜냐하면 근대의 이 모든 시장중심적 특성 위에 자연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운 경제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시장적 세계관에 맞서 자연을 생태적으로 복잡한, 상호 연결된 전체로 보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이며, 그것은 일차적으로 시장적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이다. 주류 종교들 역시 마몬과 즐겨왔던 밀월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거대한 빙산처럼 버티고 있는 생태적 파국을 피할 길이 없다.

32) 에릭 T. 프레이포글, 『가장 오래된 과제: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다』 박경미(역), (한울 아카데미: 2021), 265.

33) 프레이포글, 279.

34) 프레이포글, 241.

35) 프레이포글, 282-283.

자연은 자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자연 안에는 다양한 도덕 가치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에 도덕적 가치의 중심을 둔 급진적 문화변혁이 요구되며, 그러한 문화의 변혁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존재론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한다. 오래 지속되고 변영하는 문명에 어울리는 삶의 형태와 이해방식, 가치판단의 방식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 옛 종교적 지혜가 가르쳤듯이, 우리를 상호의존성의 연결망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이해가 필요하다. 자율적 개인으로서 인간이 지니는 도덕적 중요성 못지않게 상호의존의 연결망과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도덕적 이해 말이다. 그것은 개인을 고향인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존재론이다. 개인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을 구분하는 선들을 좀 더 흐리게 하고 '대지의 공동체', 생명공동체 자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론이다.³⁶⁾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의 궤도를 수정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프레이포글은 이를 위해 오늘날의 시민운동들과는 전혀 다르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³⁷⁾ 즉 개인의 권리 확대에 기반한 운동이 아니라 '대지의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운동을 추구해야 하며, 근대의 객관성 숭배에서 벗어나 덕을 중시하는 규범적 가치를 수립해야 하고, 소비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인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은 새롭지만 오래된 가치, '대지의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땅의 남용을 중단하고 땅 위에서 잘 살 것을 지향하는 문화 운동이자 도덕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축의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 시대의 엄청난 폭력과 도전에 직면해서 인간 정신의 고양을 이루었던 것에 필적할 만한,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모험이 요구되는 경험이다. 우리가 가진 축의 시대의 문화적 자산, 특히 종교 전통은 하나같이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선으로 제시한다. 생명의 길은 오래된 옛 전통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탐욕을 벗어나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악덕과 탐욕을 합리성으로 치장하고 선과 구원을 향한 길로 포장하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길이다. 오늘의 부조리와 악을 직시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길만이 주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이른 것을 죄의 결과로 보든, 탐욕의 결과로 보든, 아니면 어리석음의 결과로 보든, 축의 시대의 인간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요청 앞에 있다. 종교는 본래 잘난 사람, 똑똑이들이 축적한 지식이 아니라, 바보들의 지혜이다. 의지할 데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실하게 살고 믿고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고난의 잔을 받고 순명했듯이 삶의 필연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종교는 오랜 세월 민중이 생명을 선택해온 궤적이자 희망을 일구며

36) 프레이포글, 179.

37) 프레이포글, 272.

살아온 궤적이다. ‘생명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로 큰 존재, ‘그분’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바울이 말했던 ‘그것’, 또는 ‘그분’의 손끝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것이 희망이다.



환경과 교육 문제



최 원 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환경정의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

환경과 교육 문제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에서 출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1. 환경 책이란?

환경은 인간 중심적인 언어고 생태는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큰 범주라고들 정의하곤 하는데 이 글에서는 환경과 생태를 포괄해서 환경 책이라 칭한다. 환경 책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고 독자는 누구인가? 환경부는 격년으로 우수환경도서를 선정, 발표한다. 우수환경도서 선정에 대항하는 환경교육포털 사이트¹⁾에는 환경 책의 주제를 물·공기·토양·생태계·환경보건·지속가능발전·생명윤리·폐기물·에너지·기후변화, 이렇게 열 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분류한 주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곧 환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물, 공기, 토양'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인데 기후 재난 시대에 이 세 영역이 가장 큰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가뭄과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물 부족은 이미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의 갈등으로 첨예화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기후 시스템이 악화일로에 있다. 2021년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13ppm²⁾으로 산업화 이전 이산화탄소 농도(278ppm)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기후 변화로 가뭄이 발생하고 육류를 생산하느라 산림이 파괴되면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된다. 이는 식량 생산에 큰 위협이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 식량은 이제 주권이며 안보다. 환경교육포털사이트 기준 환경 책 대상은 '전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결국 환경 책을 읽는 독자는 전 국민인 셈이다. 이렇듯 환경 책은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루며 전 국민이 독자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 분류만으로 환경을 이야기하기엔 충분치가 않다. 이 분류는 별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만을 환경 책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환경 책을 읽는 목적은 환경 문제를 알리고 해법을 찾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저렴한 자연, 저렴한 에너지, 저렴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무한성장의 신화가 오늘날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의 해법은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될 때 가능하다. 탈성장, 빈곤, 노동,

1) <https://www.keep.go.kr/portal/147?page=5>

2) <https://research.noaa.gov/article/ArtMID/587/ArticleID/2764/Coronavirus-response-barely-slows-rising-carbon-dioxide>

인권, 젠더의 문제까지 전 분야에 걸친 문제가 환경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확대된 범주³⁾까지를 환경 책이라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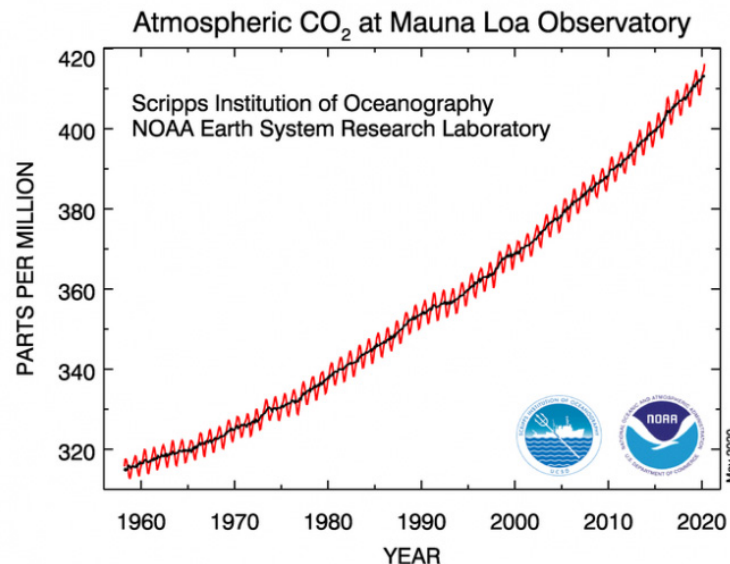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의 추이다. 2021년 5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13ppm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절에 따른 등락을 반복할 뿐 계속해 상승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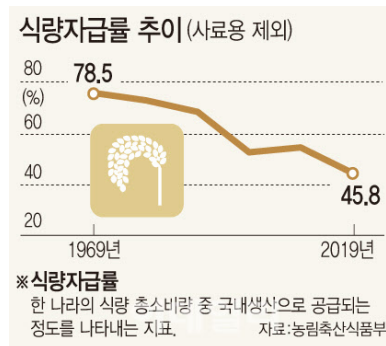
2. 환경 책의 필요성과 역할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환경에 관심을 쏟고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삶을 영위하면서 누리는 의식주가 바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무한성장을 지향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더 정확히는 자본가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각국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의 가장 끝단에 걸쳐있는 개개인의 소비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의식에 전환이 와야 기후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환경 문제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경 책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릴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 다큐멘터리, 유튜브 등 영상 매체나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도 환경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환경 책은 가장 쉽게 언제든 펼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매체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 환경 책은 읽는 독자에 따라 눈높이를 달리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앞의 두 매체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3) 카테고리 분류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를 이어감

그렇다면 환경 책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지난 8월 IPCC⁴⁾ 6차 제1실무그룹(WGI) 보고서(정책결정자용)⁵⁾가 발표되었다. 2013년 발표된 5차 보고서와 달리 이번 6차 보고서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적어도 10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2019년에서 2020년을 넘기며 6개월 이상 지속된 호주 산불 말고도 올해 터키와 그리스, 캐나다 BC주 리턴 지역, 캘리포니아, 시베리아 등에서 숲은 계속 불탔다. 10월 초 브라질의 모래폭풍은 기후가 어떻게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 식량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는 브라질은 최악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냉해로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커피, 옥수수 등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을 나라 가운데 하나로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을 지목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에 머문다.



우리 정부는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꾸려져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농업 관련한 언급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 중이다. 탄중위가 발표한 시나리오에는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탄소배출 저감 계획이 담겨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며 기업들은 발 빠르게 ESG⁶⁾경영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탄중위가 발표한 탄소배출 저감 시나리오로는 2050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탄중위의 해체를 주장한다. 반면, 저기 강원도 삼척 맹방의 아름답던 해안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인정사정없이 침식당하는 중이다. 기후 위기 시대라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모순이지만 삼척 시민 60%가 반대하는데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비단 삼척에만 이런

4)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이다.

5) <http://www.climate.go.kr/home/cooperation/lpcc.php>

6)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고객 및 주주·직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

문제가 있을까? 핵발전소 인근에 살면서 방사능으로 하루 24시간 삼중수소로 피폭당하는 경주 월성 나아리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만 7년이 넘도록⁷⁾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인 한수원은 귀를 닫고 있는지 요지부동 달라진 게 없다. 밀양송전탑 갈등 역시 765kv 고압 송전탑이 꽃피면서 지역주민들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일까? 이 나라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모두의 문제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

환경 문제는 일시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받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환경 이슈는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어렵기 짝이 없고 한없이 낮설다. 사전 배경지식 없이 정확한 이해는 누구도 쉽지 않다. 게다가 시시각각 이슈가 변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바꾸어 내야 하지만 결국 내 삶이 변해야 하는데 이미 풍족하고 편해진 일상을 적게 소비하며 더 많이 나누는 삶으로 이행해야 한다니 ‘번거롭고 불편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반발심마저 일게 만든다. 그러니 이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투성이를 누가 들여다보고 싶을까? 환경 문제는 ‘증상의 위기’가 아닌 ‘원인의 위기’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만 한다. 해서 당위를 향한 호소가 절실한 내용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제된 언어로, 필요할 경우 스토리텔링으로 정성을 쏟아 알려줄 환경 책이 필요하다. 갯벌을 매립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어디에 신도시를 짓는 결정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그 나라에 사는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결정짓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작금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환경 책의 역할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

환경 책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환경 이슈로 관심을 유도하고 배경지식과 맥락 이해를 돕는 ‘교육’이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그 문제가 곧 내 문제라는 인식, 내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인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일, 다시 말해 ‘교육’이 환경 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역할은 책을 통해 인식에 전환이 생긴 ‘시민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깨어난 시민들만이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바꾸려는 변화의 물결이 일 때 정책을 바꾸고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할 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는다고 당장 탄소배출이 줄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태도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고 태도의 변화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바꾸려는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그 힘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역할은 대안 제시다. 자원은 무한한 탐욕을 채우려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텅 빈 자아는 소비의 갈때기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결과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는 게 환경 책의 역할이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7) 2014년 8월 25일 이주대책 농성 시작

새로운 실험을 하는 생태교통의 도시 꾸리찌바, 도시 전체의 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기존의 주차장 50%를 걷어버린 파리시, 사람보다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리 문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사례다. 남미의 부엔 비비르나, 수막 카우사이 같은 좋은 삶은 오래된 지혜다. 다른 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냐며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는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 극한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런 대안적인 삶이 아닐까? 궁극의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이 환경 책의 역할이다.

3. 교육 현장에서 출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환경 교육

최근 ‘생태전환교육’, ‘탄소중립중점학교’와 같은 ‘기후 위기’ 시대의 교육정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2021년 4월에 체결한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었다. 전국 50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환경 교육은 ‘환경교육 → 녹색성장교육 → 지속가능 발전교육 → 생태전환교육 → 탄소중립교육’의 순서로 이름만 바꿀 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걸맞게 소프트웨어를 진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환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환경 교사가 필요한데 전국에 환경 교사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34명이다. 환경 교과는 여전히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그동안 서울출판사와 천재교육 두 출판사에서 환경 교과서를 발간했는데 2022년 개정에 서울출판사는 환경 교과서 출판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중점학교와 시범학교에서는 당장 환경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환경 전문교사든 아니든, 턱없이 부족한 환경 교사를 대신해 모든 교과에서 환경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와 환경의 접점을 찾아낸 환경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교과에 환경이 녹아든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책 출판이 절실하다. 사실 환경 문제란 모든 문제의 총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과와 연결된 책은 환경교사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필요하다.

8)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5335&topic=>

교과서의 느린 속도 보완

교과서는 적어도 5~6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환경 사안을 교과서에 담기에 물리적인 시간 한계가 있다. 환경 책이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 그렇지만 책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환경 이슈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기존에 나온 책은 개정 / 증보 등을 통해 업데이트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QR코드가 삽입된 책이 출간되는 추세다. 음악 분야의 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며 동시에 음악을 듣는 입체적인 방식을 QR코드가 도와주고 있다. 환경 책 역시 필요한 동영상은 QR코드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는 사라진 지역의 문제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쓰레기 매립지 등 기피 시설이 있는 지역명은 그 지역주민들이 받을 차별 등을 우려해서 교과서에는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 특정 지명이 수록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슈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맥락과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으로 전체에 대한 통찰을 도와야 한다.

균형 있는 비판력 함양

교과서에 치우치지 않는 관점을 서술하려다 보니 어떤 환경 사안을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 밝힌다고는 하지만 결국 보수적인 관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자칫 논란에 휘말릴 소지를 다 제거한 채 실리기 때문이다. 대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 차별적인 부정의로 발생한다. 전기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생산 전력의 1/3을 사용하면서 발전소는 서해안부터 남해를 걸쳐 동해에 이르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그로 인해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느라 송전탑을 전국에 걸쳐 꽂았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매립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 매립한다. 세련되고 좋은 것은 도시에, 혐오시설은 지역으로 보내는 부의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 산업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탄소중립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정부가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해온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ESG로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그린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시민들은 무엇이 진정한 기후 위기의 대안이고 무엇이 '그린 워싱'인지 알아야 한다. 그린 워싱의 시작부터 그린 워싱 구분법까지. 기후 위기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기업 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그린 워싱을 심층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나 방송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경력이 오랜 한 환경 교사는 ‘환경 책 읽기 → 환경 영화 보기 → 감상문 쓰기 → 교과서 수업하기(영상, 뉴스 병행) → 활동 계획하기 → 활동 결과물 만들기(가정으로 홍보 확인)’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과서 활용에 앞서 환경 책 읽기와 환경 영화를 보며 환경 입문을 한다. 교과서 속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을 친근하고 정서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환경 사안만 서술한 교과서에 앞서 맥락을 따라가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일은 무척 유의미하다. 내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깊숙이 연결된 문제로 환경 문제를 보는 관점이 생긴다. 환경 사안을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인식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갯벌 매립으로 절멸의 길을 걷는 넓적부리도요를 다큐멘터리로 만나는 일과 뉴스에 보도되는 자극적인 일회성 장면으로 지나치듯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딱딱한 환경 이슈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며 환경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도록 돕는 역할을 환경 책이 하면 좋겠다.

연결된 세상을 구체화하는 책

세상은 상품 사슬로 얽혀있고 나의 소비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의 열대우림을 불 지르고 얻은 팜유와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브라질의 모래폭풍이 나의 육식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전 지구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물건의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에 위치하며 그로 인해 자기 목소리와 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들의 고통에 공명해야 한다. 환경 책은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4. 환경 책의 현주소

종수가 턱 없이 부족

환경 책은 특수한 목적이 없는 한 선뜻 손이 가는 책이 아닌 건 사실이다. 판매율이 저조하니 환경 책 출판시장이 좁을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선정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격년으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도서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권수가 너무 적어서 격년으로 선정한다고 말한다. 1993년 5권이 선정되었고 1998년에 51권이 선정되면서 두 자리 수가 되었다. 이후로 꾸준히 숫자가 늘다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선정 권수가 다시 줄었다. 이때가 4대강 사업 기간과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 도서 선정과정에서 국내외 도서에 특별히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권수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선정 작업을 할 때마다 출판사에 참여 독려 공문을 보내면 ‘선정되면 얼마나 팔아 주냐’는 문의가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더러 온다고 한다. 세종 도서의 경우 선정 도서 권당 1천만 원의 도서 구입비가 주어지다 보니 비교가 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최근 기후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 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 넷제로 등으로 정책이 재편되면서 지자체에서 환경 도서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환경 책 목록은 환경부와 환경정의 두 곳에서 발간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인 환경부에서 선정한 도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 환경부 우수도서목록이 구매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 환경부는 선정 마크와 선정 도서 홍보, 우수 독후감 공모전 등으로 간접적인 홍보를 한다. 출판사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의식을 강화시킬 질 높은 환경 책 출판에 적극적이면 좋겠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오래 쓰는 이야기니까.

실제 사례가 궁금

환경은 우리 삶 전반을 가로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마을-지역이 연계된 환경 교육 사례, 현장에서 시도해보고 있는 리빙 랩의 사례들을 발굴이 절실하다. 해외 사례는 제법 소개되는 편인데 국내 사례에 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례를 모아놓은 책도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까를 넘어서 어떻게 가르칠까로 넘어가야 할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환경 생태 카테고리는 어디에?

책 제목을 모른 채 환경 책을 찾으려는 독자는 인터넷 서점에서 헤매기 쉽다. 큰 분류에 환경 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정치’ 카테고리 하위에 ‘생태/환경’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 정치 카테고리에만 환경 책이 있는 건 아니다. 자연과학에도, 역사에도 있다. 물론 책 분류라는 것이 똑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대분류에 환경 책이 오르지 못한 건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종수가 적기 때문 아닐까? 아니 환경 책의 범위를 너무 한정시켰기에 종수가 적은 걸 수도 있다. 다양한 책들에 ‘생태/환경’ 태그를 달아서 밖으로 꺼낼 필요가 있다. 환경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환경 책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환경 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도서관 사정도 비슷하다. 십진분류에 환경은 당연히 없다. 십진분류는 펄빌 듀이가 1876년에 고안한 분류 체계로 2011년에 제23판이 나왔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몇 권의 책을 검색해봤다. <착한 소비는 없다>는 500번대 기술과학 하위 분류인 539.98로 ‘위생, 도시, 환경공학’에 속한다. 이 책은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내용으로 오히려 사회과학 분야가 더 맞는 책인데도 분류는 이렇다. <빨간 하늘 파란 지구>는 400번대 자연과학의 하위 분류인 453.9 ‘기상학, 기후학’에 들어가 있다. 적절한 분류다. 반면 <환경과 생태 쫓아 10대>는 400번대 자연과학의 하위 분류인 472.19로 ‘생물학’에 들어있다. 이 책은 생물학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니라 제목 그대로 환경과 생태에 관한 책인데도 그렇다. <탈성장>은 300번대 사회과학 하위 분류로 321.93 ‘경제학론’에 포함된다. 제목을 알고 검색을 할 경우는 문제 될 게 없지만 막연히 환경 책을

찾는 일이란 미로를 헤매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십진분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환경이라는 말조차 없었을 테지만 세월이 흘러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의 흐름이 현장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례로 중국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2010년에 개정된 중국도서관분류법(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이하 CLC라 약칭함) 제5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알파벳 대문자 중에서 L, M, W, Y를 제외한 22개로 구성된 주류(基本大類)와 주류의 알파벳 대문자와 추가 대문자 1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1자내지 2자로 구성된 간략표(簡表) 그리고 상세표(詳表)로 구성되어 있다. CLC 5판의 주류순서는 “A 馬克思主義, 列寧主義, 毛澤東思想, 鄧小平理論, B 哲學, 宗教, C 社會科學總論, D 政治, 法律, E 軍事, F 經濟, G 文化, 科學, 教育, 體育, H 語言, 文字, I 文學, J 藝術, K 曆史, 地理, N 自然科學總論, O 數理科學和化學, P 天文學, 地球科學, Q 生物科學, R 醫藥, 衛生, S 農業科學, T 工業技術, U 交通運輸, V 航空, 航天, X 環境科學, 安全科學, Z 綜合性圖書”순으로 되어 있다.⁹⁾ 십진분류의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의 내용이 무려 10개로 분화된 걸 알 수 있다. 특히 교통 운수와, 환경과학, 안전과학 등 기후 위기시대에 필요한 내용 들이 대분류로 드러난 것이 눈에 띈다.

세상이 점점 분화되어갈수록 문화 인프라도 그 변화에 발맞추려면 어디서 노력을 해야 할까?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그 책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보내기 전에 아예 분류를 제대로 하는 건 어떨까? 분류가 여러 개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책과 관련한 여러 단위에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 책은 안 팔린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출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 독자의 눈에 잘 띌 방법에 대해 출판계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내 저자 발굴은 어느 정도?

국내 환경 책 저자 풀이 너무 빈약하다. 저자가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출판사가 발굴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분명히 채워져야 할 것 같다. 좋은 번역서도 좋지만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돌아보고 발굴하고 알리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저자가 절실하다.

전문 편집자는 얼마나 될까?

기획력 있고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편집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 환경 이슈는 대부분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한 소재다. 이 재료로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핵심을 빠뜨리지 않는 책을 요리해내려면 전문성을 가진 편집자가 필요하다. 탄탄한 기획력은 무엇보다 그 분야를 잘 아는 게 기본이다. 특히나 환경은 정말 다양하게 얹혀있는 문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20년 환경부 우수도서 목록을 보면 10개 분류 가운데 토양에 관한 책이 0권이다.

9)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214652519414.pdf>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목록

주제	개수
물	3
공기	3
토양	0
생태계	104
환경보전	3
지속가능발전	38
생명윤리	8
폐기물	16
에너지	3
기후변화	11

토양 침식은 기후 위기가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무척 심각하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식량자급률이 50%가 채 안 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일본과 한국이다. 식량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든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95%는 흙에서 생산된다. 1년 동안 1만 m^2 당 1톤의 표토가 만들어지는데 비해 13.5톤의 흙이 바람과 물 등으로 침식당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침식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토양 침식 문제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책이 없다는 사실 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판매만을 고려하다 뒷전으로 밀린 이런 책들을 이 땅의 독자들은 만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기후 문제에 정말 심각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출판계가 기후 위기를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성을 갖춘 편집자의 안목이 절실하다.

쏟림 현상

2019년 환경 분야 최고의 셀럽은 단연 그레타 툰베리였다. 툰베리에 관한 책이 꽤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관련 책이 ‘당연히’ 그리고 ‘많이’ 쏟아져 나왔다. 예스24 코로나 관련 검색 결과 3,003건이 검색되었다.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미세먼지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스24 미세먼지 검색 결과 192건이 검색되었다. 트렌드도 출판계에는 중요한 기회다. 그런데 정말 탄탄한 기획 아래 만들어진 책인지 트렌드에 편승한 출판인지 좀 더 진중해져야 하지 않을까? 엇비슷한 내용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쏟아림 현상은 별로다. 책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의 환경 상황이 궁금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201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 회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리간지에(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비롯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환경 이슈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가령 ‘2018년 10월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샤오캉(小康)사회, 생태문명, 아름다운(美麗)사회로 요약하고 중국이 세계의 난제를 푸는 데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은 세계 제1의 태양광에너지 설비 생산자가 되어 있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인식 수준은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들로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¹⁰⁾ 중국의 정책이 긍정적인 점만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렇게 주변 국가의 환경 정책에 관한 정보는 분명 필요하다. 환경은 국경으로 가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후 문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미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은 실행에 들어갔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시야도 확장될 수 있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곳에서 고민이 터져나와야 할 때이고 출판계 역시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주체가 아닐까 싶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직접 그 변화가 되라’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절실하게 와 닿는다.

*그 밖에 한 마디 더!

돈이 되면 함량 미달의 책을 그것도 시대의 화두인 기후와 핵(방사능) 문제를 부정하는 책을 출판해도 되나? 세일 포인트가 높은 모 출판사의 책은 그야말로 체리피킹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 세대들이 내 미래를 훔쳐 가지 말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변하는데, 10년이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30년도 훌쩍 지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조차 수습을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더 이상 핵은 안 된다는 여러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을 종말론적 환경주의로 몰아붙이며 곡해하는 이런 책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10) 녹색평론 통권 158호

세션2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재난 - 사례 발표



01. 위기의 해양동물(이영란)
02.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 한국의 경우(유영초)
03. 역사의 규모(吉見俊哉 요시미 순야)
04. 우리의 섬-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柯金源 거진위안)
05.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홍콩 출판 사례(李偉才 리웨이차이)



위기의 해양동물



이 영 란

WWF(한국세계자연기금) 팀장

위기의 해양동물

1. 서론

나는 수의사다. 졸업 후 개, 고양이를 주로 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해양생물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커리어를 바꿨다. 당시 국내 유일하게 고래류를 연구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들어갔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너른 바다에서 힘차게 물살 가르며 고래를 만날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한반도 주변 바다에 고래류가 그렇게 많은지 알게 되어서 좋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죽는 줄도 처음 알았다. 1년에 최소 서너 번은 배를 타고 1주일 이상 바다로 나가 현장 조사를 하는데,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까치돌고래, 부리고래, 남방큰돌고래까지, 이렇게 나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줄도 몰랐던 고래들을 만났다. 특히 배가 만드는 물살을 타며 유명하느 참돌고래 떼를 만나면 숨이 가빠질 만큼 흥분하곤 했다. 연구소가 위치했던 울산 장생포는 예전에 집채만 한 고래들 잡는 포경으로 부유했던 마을이었다는데, 정작 바다에 나갔을 때는 사진과 책에서 보던 그 큰 고래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전 세계에서 포경이 활발할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바다에서도 포경기지를 만들어 러시아와 일본이 마구 잡아버렸다. 브라이드고래, 참고래, 흑등고래, 귀신고래 같은 15미터가 훌쩍 넘는 대형고래들은 이제 우리바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특히 ‘한국계’라는 공식명칭이 붙었던 귀신고래는 1977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목격된 적이 없다. 현재는 약 200마리 정도의 개체군을 유지하는데¹⁾ 우리나라를 지나던 회유길을 바꾸었거나, 혹은 다니고 있지만 발견이 안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짐작하고 있다. 고래뿐 아니라 물개와 물범도 많이 만났다.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모습이 꼭 닮은 독도 강치는 일제 강점기 시절 멸종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곁에 기각류²⁾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 바다거북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껏 발견된 바다거북은 총 5종인데 그 중 푸른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은 조사 중에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었다.

야생에 나아가 고래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 외에도 죽은 해양포유류와 바다거북 등을 부검하여 죽은 원인을 추정하고 해양환경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일도 했다. 간척으로 땅을 넓히려 바닷물을 담수화했다가 겨울에 얼어버리는 바람에 폐죽음을 당한 상괭이도 부검하고, 기생충 주머니 여러 개에 농과 함께 기생충이 꽂 차 죽은 고래도 봤다. 위장 안에 큰 비닐이 소화기를 막아 죽은 고래도

1) 자료찾기

2) pinnipeds, 다리가 지느러미로 된 개과의 해양포유류

보았고 낚시바늘이나 쓰레기에 걸린 동물은 수없이 보았다. 죽은 원인을 분석하는 일 외에도 죽은 고래들로 기초 생물학적 연구도 했는데, 이를테면 돌고래가 몇 살쯤 번식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크는지, 뭘 먹는지 알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2010년 무렵에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거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다친 고래류를 구조치료시설로 옮겨 치료하고 연구하는 일이었다. 몸길이가 2미터가 안 되는 상괭이라는 소형고래였는데 먹이 찾아 정치망 같은 그물 안에 들어왔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탈수가 오거나 상처를 입은 개체들이었다. 워낙 수줍음이 많고 등지느러미도 없는 외형 탓에 야생에서 모습을 뚜렷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신이 났었다. 이 상괭이는 우리나라 고래들 중 그물에 걸려 죽는 수가 가장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래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부터 사육시설에서 키우는 돌고래를 돌보는 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국내 대형수족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해 전 세계 유명한 포인트들을 찾아다니던 나는 산호부터 고래까지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매일 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었다. 야생의 환경과 사육 환경에서의 해양생물들의 다른 삶을 보고 사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보전 활동, 예를 들면 구조치료나 증보존, 질병 연구 같은 일이 내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내실을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해양포유류센터(The Marine Mammal Center, TMMC)³⁾에 외국인 수의사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했다. 그 전까지는 아픈 동물을 데려다 치료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일하며 시야가 넓어졌다. 왜 구조치료센터가 아니고 해양포유류 센터인지 알게 되었다. 한 마리 개체를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은 먹이사슬 단계, 최상위 포식자인 해양포유류들이 직면한 위기는 바다의 건강성을 알게 해주고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림을 봐야했다. 바다의 보초병이라 불리는 이유다. 센터에서는 구조치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이 주된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원인분석과 해양건강진단, 대책마련과 정책 제언, 대중인식증진, 교육까지 해양생태계 전반을 보전하는 활동이 함께 병행되었다.

3) <https://www.marinemammalcenter.org/visit/getting-here>



Figure 1. 미국 해양포유류센터 에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조팀이 바다사자를 구조하는 모습

한국에 돌아온 나는 WWF 세계자연기금에 입사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보전활동을 맘껏 하기 시작했다. 죽은 동물을 부검하고 그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약에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 바다가 망가져가고 있는 진정한 이유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인간활동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해양쓰레기, 오염, 난개발 등으로 훼손된 바다는 온실가스를 흡수하지 못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변한 기후는 바다를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해양포유류의 위기를 통해, 기후위기와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려고 한다.

2. 위기의 바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사는 별 지구는 바다가 70%를 차지한다. 바다는 생명이 사는 데 필수적인 산소의 절반을 공급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1/4 이상을 흡수한다. 이뿐만 아니라 물 순환과 기후 시스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에게만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어주는 항로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유례없는 해양환경 파괴가 진행 중인데,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육상 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 해운 항만, 과도한 연안개발, 그리고 심해 채광 등 인간 활동이 주원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더해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1)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 혼획⁴⁾

고래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바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수의학 학사만 가지고 있던 때라 해양생물학을 전공과목으로 정하고 소형 토종돌고래 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⁵⁾의 성장과 성(性) 성숙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상괭이는 한국, 중국, 일본에만 살고 있는 소형 돌고래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의 멸종위기등급(Endangered)에 올라있다. 논문을 위한 실험에는 백 마리 이상의 상괭이로부터 기초정보, 이빨, 생식소 등의 샘플이 필요했는데, 약 120여 마리의 샘플이 아주 빠른 시간에 구해졌다. 알고 보니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안강망이라는 어구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혼획되어 죽고 있었다. 안강망은 마치 잠자리채처럼 생겼다. 수면부터 해저까지 이르는 넓은 입구를 거센 조류를 마주보며 설치하는데 그물 안으로 백 미터가 넘게 이어지고 들어갈수록 좁아진다. 작은 새우부터 상괭이까지 조류에 밀려오는 모든 생물이 그물로 빨려 들어가고 인간처럼 수면 위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상괭이는 얼마 못 가 죽고 만다.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잡히는 상괭이의 혼획 통계는 약 천 마리 정도지만 누구도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2016년, 가파른 개체수 감소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기 오르기 전까지는 혼획된 상괭이 사체를 신고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다. 당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죽은 고래류의 최초 발견자가 주인이 되어 의도적인 포획 여부에 대해 해양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경우 시장에 팔고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후 더 이상 시장에 팔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어민들이 조업 중 발견된 죽은 상괭이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물으로 가져오면 귀찮은 조사만 받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상괭이를 혼획하거나 사체를 바다에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의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제도 아래에는 포획, 채취, 훼손, 이식, 가공, 유통, 보관 등을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상괭이의 위협요인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획으로 폐사하는 개체수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어업활동은 조업 중 혼획이 발생한다.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바닷새가 수산물을 잡기 위한 그물에 걸려 의미없이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혼획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수산물을 잡는 남획과 더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1950년 이후 인도양에서는 참치잡이 어업으로 인해 돌고래의 80%가 사라졌다. 멕시코에서는 바다의 판다라 불리는 바키타(*Vaquita porpoise*) 돌고래가 토토아바라는 물고기 조업 중 발생하는 혼획으로 현재 10마리 이하만 남아 사실상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90종의 고래류 중 30%가 멸종위기 단계에 있으며, 심지어 58%의 소형

4) 어업을 위한 그물에 목표한 어패류 외에 해양생물이 포획되는 것

5) 한국, 중국, 일본 주변에 사는 상괭이(영명 :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는 대만해협 아래부터 서남아시아까지 서식하는 남방상괭이(영명 : Indo-pacific finless porpoise)와 등유기 등 외형의 차이가 있고 종수준에서 다르다.



Figure 2. 야생 상괭이 모습. KBS 환경스페셜 웃어라 상괭이 中

고래류는 정보부족으로 멸종위기 판단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1마리가 전 생애 연간 33톤의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히 고래의 배설물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생산력을 증대시켜 연간 3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탄소 흡수 역할 외 이들이 생태계 단위에서 줄어들 경우 깨지는 균형에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상괭이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 공중파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나와 우리 팀은 방송을 만든 감독님(미디어물 이정준 감독)과 함께 방송 내용을 7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고래 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외에도 전세계 수많은 전문가들과 NGO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2019년 6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해양포유류 학회에 참석해 영상을 상영하고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

6)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9/12/natures-solution-to-climate-change-chami.htm>

이미 소형고래류의 혼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큰 공감대 있었었는데 특히 대만에서는 영상을 대만 정부에 보내 함께 민관협력 대책을 고민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해양포유류 컨퍼런스(World Marine Mammal Conference, WMMC)에서는 상괭이종 보전에 관한 사이드 워크숍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의 상괭이 실태를 전 세계에 알렸다. 2020년은 원래 IUCN에서 4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가 열리는 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2021년 9월로 미뤄졌다. 여기서는 전 세계 모든 보전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는데 우리 팀은 상괭이 보전안건을 올렸고, 회원들의 적극적지지 속에 통과되었다. 앞으로 IUCN은 결의안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20년 11월에는 우리 팀은 IUCN 안건을 기반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비록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IWC, IUCN뿐 아니라 미국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도 참석했다. 또한 국제 NGO, 중국, 고래류 음향조사장비 회사 대표도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어업정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래연구센터와 함께 NGO도 참여해 전 세계 소형고래류 혼획실태와 저감방법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생방송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조회수가 2천 건을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IUCN 결의된 안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우리 팀은 기초생태 정보, 혼획 실태와 저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정리하여 올해 초 보고서를 발간했다⁷⁾. 이렇게 혼획을 저감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때문이다. 미국 NOAA Fisheries는 2016년 8월 수산물 수입에 관한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 혼획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규정인데, 5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금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현재 혼획 상황과 저감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평가에 미흡할 경우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자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단위로 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침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 해양수산부에서는 안강망에 설치하여 상괭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탈출유도망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다.

2) 귀신고래 이상폐사현상 (Unusual Mortality Events, UME)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고래 중 하나가 귀신고래이다.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들어는 본 사람은 많다. ‘한국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쓰였지만 한국 바다에 안보인 지 한참 되었기 때문이다. 1912년 미국인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류스가 학계에 한국계 귀신고래 ‘Korean

7) https://wwwfkr.awsassets.panda.org/downloads/yellow_sea_nrfp_report_final_040921_1.pdf

stock of gray whales'라고 보고하며 유일하게 한국이 고래이름에 들어가 지금까지 유명하다. 귀신처럼 신출귀몰한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는 설도 있다. 대서양에도 개체군이 있었지만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지구상에 두개의 계군이 남았다. 하나는 오호츠크해에서 여름 동안 먹이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동중국해에서 번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부계군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 반대편 아메리카 대륙을 따라 회유하는 북동태평양 계군이다. 동부계군은 여름 먹이활동을 알래스카에서, 겨울 번식활동은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에서 하는데 현재 이 두 계군의 보전 상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동태평양 계군은 포경이 줄고 번식기에 멕시코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어업을 중지하는 등 보전 활동이 이어져 현재 약 20,000마리 이상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IUCN 적색목록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낮은 Least concern 에 올라있다. 반면 한반도 인근을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부계군은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진 심각한 포경으로 현재 약 200마리 정도가 남아 IUCN 적색목록에 endangered 즉, 멸종위험 등급에 올라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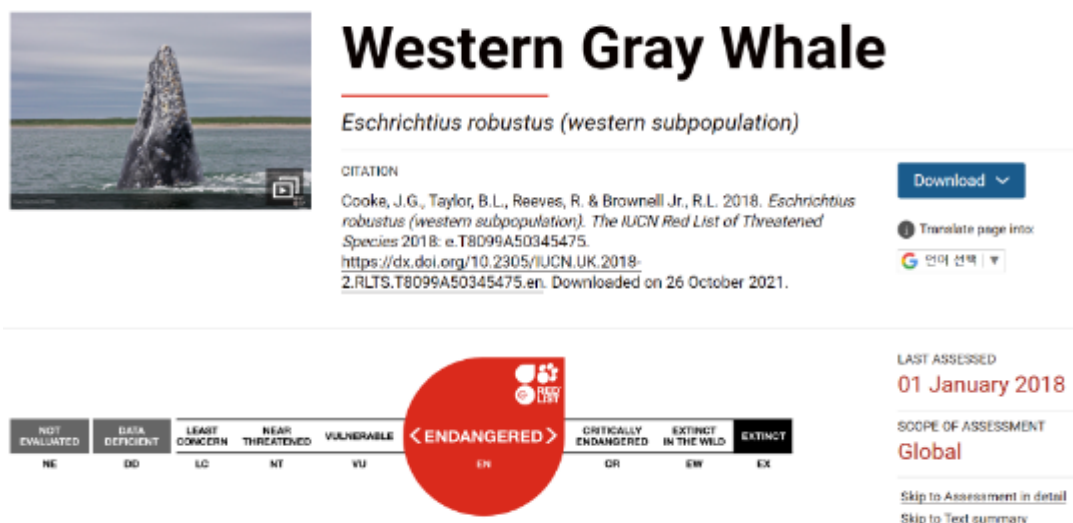


Figure 3 <https://www.iucnredlist.org/species/8099/50345475>

안정적으로 개체군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 같았던 북동부 계군이 2019년 1월 이후 북미 서부해안을 따라 좌초⁹⁾되기 시작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서부해안을 따라 좌초한 개체수만 2019년 216마리, 2020년 172마리,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현재 109마리이다. 미국 해양포유류센터의 수의병리학자 Padraig Duignan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된 부검결과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그물 엉킴이나 선박 충돌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귀신고래의 먹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¹⁰⁾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과 항만 등 인간활동과 기후변화가 대규모

8) <https://www.fisheries.noaa.gov/species/gray-whale>

9) 죽거나 살아서 해변에 떠밀려 오는 것

폐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해양대기청 수산국(NOAA Fisheries) 는 이를 이상폐사현상(Unusual Mortality Event, UME) 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섰다¹¹⁾. 현재 이 개체군의 개체수는 약 20,580마리로 추정된다.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과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이상폐사현상은 1995부터 1998년까지 41마리, 1999년도 283마리, 2000년 368마리 폐사가 있었던 때였다. 이때 부검이 실시된 개체에서 심각한 영양부족이 확인되었다. 고래류는 피부층 바로 아래 지방이 축적되어 영양분을 저장하는데 이 지방층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멕시코와 알래스카를 오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폐사는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에 2차 UME가 발생하였다. 이 무렵 멕시코에서 관찰된 귀신고래의 50-55%가 몸이 마른 영양부족 상태로 판단되었는데 이전 년도의 10-1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양상태를 마른 순서대로 1부터 4까지 구분하였는데 총 89마리 중 29마리가 1(아주 마름), 38마리는 2(마름), 그리고 오직 22마리만이 3-4 (정상 이상) 상태를 보였다.¹²⁾

3) 유해조류 대번성(Harmful Algal Blooms, HAB)

2017년 6월부터 3개월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살리토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포유류 센터에서 외국인 수의사 레지던스로 근무할 때 했던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해양동물을 구조 치료하여 다시 새 삶을 찾아주는 일, 그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일.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군이 없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구조치료를 필요로 하는 해양포유류 수가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보살피고 연구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도 모자란 데다, 현재 지정된 기관들은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로 구조치료에 드는 실비만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영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자원 투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NOAA 수산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근거하여 좌초 및 그물영킴 네트워크(Stranding and entanglement network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전역을 크게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내가 갔던 기관은 West Coast 구역에 속한 The Marine Mammal Center(TMMC)이다. 네트워크에 속한 대부분의 기관들처럼 스스로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개인 또는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 서부해안을 다시 세분화하여, 여러 기관에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좌초나 영킴 사건에 대응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핫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대부분 충분히 교육된 자원봉사자들이다. 동물을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지 혹은 안락사를 시키는 게 오히려 돕는

10) <https://www.washingtonpost.com/science/2021/04/11/whales-sf-bay-beaches/>

11) <https://www.fisheries.noaa.gov/national/marine-life-distress/2019-2021-gray-whale-unusual-mortality-event-along-west-coast-and>

12) S. Raverty et al., 2020. Post mortem findings of a 2019 gray whale Unusual Mortality Event in the Eastern North Pacific. <https://archive.iwc.int/pages/view.php?ref=17313&k=7265a465f7>

길인지 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닌 경우인지를 판단한다. 물범 같은 경우, 먹이를 찾으러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가 버려졌다면 병원으로 데려오거나 신고하는 일이 잦은데 이는 거의 유괴에 가까운 일이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최첨단 의료장비를 동원해 의료진이 진료한다. 상주하는 수의사와 테크니션 외에도 인턴, 엑스텐, 또는 다른 기관에서 온 의료진에 나처럼 해외에서 온 수의사까지 포함하면 10명이 훨씬 넘는 의료진이 매일 진료를 한다. 대부분 바다사자나 물범 등 기각류¹³⁾이고 체중이 100키로 이상 되는 개체도 많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을 요하는 일도 많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면 바다로 돌려보내는 기쁜 행사도 한다. 반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죽기도 하고 혹은 다행히 낫는다고 해도 스스로 사냥능력이 없어 야생에서 생활이 어렵다면 안락사를 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와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록한다. 만약 문제가 종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해양환경의 문제라면 NOAA에 알리고 다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대응한다.



Figure 4. 미서부해안의 좌초및영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들이 구역을 나누어 담당한다. 보라색이 내가 근무한 TMMCO이다.

13) 다리가 지느러미로 되어있는 해양포유류

내가 근무했던 3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적어보려고 한다. 무려 200마리 이상의 바다사자가 이상행동을 하며 구조되어 온 것인데, 뇌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 범인은 바로 적조. 적조는 특정 조류(식물성 플랑크톤)의 폭발적 증식으로 바다물 색깔이 황갈색 또는 붉은 계통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수온상승, 각종 오염된 물 즉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된 영양염류가 증가하거나, 바다물이 잘 섞이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용존산소량이 적어지고 어패류가 폐사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150여 종의 조류가 적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70여 종 존재하며 이 중 일부가 유해한 종이다. 한국에서는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종이 여름에 남해안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패류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섭취한 사람에 식중독을 유발한다. 패류 외에도 어류의 집단 폐사도 자주 일으킨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유해조류에 의한 독성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내가 있을 당시 수백 마리의 바다사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범인은 바로 ‘Domoic Acid’ 였다. Domoic acid는 유해조류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곳에 창궐하고 자주 또 넓게 피해를 준다. Pseudo-nitzschia 속에 속한 몇몇 규조류 종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다사자 같은 야생동물에서 뇌에 손상을 주는 중독을 일으키고, 사람한테는 기억상실성 패류 중독(amnesic shellfish poisoning)을 유발한다. 공기 중의 독성물질을 흡입해서도 생기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감염된다. 건강하고 먹이활동이 활발한 개체들에서 더 자주 목격되는 이유이다. 신경 손상으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사하기도 한다. 집단 폐사의 가능성이 있어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특정 개체군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면 열에 아홉은 머리를 괴로운 듯 반복적으로 흔들며 바다사자가 흔히 있는 않는 곳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몸집이 크고 힘도 센데다 야생동물의 특성 상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조를 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물리거나 부딪칠 경우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안전하게 포획해서 캐리어에 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많은 수가 치료가 의미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에 호전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개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센터는 병원이 있는 소살리토 본원과 구조와 이송만 가능한 분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인 San Louis Obispo에 구조되어온 20여 마리의 응급 치료를 위해 새벽 3시까지 주사를 놓고 돌보던 날, 나는 인간이 만들어 낸 자연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았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더러워진다는 게 느껴졌다.



Figure 5. Domoic Acid 에 중독된 바다사자. 해안가에서 무리생활을 하는 바다사자의 습성과 완전히 다르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서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하고 있다.

4) 부검에서 만난 쓰레기오염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800만 톤에서 1300만 톤까지 달한다고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30초에 한 마리씩 해양동물이 죽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 상태를 지속하면 2050년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쓰레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끔찍한 숫자들은 이보다 더 많고 계속 생겨난다.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중심으로 일하며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피부병 치료 같은 것이었다면, 2009년 해양생물 쪽으로 커리어를 넓히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부검일 것이다. 살아있는 해양생물에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그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야생에 있는 동물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 사육시설에 있는 개체들, 주로 전시를 위해 사육되는 생물들이나, 구조되어 치료해야 경우이다. 야생에 있는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일은 대부분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을 부검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특히 죽은 원인을 밝혀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그런 맘이 든다. 대개는 많이 썩어있거나 냉동실에 얼려있는 사체를 녹이기 때문에 부검을 한다 해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기억해보려 한다.

뱀머리돌고래 (*Steno bredanensis*)

2012년 여름 제주 김녕 앞바다에 어린 암컷 뱀머리돌고래가 해안가로 떠밀려 왔다. 지역주민들과 해양경찰이 힘을 합쳐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다시 되돌아왔다. 구조치료기관으로 인증된 사육시설로 옮겨 5일간 치료하였지만 결국 폐사했다. 나는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즉시 부검할 방법을 찾았으나 결국 실패하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을 맡기고 군검사를 위한 샘플링만 몇 개 해왔다. 군검사 결과는 특별한 게 없었다. 이듬해 2월에 사체를 연구소로 인도받아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대 위에서 본 돌고래는 처참하게 말라있었다. 죽기 전 한참을 못 먹은 것이다. 돌고래들에 흔한 기생충 감염 정도도 다른 개체들에 비해 심각했다. 그러나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고래류의 위는 3개인데 그 중 첫 번째 위는 우리의 위랑 다르다. 오히려 식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위산이 나오지 않고 물리적인 소화 정도만 이뤄진다.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2위로 내려가서야 드디어 소화작용이 일어난다. 장기를 모두 노출시켰는데 1위가 유독 크다. 복강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1위를 갈랐다. 사육시설로 옮긴 직후 며칠을 생선을 받아먹었다더니 생선뼈가 가득 뭉쳐있었다. 그런데 생선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넓은 바드로 내용물을 옮겨 뭉쳐있는 뼈들을 흘트렸더니 퐁퐁 뭉쳐있는 이물질이 보였다. 80 x 50cm의 비닐이 지름 약 8cm의 끈과 함께 뭉쳐 1위에서 2위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다. 먹을 수는 있었지만 소화시키지 못했으니 몸은 말라가고 결국 폐사하고 만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해양쓰레기로 폐사했던 첫 번째 사례였다.



Figure 6. 제주 김녕에 좌초되어 폐사한 뱀머리돌고래의 위장에 발견된 비닐. 이 해양쓰레기가 1위와 2위 사이를 막아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부화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고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 중 하나이며 어업활동 중 일어나는 혼획에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부화할 때 주변 모래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호주에서는 암컷의 비율이 99%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바다거북 부검은 다양한 곳에서 경험이 있다. 2018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바다거북 부검공동연구에 참여했고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팀과 함께 제주에서도 부검을 했었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총 7종으로 모두 국제거래에 제한을 받는 CITES에 올라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종은 총 5종인데 그 가운데 푸른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이 가장 흔하게 관찰된다. 바다거북 부검 역시 냉동고에 얼리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그럴 만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모아뒀다 한 번에 부검할 때 다른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 수의사들이 부검을 주도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를 위한 샘플링을 하는 형태다. 해양동물 부검은 언뜻 가운을 입고 칼과 샘플병만 움직이는 정적인 행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노동력이 소모되고 부패된 경우 냄새도 심하다. 당장 얻어지는 이득이 크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가 축적되면 한반도 인근에서 관찰되는 바다거북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부검대상이 되는 종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과 같다. 푸른바다거북은 초식성이라 소화기관을 따라 해초가 발견된다. 그에 반해 붉은바다거북은 육식성이라 연체류, 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발견된다. 그러나 종을 가리지 않고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쓰레기다. 최근 바다거북과 쓰레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바다거북이 쓰레기를 섭취하는 이유 중에 냄새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¹⁴⁾ 실제 부검 중에는 양식장에서 부이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사탕봉지, 비닐, 노끈, 낚시줄, (심지어 대북선전물이 발견된 적도 있다) 등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쓰레기 중 바다거북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쓰레기들이 발견된다. 대부분 직접 사인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소화기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그야말로 드물다. 낚시바늘이 부리 근처나 식도에 걸려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표한 먹이만 정확하게 캐치해서 먹는 돌고래류에 비해 떠있는 해초더미를 그대로 물어버리는 습성을 가진 바다거북에서 확실히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높았다. 고래 중에서도 이빨 대신 고래수염을 가진 고래들은 물과 함께 플랑크톤이나 소형 어류를 입안에 가득 넣고 물만 뱉어 삼키는 먹이 습성을 가졌는데 이 경우 떠있는 쓰레기를 함께 섭취하게 되고 고래수염에도 걸리게 된다. 2020년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대형고래인 참고래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소화기와 고래수염에 쓰레기가 발견되었다.¹⁵⁾ 해양쓰레기가 사람과 동물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않았다. 버려진 그물 같은 큰 쓰레기는 큰 동물에 엉켜 심각한 상처를 만들고 결국 감염되어 죽거나 엉킨 채 먹이사냥을 할 수 없어 탈진하고 결국 굶어 죽는다. 조금 더 작은 쓰레기는

14) Joseph B. Pfaller et al., 2020. Odors from marine plastic debris elicit foraging behavior in sea turtles. *Current Biology* 30, R191-R214.

15) Jibin Im et al., 2020. First record of plastic debris ingestion by a fin whale (*Balaenoptera physalus*) in the sea off East Asia. *Mar. Poll. Bull.* 159-111514.

좀 더 작은 바닷새나 어류에 똑 같은 해를 입히고 심지어 동물들이 먹게 된다. 장을 통과할 정도로 작은 쓰레기는 큰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만 뾰족한 쓰레기가 위장관에 상처를 입히거나 뚫어 버릴 수도 있고, 소화기를 막아 버릴 수도 있다. 더 작은 쓰레기들은 더 작은 해양생물 이를 떼면 산호 같은 동물에 영향을 준다. 산호가 직접 먹기도 하고 산호와 공생하는 미생물을 죽게 하며 산호의 질병발생을 89%까지 높인다고 한다.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태반에서도 발견되었다.¹⁶⁾ 살아있는 생명에 이런 쓰레기들 특히 1 μ m 이하의 나노 플라스틱입자들은 모든 장기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은 자체로도 화학물질을 가지지만 주변의 화학물질 예를 들면 잔류성유기 오염물질(POPs) 등이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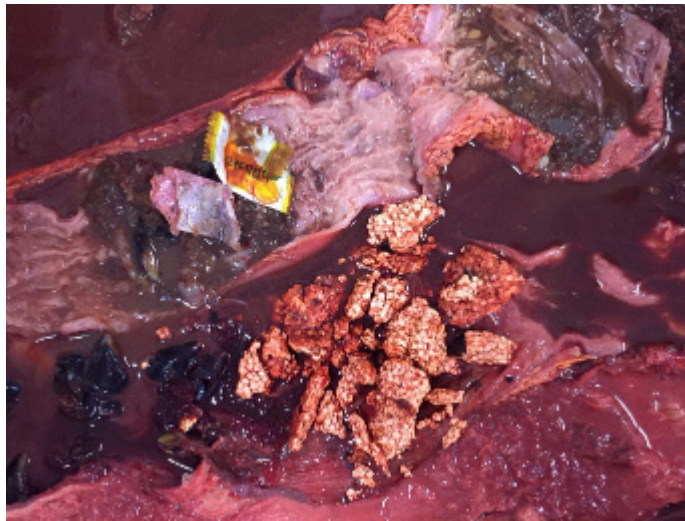


Figure 7. 바다거북 부검 중 장에서 발견된 해양쓰레기

3. 함께 할 일

우울한 이야기를 잔뜩 적어놓고 보니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 바다의 문제는 바다에서 생기고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속화된 해수온도 상승은 물 순환을 촉진시켜 쓰나미 같은 자연재난을 만들어낸다.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일부 섬나라에서는 이미 내륙 쪽으로 터전을 옮기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개개인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언지를 궁금해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정말 실천을 하실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개인의 실천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기대에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16) <https://amp.theguardian.com/environment/2020/dec/22/microplastics-revealed-in-placentas-unborn-babies?fbclid=IwAR0SGaRKDrnDDIrUtb20TISvV-sYRkolhG9wgwmFdVfFz7oT0dR59b80Dk>

플라스틱 용기를 덜 쓰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은 큰 의미가 있지만 기업들이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사용을 지속하면 효과도 미미하고 노력한 사람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힘없는 개인들이 사실 알고 보면 기업들이 덜덜 떨며 눈치 보는 소비자고 정치인들이 굵실거리는 투표자인 것이다. 좋은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국가별로, 지역별로, 도시단위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력을 안 하는 국가가 만들어낸 피해는 모두가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고, 옳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물건을 사자. 그리고 언론이 옳게 이야기를 전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옳은지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정보는 넘치는 세상이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혼자 하기 쉽지 않다면 함께하자. 한순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럴 확률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너무 늦기 전에만 왔으면 좋겠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목격해온 해양동물의 위기를 열거한 이유는 살고 있는 곳만 다를 뿐 결국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렇다. 인간과 자연이라는 말이 나는 참 오만하게 들린다. 자연 안에서 보잘 것 없이 작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감히 자연과 동등하다는 혹은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혀서 그렇다. 이미 이렇게 된 세상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 세대에 미안해야 한다.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 한국의 경우



유 영 초
풀빛문화연대 대표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 한국의 경우

1. 머리말

지구는 아름답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산과 계곡이 아름답고, 바다의 풍경과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지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일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내 발로 측량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지구를 관망하는 그 책을 통해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는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굽이치는 아름다운 강과 바다, 숲, 철새들의 비행은 물론, 지구의 구석구석 얹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인간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는 지구의 생채기, 그 위에 페타이어로 살아가는 바다의 사람들도, 사막으로 매몰된 폐허의 집터도, 플라스틱 도시도 품어주는 지구를 본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니, 다시는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이것은 기우(杞憂)인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염려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우처럼 기후위기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지표와 증거들은 그것이 차라리 기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류와 기상은 이변을 일으켜 폭염과 폭설, 태풍과 홍수의 재난이 연례행사처럼 되어가고,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의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이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농담처럼 느닷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의 기준으로는 놀랄 일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최근 BTS로 상징되는 세계 속의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국가적 위기관리능력 등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편,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나 산재사망율, 교통사고율, 범죄율 등과 같은 사회적 지표들과 생태발자국이나 기후환경에 관한 지표들로 보면 선진국이라 하기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생태용량의 8배나 되는 생태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더딘 화석연료의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현실은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배기량이 성공의 지표가 되는 물질문명의 척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에는 요원한 일이다.

책은 우리 역사를, 아니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견인하는 바퀴였고, 그 바퀴로 새로운 길을 내는 데 일조해 왔다.¹⁾ 우리 역사 속의 책과 출판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직지나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문명을 밝혀온 가장 큰 동력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수많은 유교경전과 개인문집의 출판물, 그리고 서민대중을 위한 방각본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책은 조선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출판은 민족의 독립을 향한 저항운동이었다. 조선 총독부 출판법의 탄압아래 수많은 판금(販禁)과 차압, 검열과 삭제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 대한민국 7~80년대의 출판은 민주화운동의 메신저가 되어 많은 출판인들의 체포, 구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명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책과 출판은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역사의 동력이 되어 식민 제국주의에 맞서고, 군사독재에 치열하게 맞서왔던 한국의 출판, 한국의 책은 지금 자연을 탄압하고 미래 세대를 착취하며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기후악당, 기후깡패들에 맞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린 뉴딜”의 시대가 되었다. 다른 말로는 생태전환이다. 뉴딜은 “새 판”을 짜고 “딜”하는 것이다. 새로운 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가 새롭게 딜하고 협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시대전환기이다. 지구가 세기적 종말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시대전환 속 선진국은 누구인가? 이 판을 주도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나가는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명전환의 시대, 생태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그린 뉴딜의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환경책의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지, 나아가 환경책과出版的 역할과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기후관련 도서의 출판 현황과 흐름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끝으로 최근의 환경책의 내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환경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출판생태계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부길만, 한국 출판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 출간현황으로 본 환경책 : 기후,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현재 출판된 도서의 현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기” 의식이 책을 통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등에 관한 출판 동향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통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기후, 환경에 대한 출판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키워드의 제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동향과 흐름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의 분석이라기 보다는 책의 제목이나 출판연도 등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보는 것으로 한다.

서지 정보에 의하면 크게 “자연”과 “문화”라는 차원으로 대별해 보았을 때, 자연, 환경, 생태의 제목을 가진 책보다는 사회, 문화 쪽의 책이 많았다. <그림 1>과 같이 자연과 생태환경의 영역은 사회, 문화에 비하면 책의 양이 8:2정도로, 문화의 영역 책이 더 많이 출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키워드의 제목으로 들어가면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책으로 보는 경향을 보면 자연, 환경, 생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 폭이 적고, 사회문화의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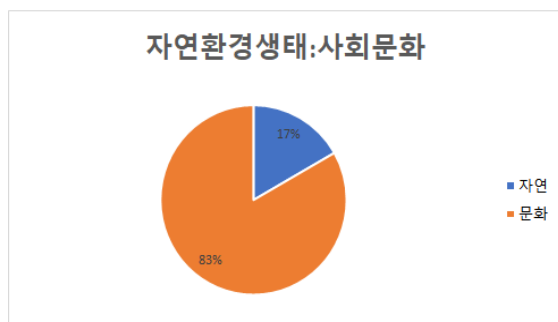


그림 1 자연과 문화의 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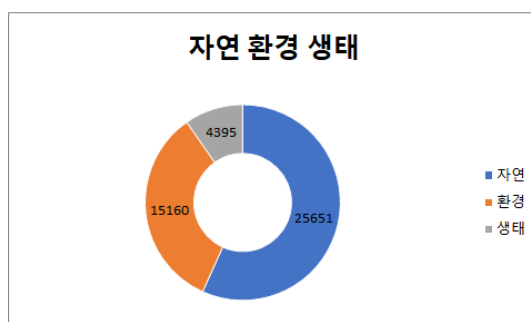


그림 2 자연, 환경, 생태의 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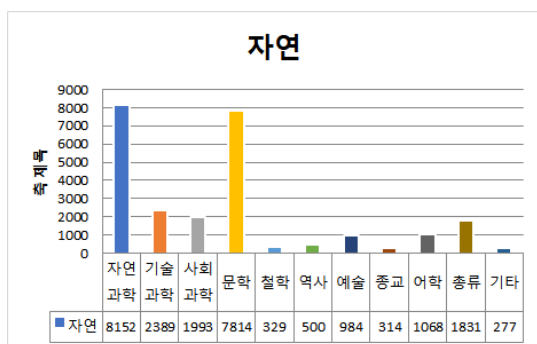


그림 3 자연 제목의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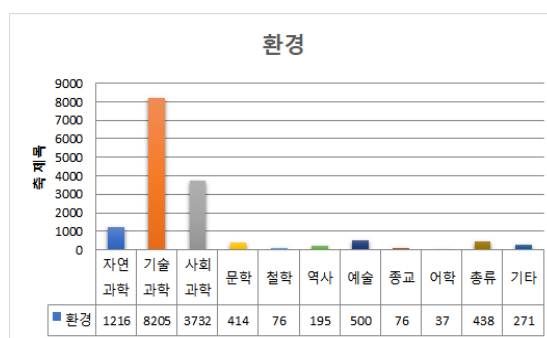


그림 4 환경 제목의 분야별 현황

2)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seoji.nl.go.kr/index.do>, 검색일, 2021년 10월

〈그림 2〉에서 보면 자연과 환경, 생태의 경우에서 출판의 비중은 자연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 생태의 순으로 나타난다. 자연에 관한 책 약 5만권에 비해, 생태에 관한 책은 그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환경이나 생태적 분야는 자연에 비해 더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에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문학의 영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문학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림 4〉에서처럼 환경은 기술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에 관한 주제가 환경공학 등의 기술영역이 주류를 이루고 그다음 환경정책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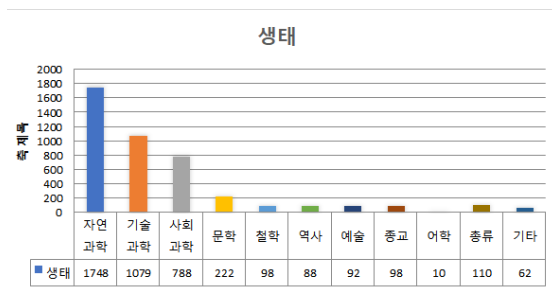


그림 5 생태 제목의 책 출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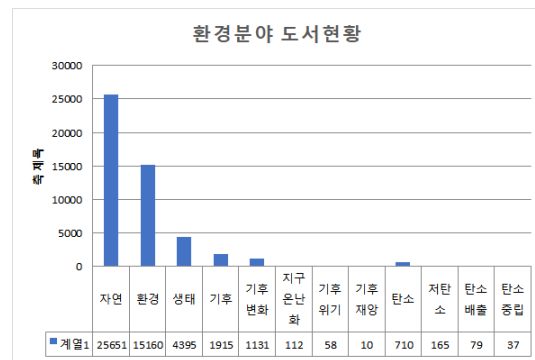


그림 6 환경 분야 도서 현황

생태의 영역은 〈그림 5〉에서처럼 기본적으로는 생태학, 생태계, 숲과 동식물 등의 자연과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지만, 생태복원과 같은 기술과학 그리고 생태사회, 정치, 교육 등의 사회과학 등의 영역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문학이나 철학, 역사, 예술, 종교 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에서는 자연과 환경, 생태, 기후 등의 출판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기후나 탄소 등에 관한 주제의 비중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 기후, 탄소 등과 관련된 주제의 책들이 21년 10월 현재 약 2만 2천 권 정도이다. 물론 책 제목만으로 검색한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 생명, 생물, 생물다양성, 온실효과, 오염 등 더욱 다양한 주제어들이 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지현황에는 공공기관의 비매품 도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판매용 도서의 경우는 이 현황의 60% 정도이다. 〈그림 6〉의 개략적인 현황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출판사나 독자들의 관심이 생태나 환경의 일반적인 환경주제에 비해 기후와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등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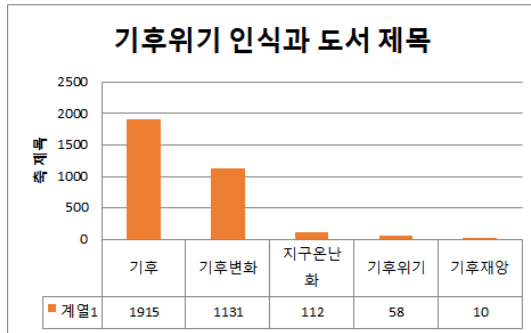


그림 7 기후인식과 도서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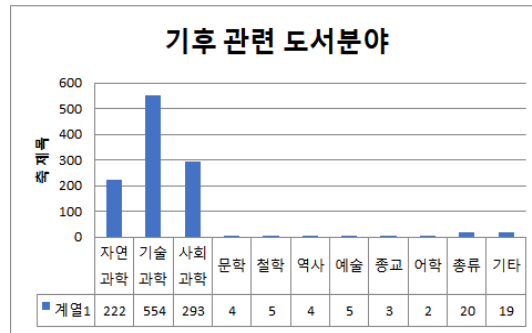


그림 8 기후관련 도서의 분야별 현황

한편, <그림 7>에서 보여주듯이 “기후”라고 하는 주제의 도서 중에서 “기후 변화”라는 제목의 책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기후에 관해서는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슈가 중심에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후변화라는 말도 역시 중립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와 관련된 도서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변화”의 수준으로만 기후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즉, “기후위기”나 “기후 재앙”의 표현을 쓰고 있는 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중립적 표현의 “기후변화”는 그것이 자연적인 변화인지, 어떤 문제적 변화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후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소설 <기후변화시대의 사랑>³⁾ 속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라고요!”라고 호통치는 장면을 등장시키지만, 더 나아가 기후위기라는 말조차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직 오지 않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재앙이라고 현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후” 문제를 재앙의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책들은 빌게이츠의 <빌게이츠, 기후 재앙에 대처하는 법>⁴⁾, 김준우의 <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⁵⁾가 있다. 이 책들 모두 올해, 2021년 발간된 것들이다.

한편 기후와 관련된 도서의 분야별 현황은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기후 문제가 삶의 전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후문제가 기술과학적인 문제이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등의 전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 책과 출판에서의 기후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3) 김기창,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민음사, 2021

4)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김민주·이엽 옮김, 김영사, 2021.

5) 김준우, 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한국기독교연구소, 2021.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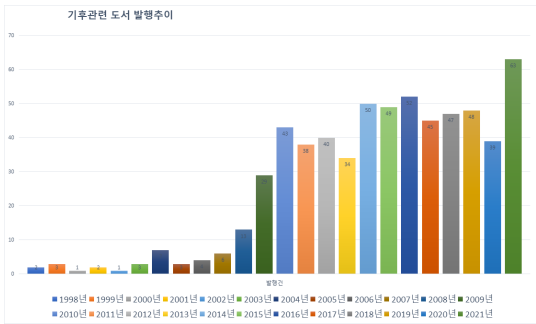


그림 9 기후 관련 도서의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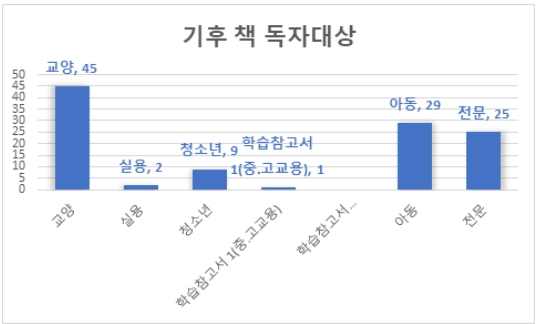


그림 10 기후 관련 책 독자대상(2021년)

기후환경에 대한 우리 책과 출판의 대응은 꾸준히 늘어오고 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올해는 대폭 늘어난 것이 보인다. 아마도 2021년 서울에서 P4G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⁶⁾ 올해의 기후, 환경과 관련된 책들이 63권으로 검색된다. 물론 “기후”의 제목을 붙이고 출간되지 않는 다양한 제목의 기후, 환경관련 책들도 있을 것이다.

이 책들도 대부분 환경관련 문제를 기술, 사회, 자연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문학, 철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 성찰에서 다룬 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에세이 수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된 책들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1년 기후 관련된 도서 중 내용분류 코드가 8인 도서는 10권이다. 그중에서는 <기후변화시대의 사랑>이 문학에서 기후를 다룬 독보적인 소설책이다.

한편 서지분류에서의 독자코드 분류에 의하면 <그림 10>처럼 일반적인 교양서로서의 분포가 가장 많고, 아동 대상의 서적의 비중이 높다. 학교에서의 기후교육에 관한 참고서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서는 학교교육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올해의 환경책>과 <우수환경도서>

“환경책”은 분야별 카테고리 분류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환경책이라는 말로서 나름의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책은 대체로 잘 안 팔리는 책이라 출판을 꺼려하는 분야에 해당된다.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태도의 소명의를 갖지 않고는 환경책을 잘 다루지 않는다.

6)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환경 분야의 다자정상회의로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진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두 번째이다. <https://2021p4g-seoulsummit.kr>

과거 언론출판의 자유가 억압당하던 시절에는 사회과학과 이념서적을 출판하고 유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운동의 방법이었던, 환경책 역시 환경이념과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환경운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나 환경정책의 당국에서는 환경책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행사를 펼쳐왔다.

특히 환경단체에게 환경책은 단체 구성원들의 신념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토대를 이루고 단체 활동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이자 동력이 되기 때문에 환경교육과 운동에서의 무엇보다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민환경단체의 경우는, 환경정의시민연대, 풀꽃평화연구소 등을 주축으로 2002년 “환경책 한마당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환경책 큰잔치” 행사를 20년째 이어 오고 있다. <올해의 환경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결합하여 이어가고 있다.

환경책 한마당 행사는 무겁고, 어렵고, 거리감이 있는 환경책을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청소년을 위한 환경책 추천도서>, <다음 100년을 살리는 100권의 환경책>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선정하여 제시해 왔다.⁷⁾

<다음 100년을 살리는 100권의 환경책>의 경우는 다양한 환경고전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 관한 여러 주제의 책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00권의 책 중에는, 환경책을 출판의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고)김종철 선생의 녹색평론사 책이 11권이 선정되어 있다. 1할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목록에만 해도, 환경책의 고전이라고 할 <침묵의 봄>을 비롯하여 환경윤리, 환경정책, 환경철학, 숲과 생명, 에너지와 문명의 문제, 지역과 도시, 생명공학 등 환경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지만, 기후문제 그 자체를 핵심 주제로 다룬 것은 <0.6°>라는 책 한 권에 불과했다.

하지만 환경책 큰잔치를 벌여온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후 위기의 문제는 더욱 가파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올해의 환경책>에서 선정된 기후위기를 핵심 주제로 한 책은, 2016년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비롯하여, 2018년 <기후변화의 심리학>, <우리 얼음이 녹고 있다> 2020년 <빙하의 반격> 등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과 작가들이 다룬 기후위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오늘의 환경책>에 선정된 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번역서라는 점은 우리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때도 역시 환경책은 대부분 환경문제 대한 에세이 형식의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문학적,

7) 이와 관련한 도서목록은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되어 있다. <https://blog.daum.net/074098/10224>

예술적 접근을 시도한 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알도 레오폴드의 미의 물리학이 환경책에 적용된다면, 생애시 한 편이 환경논문 천 편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러한 통찰을 주는 환경책은 많지 않은 듯하다.

“환경책 큰잔치”는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 발표하는 행사 기간에는 환경책과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환경책의 홍보와 독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책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책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환경책의 여행’ 등 환경책이 실질적인 유통과 독서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책을 선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한 환경운동으로 여기고 있다.

교보문고와 “환경책 큰잔치 환경책 선정위원회”는 매년 선정한 〈올해의 환경책〉 코너와 웹페이지를 따로 두고,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는 〈그림 11〉과 같이 2015년 이후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목록이 별도로 전시되어 있다.⁸⁾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반영한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이나 〈마지막 비상구-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과 같은 책이 선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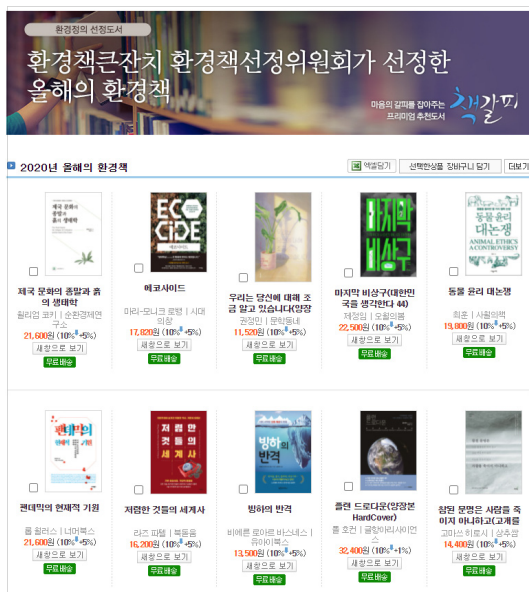


그림 11 교보문고의 올해의 환경책 페이지



그림 12 환경교육포털 우수환경도서 페이지

8) <http://www.kyobobook.co.kr>,

한편, 일찍이 환경부에서도 환경책 보급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선정 사업은 1993년부터 진행되었고,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주제와 대상 분야별로 정리하여 <그림 12>와 같이 환경교육포털에 게시하고 있다.⁹⁾

93년도에 처음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는 중고등학생용 책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1권 외에 일반인용 3권과 정기간행물 1개 등 총 5권 정도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는 유아용, 초등용, 중고등학생용, 일반인용으로 세분화하여 선정 권수도 116권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포털에 우수환경도서 목록은 총 957개로, 주제별로는 물, 공기, 토양, 생태계, 환경보건, 지속가능발전, 생명윤리, 폐기물, 에너지, 기후변화로 구분되어 있고, 특별히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출판사명과 간단한 책 소개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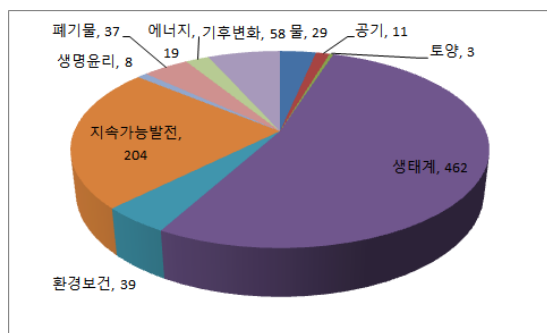


그림 13 우수환경도서 주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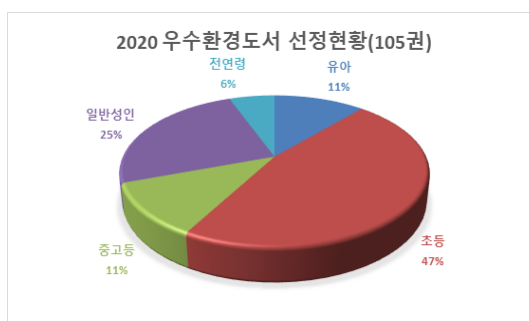


그림 14 우수환경도서 대상별 현황(2020)

<그림 13>처럼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책은, 전체적으로 생태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는 산림과 하천, 식물과 동물, 곤충과 새, 생물다양성 등의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현재 기후위기 등의 환경위기적 상황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58권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더 각성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편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환경도서의 지정에 있어서도 초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교육적 수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교육에서의 우선순위라는 인식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환경출판의 경향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우수환경도서의 선정 현황을 분석해 본다. 현재 물론, 우수환경도서의 경우 여러 작품의 우수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대상, 그리고 출판사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것만으로 한국 환경 출판의 경향성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기 위한 점을

9)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

감안해서 정리해본다.

2020년 우수환경 도서는 105종이다. 유아용은 <늑대를 잡으러 간 빨간 모자>와 같은 환경동화를 비롯해서 그림책 등 12권이다. <납은 타이어의 두 번째 여행>과 같은 재활용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림책도 있지만 주로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책들이다. 번역물이 7편으로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이는 그림책과 같이 공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역물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선정된 책들은 좀 더 다채롭다. 곤충이나 씨앗 등의 자연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하늘이 딱딱했다?>처럼 하늘의 로드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에 새들이 충돌해서 죽어가는 문제를 다룬 책도 있고, <제인 구달>이나, 널리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처럼 어린이들이 본받을 만한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도 있다. 초등 저학년은 번역물보다는 국내 저작이 더 많다. 이는 수요자가 초등생이 가장 많다는 점도 있겠지만, 스토리 등을 통한 저자 접근성이 높은 점도 생각할 수 있겠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 산책자를 위한 아름다운 자연도감> 등의 도감류가 비교적 많이 선정되어 있고, <새와 깃털>과 같은 깃털의 구조, 날개의 종류 등을 좀 더 깊이 있는 생태적 지식을 다룬 책들이 눈에 띈다.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들도 초등학교의 고학년에게는 필요한 책들이다.

중고등 청소년 우수도서는 초등용보다는 적은 편이다. 다만 좀 더 실천적인 측면들을 다룬 책들이 많은 편이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이라든가, <환경호르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와 같이 비교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책들이다. 특히 <빌게이츠의 화장실>은 적정기술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문제와 빈곤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일반성인용 우수도서는 <바닷 마을 인문학>, <식물들의 감각법>, <자연의 비밀네트워크>와 같은 인문 생태적, 혹은 생태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책들이 많다. <동물주의 선언>이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과 같은 생태적 삶과 철학을 흥미롭게 하는 책이나 <식사혁명>, <빅치킨>과 같이 생태적 식생활과 관련된 책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2050 거주불능지구>나 <파란하늘 빨간지구-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는 직접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으로, 대기과학자가 직접 쉽게 풀어낸 기후문제 인식을 높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전 연령이라는 폭지의 선정도서가 별도로 있는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문제, <문다>와 같은 가축 살처분 문제를 다룬 책이 있다.

이들 책들에 대해서는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도서들을 직접 홍보해주고, 책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환경도서 목록집’을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에 배포해준다. 때문에 책이 독자들과 만나는 지평이 매우 넓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된다,

2020년 우수환경도서를 선정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아 초등용이 우수환경도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청소년용 환경도서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아마도 출판시장이나 교육여건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싶다.

환경책의 수요는 대체적으로 유아 초등에 국한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환경교육의 경우도 유아 초등을 제외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특별 활동 수준에 머무르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수환경도서 선정 사업을 통해서 환경책의 보급과 확산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 환경출판을 직접 지원하는 출판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문제와 연계된 도서나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의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지원도 환경책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4. 독후감으로 보는 환경책

‘침묵의 봄’, 그 경종이 울린 지 내년이면 60년이 된다. 이제는 환경과 생태라는 제목을 단 책만으로도 2만 권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환경책들이 있다. 환경책의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환경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

〈침묵의 봄〉은 레이첼 카슨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명으로 올려놓을 만큼 오늘날 환경운동의 시금석이 된 책이다. “침묵의 봄”이 “침묵의 사계절”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이 〈침묵의 봄〉이 전하는 통찰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실천의 의지와 발판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 오늘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우수환경도서를 뽑아 널리 알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책을 읽도록 해야할 이유이다.

우수환경도서 선정과 함께 추진되어 온 “환경독후감 공모전”은 환경책을 읽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성, 지식의 습득, 실천의지와 태도, 방법에 이르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다. 또 우수환경도서가 실질적인 홍보와 판매로 이어지고, 환경책읽기 확산으로 이어진다.

대개 “환경독후감 공모전”은 환경책의 보급과 독서 확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환경문제 인식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선호하는 행사이다. 2012년에는 ‘침묵의 봄 발간 50주년 기념’ 독후감 공모전이라는 특별한 행사도 있었다.

현재, 환경관련 독후감 경진대회들은 단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환경도서의 독후감이 가장 규모 있는 행사이다. 환경부에서는 우수환경도서 공모대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를 기반으로 국민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친환경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우수환경도서공모전과 독후감 공모전은 격년에 한번 진행되고 있다.

환경책 독자들은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식의 습득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직업을 고려하는데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책의 영향은 일상의 태도와 실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 나아가 삶의 궁극적 방향에 대한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들 독후감을 읽어보면, 환경책이 독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고 어떤 실천의지를 심어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모전을 위해서 제출된 원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내용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대체로 책을 통해 큰 자각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우선 환경책은 독자들의 환경적 정서와 감수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는 권준서 학생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는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핸드폰이 망가진다면 나 또한 평평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재료들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중략)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돼지는 잘못이 없어요>를 읽은 초등학생 이정원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말 못하고 죄 없는 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한다. <죽음이 두려워요>를 읽은 표승연 학생은 소설 속의 주인공과 깊이 공감하며,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너무 슬펐던 그 공감을 바탕으로 결심한다. “가족들과도 약속했다. 첫째,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이러한 환경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결심은 아마 평생의 자기의지와 실천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다.

성인이 되서 생각과 일상의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를 읽은 신현선은 “이 책을 읽고 나는 되도록 잔인하게 동물을 희생시켜야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또한 동물을 이용한 여행 상품도 이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는 독후감을 쓰고 있다.

<위베르 씨 내일의 지구를 말해주세요>를 읽은 고등학생 서우선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려 살 곳과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북극곰은 단순히 환경오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환경책을 통해 형성된 감수성은 좀 더 깊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책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더 확장된 인식을 주고, 더 깊은 지식과 통찰을 얻는다. <문버드>를 읽은 박민제 학생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책 <문버드>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철새를 보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다.(중략) 그래서 낙동강 철새들의 현황을 찾아보았고, 실제로 인간의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철새들이 벌써 낙동강을 떠났거나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환경책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미래의 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생 조세빈은 “<티모와 함께하는 지구온난화 여행>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위험과 예방 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고 쓰고 있다.

환경책은 지구를 구하는 영웅적 꿈을 꾸게도 하지만, 구체적 미래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바람 좋은 날, 경북궁>을 읽은 김예원 학생은 이 책을 통해 꿈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 “내 꿈은 도시설계 전문가이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자연 친화적이기보다는 온통 회색빛인 건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점차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바람 좋은 날, 경북궁> 책을 읽으면서 그 방향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다.

또, <야생 동물은 왜 사라졌을까?>를 읽은 초등학생 배동혁은 “이 책을 읽고 난 뒤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를 읽은 김지양 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꿈이 함께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빠, 난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생물학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말하는 것일까 싶어 왜냐고 물어보니, “어린이집에서 곤충이 나타나면 친구들이 벌레라며 죽이려고 해요. 나는 곤충들을 살려주고 싶어요.”라고 쓰고 있다.

환경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 실천의지를 길러준다. <전기가 나오는 축구공>을 읽은 안근호 학생은 통해 적정기술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 “전기가 나오는 축구공이라니! 어떻게 축구공에서 전기가 나오지? 그 궁금증 때문에 책을 얼른 펼쳐보았다. 그 축구공의 이름은 바로 소켓볼이었다” 축구를 하는 동안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이는 환경문제해결의 기술적 토대가 된다.

환경책은 이처럼, 환경교육의 기본적인 감수성을 제공하고, 환경적 소양의 바탕을 마련해준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적 의지를 형성하게 해준다.

5. 환경책 속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말하는 한국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인식과 실천방향을 살펴보자. 2021년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말하고 있는 책들은 서지정보에 의하면 100여권이다. 최근에 발간된 기후환경 도서에서 번역물을 제외하고, 인상적인 내용을 담은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들어온 책,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는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10대들의 목소리”라는 부제를 달고, 기후위기와 싸우는 10대들이 저자로 되어 있는 책이다.¹⁰⁾ 2021년 “책으로 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대표적이 책 중의 하나이다.

10) 기후위기와 싸우는 10대들,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 가나문화콘텐츠, 2021

“지구에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죠?”라는 UN 연설로 널리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물론, 한국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기후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소송”이라든가, 세계의 여러 나라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특별히 한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산 간디학교, 제주도 멸종위기 어린이단,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또바기,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마을연구원에서 활동은 모두 지구의 위기 속에서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의연하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 탄소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다.¹¹⁾ 저자는 기후위기의 문제의 본질은 생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본다. 탈탄소경제와 성장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협약과 분배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경제시스템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곧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난은 가난하고 소외된 노약자 여성 빈민들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 상식이다. 폭염에 사망하는 대다수는, 무더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노약자와, 에어컨 등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부채하나로 버텨야 하는 빈민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등은 결국 자본주의적 근본 문제로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기후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모색이 그린뉴딜이라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녹색전환, 생태전환이다.

〈걷기만 하면 돼〉는 일상의 산책을 기후문제로 까지 연결해서 사유하는 책이다.¹²⁾ 걷는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걷는 길 모두가 일상과 생활을 연결하기보다는, 일상과는 분리된 여가와 여행길로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산책, 걷기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걷기를 건강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을 녹색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안한다. 저자가 말하는 녹색기본소득이란 걷기와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저탄소의 삶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저자는 녹색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소득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기본 소득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인간적 삶을 위한 생계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먹고, 입고, 자는 데 지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로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을 불문하고, 직업 활동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성별, 지역 등의 어떤 조건도 없이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일정 액수의 급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11) 김병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 책숲, 2020

12) 강상구, 걷기만 하면 돼, 루아크, 2020

〈걷기만 하면 돼〉의 저자는 이는 기본소득제도에서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적인 실천 활동을 ‘녹색기본소득’으로 확대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을 결합시킨 이 제안은 현재, 단순한 개인적 건강의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는 산책이나 걷기를 저탄소의 실천 활동을 위한 사회적 건강을 위한 담론으로 차원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는 팬데믹 이후의 자연과의 공생을 이루기 위한 지구인으로서의 실천적 담론을 제안하는 책이다.¹³⁾ 저자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주체를 인정하는 공생적 삶, 생태적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가 원인이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고 지구의 생명체들과 손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환경재앙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는 〈침묵의 봄〉에서 폭로한 농약 DDT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생물학 무기였으며,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같은 대부분의 환경재앙들이 생태적 연결이라고 하는 생태학적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과 같다.

저자는 생물다양성의 고갈,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팬데믹의 감염병으로 이어지는 환경문제가 그동안 풍요와 성장만을 추구해온 인간의 생태적 죄값이라고 본다. 이 죄를 진정으로 성찰하여, ‘호모 사피엔스’적 인간에서 모든 생명체와 공생하는 ‘호모 심비우스’적 인간으로의 생태적 전환을 주창한다.

끝으로 〈기후변화시대의 사랑〉은 발문을 쓴 정용준의 표현처럼 정말 “귀하고 고마운” 소설 책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사실, 알만큼 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들, 유튜브에 등등 떠 있는 북극곰과 빙하, 빨대에 신음하는 바다 거북이와 고래의 생태지옥도를 일상적으로 목도한다. 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볼 만큼 봤고 들을 만큼 들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의식을 넘어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의지와 실천은 쉽지 않다. 기후위기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수많은 통계와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변화는 몇℃로, 몇%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몇ppm이 될 것이고, 배출량은 몇 백만t CO₂eq이며, 육지면적의 몇㎢ 빙하의 몇 조t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식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온도변화를, 빙하가 흘러내려 닥쳐오는 재앙을 실제적 감각으로 느끼는 생생함이 필요한 것이다. “감지하는, 감지되는, 감각의 지식. 실제로 행동이 멈추고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 내는 진짜 앎이 필요한 것이다.”¹⁴⁾ 기후위기를 다룬 소설은 그래서 귀하고 고마운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의 사랑〉은 기후변화를 테마로 쓴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기후재앙으로 생겨난

13) 최재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김영사, 2021

14) 김기창, 기후변화의 사랑, 민음사, 2021, p.9, 서문

가상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내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기후 재앙에 대처하는 발상은 지금 현실의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마지막 수단은 가진 자들을 위한 기후위기의 국경과 같은 시설, “돐”이다. “사람들을 숨여 내면서 이미 내전은 시작된 거예요.” 이 돐의 안과 밖은 기후위기의 전쟁터이다.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후 불평등, 기후 정의와 해결은 단순한 것일 지도 모른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야. 단순한 존재니까 돐을 짓고 사람들을 내쫓은 거라고. 우리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밖으로 내쫓았듯, 나는 저들을 밖으로 불러낼 거야.”

아니면, 작가의 의식 속에서처럼 “뭔가 다른 방법이, 아직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을지”, “지구 온난화 따위를 걱정하지 않으며 천국의 초저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남아 있을지” 모른다.

6. 환경책의 발전 방향

환경책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환경책의 보급과 확산, 독서와 교육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책 생태계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조는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출판)과 소비(독서)의 순환 구조이다. 소비(독서)는 공공과 시장의 영역 모두에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도서관 및 학교의 환경교육과 제도적으로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생태전환교육은 교육기본법상의 의무이며, 환경학습은 환경교육법상의 권리가 되어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 문화부에서는 ‘사회적 독서’의 중심축으로 독서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출판생태계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15 생애주기 환경교육 기본 개념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생산의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독서)의 측면에서 제시해본다. 환경문제는 이제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인류 모든 세대의 문제이다. 그 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세대의 평생교육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을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맞춤형으로 제시하기 위해 <그림 15>와 같은 기본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⁵⁾

환경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교육의 생애주기 패러다임에 맞춰서 출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생태적, 환경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책들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내야한다. 아직까지는 생태적 감수성을 위한 주제적, 방법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고려되어 있지는 않다. 신화나 영웅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생태환경 감수성을 길러주는 동화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생태적 소양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책들이 필요하다. 생태적, 환경적 소양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성요건이다. 미래를 살아나가는 생존요건이기도 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모험적 탐구와 같은 생태적, 환경적 소양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이다. 이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런데 환경책을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책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남아있다. 사실 환경교육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쓰레기로 인해 고통을 당할 당사자들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것처럼 해괴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생태적 비전을 세워주는 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위인전, 영웅전에 그치고 있지만, 스스로의 영웅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야 한다. 때문에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와 같은 10대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10대들이 저자로서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은 당장의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좌절과 패배를 던고,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전환시켜나가는 지혜로서의 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린뉴딜이나 적정기술, 생태전환 등의 책들이 많이 더 많이 출간되어, 새로운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정기술,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만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생태전환은 프리초프 카프라와 우고 마테이가 말하는 법과 제도의 인간 <최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⁶⁾

왕권이 민권으로 바뀌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인간사회에서 구축한 마지막 보루인 법과 제도의

15) 장미정 외,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2020

16) 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 최후의 전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박태현, 김영준 공역,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변화 없이는 그린뉴딜은 불가능하다. 뉴딜은 새로운 협약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는 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과의 전쟁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위기와 재난의 가장 책임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책이 필요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집안의 가정환경 생태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회에서의 생태적 전환의 삶을 살기 위한 지침들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성인 중기의 장년층은 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어른들 위한 환경동화, 생태동화는 많지 않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문학, 환경동화들은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학, 예술 분야의 환경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매뉴얼과 같은 수준의 자료집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좀 더 깊이 있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환경책들이 필요하다. 성인중기의 환경교육은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적 중역으로서의 중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하다.

끝으로 성인후기의 생태적 여가를 위한 책들이 요구된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처럼, 자연 속에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연의 가치와 생을 음미할 수 있는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애주기 별로 환경교육과 연동된 환경책들이 만들어 진다면, 환경책 출판 생태계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생애주기 모형은 단순한 연령대의 구분이 아니라, 그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나 방법, 목표별로 세분화하고 연동하여 출판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특히 현재 환경책이 비교적 생태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교육의 세부주제와 연동하여 '주제적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은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분류를 위한 기준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분류표는 현재, 또 앞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주제적 범주를 제시한 것으로서, 환경책 또한 이 주제적 범주를 통해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참고.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144?action=read&action-value=282e1f28a84ee1fd98618df9443af81a>

표 1 환경교육프로그램 분류기준표, 주제적 범주

분류	개념	세부주제	세부주제 예시(설명)
지구환경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요소나 시스템	지구환경(3개주제이상)	대기, 해양, 생물다양성, 에너지 등 지구환경 내 3개 주제 이상
		1-① 기후변화와 대기	기후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
		1-② 해양	쓰레기, 생태계, 남획,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등
		1-③ 생물다양성	생태계, 종, 유전자, 멸종, 외래종, 서식지 등
		1-④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 핵 방사능, 신재생에너지 등
		1-⑤ 기타	사막화, 산불, 빙하, 우주 쓰레기 등
2. 지역 (생태) 환경	인간('나')이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 요소나 공간	2. 지역(생태)환경 (3개 주제이상)	숲, 강, 연안 바다와 섬, 갯벌과 습지, 철새 등 3개 주제 이상
		2-① 숲	숲 생물, 산불, 숲체험, 산림보전, 산림훼손 등
		2-② 강과 호수	강, 하천, 저수지, 댐의 생물, 수질오염, 하천 훼손, 직강화 등
		2-③ 연안 바다와 섬	쓰레기, 양식, 바다 생물, 기름유출 등
		2-④ 갯벌과 습지, 철새	갯벌 생물, 습지, 매립, 간척, 오염, 철새(서식처) 등
		2-⑤ 기타	토양오염과 침식, 논밭(농약 등), 비점오염 등
3. 생활환경	인간('나')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3. 생활환경(3개주제이상)	폐기물, 물, 공기,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3개 주제 이상
		3-① 폐기물	자원순환, 아나바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등
		3-② 물	먹는 물, 용수부족, 수돗물, 지하수, 물발자국 등
		3-③ 공기	악취, 소음, 진동, 새집증후군, 석면, 흡연, 유해화학물질 등
		3-④ 먹거리와 생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식품오염, 식품첨가물, 로컬푸드, 장난감 중금속 등
		3-⑤ 기타	빛 공해, 전자파, 생활녹지(가로수 등), 보행안전 등
4. 문화환경	인간이 만든 무형의 사상·가치·규범·양식(행위) 또는 그 결과물 등	4. 문화환경(3개주제이상)	환경철학과 윤리, 친환경경제, 환경법과 제도, 환경문화예술 등 3개 주제 이상
		4-① 환경철학과 윤리	환경권, 생명윤리(동물권), 환경정의, 생태문명, 지속가능성 등
		4-② 환경문화예술	환경예술(문학, 음악, 춤 등), 전통(생태)지식, 생태축제, 녹색 건축·조경 등
		4-③ 친환경경제	녹색소비, 공정무역,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등
		4-④ 환경법과 제도 (협약등)	보전지역, 환경정책, 국제협약 관련(예, 람사르) 등
		4-⑤ 기타	과학기술(AI, 드론 등), 시민과학(바이오블리츠 등), 환경봉사 등

아울러 환경교육 방법에 따른 책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야 한다. 현재는 강의와 해설, 놀이, 견학, 체험, 등 10개의 방법적인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방법적 다양성'이 있는 환경책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교육 프로그램분류에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목적 분류3(환경정서, 환경인식, 환경실천)×환경교육의 방법분류(10)×생애주기별 환경학습 구분(6)×세부주제(100)를 감안하면 매우 다양한 환경책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분류로도 수많은 콘텐츠를 기획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교육의 주제별, 대상별, 방법별, 목적별 구성에 추가로 책의 기본적인 장르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면 무궁무진한 환경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소설, 환경시, 환경 에세이의 등으로 환경책의 '장르적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환경의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뤄야 할 때이다.

이러한, 환경책의 생산(출판)의 측면에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연동하여 소비(독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전 사회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환경학습과 연계하여, 학교와 사회의 도서관(동네 책방, 마을 도서관을 포함한 촘촘한 환경교육 그물망)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환경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서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독서”를 통해, 환경책 동아리, 환경책방, 숲속의 책방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서는 비단 환경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문맹 극복의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시대,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글자를 알아도 뜻을 모르는 수준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 못하는 실질적 문맹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¹⁸⁾

끝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수환경도서 선정을 격년간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으로 확대하고, 환경독후감의 경우도 연례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중물은 환경책의 출판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사회적 실천적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V. 맺는 말

도서(圖書)는 하도낙서(河圖洛書)에서 온 말이다. 하도(河圖)는 은하의 세계, 별들의 바다를 통해 사유한 우주의 생성원리이다. 낙서(洛書)는 땅과 만물의 운행이치를 표현한 상징체계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와 구현이치를 표현 글과 그림이 도서(圖書)의 의미이자 책의 본질이 아닐까.

즉, 세상의 참된 이치와 그 현상을 드러내서 삶을 이끄는 것이 책의 본래적 의미이자 역할인 것이다. 때문에 글과 그림은 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그물망이 되어왔다.

책을 다른 말로 근본, 뿌리의 본(本)이라고 표현한다. 판본이니 제본이니, 양장본, 문고본 등의 말처럼 본은 책의 다른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책을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도낙서가 우주 변화의 원리 뿌리를 표현한 것처럼 책은 모든 역사와 문화, 예술의 근본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本)인 것이다.

카프카는 책이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어떤 낮은 방들에 들어가는 열쇠”¹⁹⁾같은 역할을 한다

18) "한국 실질문맹률 OECD 최하위...NIE통해 읽기·쓰기 교육해야", 머니투데이, 2016년 4월 6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40710250369430>

말한다. 책은 나의 뿌리 깊은 어느 방속에 숨어 있는 근본을 들춰내서, 내 안의 비밀을 폭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방안에 갇힌 꿈과 희망을 해방시켜주기도 한다.

때문에 카프카의 책은 도끼가 된다.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카프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내면에 갇혀있는 얼어붙은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책은 그 도끼여야만 하는 것이다.

책은 도끼이고 망치가 될 수 있다. 도끼든 망치든 그것은 현상을 부수는 파괴의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연장이다.²⁰⁾ 지금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기후재앙을 불러온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낡은 가치를 부수고 창조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할 때 필요한 연장이 환경책이다.

그래서 환경책은 도끼로 마른 장작을 패듯, 기존의 질서를 쪼개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말인가”라던 그의 말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환경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우리의 근본, 뿌리를 성찰하고 길을 묻는 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책은 새 하늘 새 땅이든, 정토이든 지구행성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주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 출판을 “인쇄된 선교사”라는 표현을 쓰듯이²¹⁾, 환경책은 인쇄된 환경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책은 ‘문서선교’의 사명처럼, 우리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기후위기는 종말론적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던져놓은 자살폭탄이라고 할 것이다. 이 뇌관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는 심정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전환이란 애벌레가 나비로 전환되듯, 기존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전환, 시대전환기에 서 있다. 우리가,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라고 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도 <매혹적>인 존재”²²⁾가 될 것인지, 환경책의 어깨가 무겁다.

19) 프란츠 카프카,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카프카의 편지 1900-1904, 서용좌 역, 솔출판사, 2004, p.57

20) 황민규, 책은 망치다, 미디어숲, 2018, p.46

21) 활자로 전하는 복음 '문서선교', 어디까지 왔나, 데일리 굿뉴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4584

22) 머레이 북친, 휴머니즘의 옹호, 구승회 역, 민음사, 2002.

〈참고문헌〉

강상구, 걷기만 하면 돼, 루아크, 2020.

기후위기와 싸우는 10대들,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 가나문화콘텐츠, 2021.

김기창, 기후변화시대의 사랑, 민음사, 2021.

김기창, 기후변화의 사랑, 민음사, 2021.

김병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 책숲, 2020

김준우, 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한국기독교연구소, 2021.

부길만, 한국 출판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장미정 외,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2020.

최재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김영사, 2021

황민규, 책은 망치다, 미디어숲, 2018.

Bookchin, Murray. (1995). Reenchanting humanity: a defense of the human spirit against antihumanism, misanthropy, mysticism and primitivism ; 구승희 역, 휴머니즘의 옹호, 민음사, 2002.

Gates, Bill(2021),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김민주 · 이엽 역,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김영사, 2021.

Koch, Hans-Gerd, Briefe 1. Kritische Ausgabe ;서용좌 역,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카프카의 편지 1900-1904, 솔출판사, 2004

Mattei, Fritjof Capra and Ugo(2015), The Ecology of Law :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 박태현 · 김영준 역, 최후의 전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웹페이지〉

<http://www.kyobobook.co.kr>, 교보문고

<https://2021p4g-seoulsummit.kr> 2021P4G서울정상회의

<https://blog.daum.net/074098/10224> 블로그

<https://seoji.nl.go.kr/index.do>,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www.keep.go.kr/> 환경교육포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40710250369430> 머니투데이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4584 데일리 굿뉴스



역사의 규모



吉見俊哉 요시미 순야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Publishing Forum
November 11, 2021
15:30 pm - 16:00 pm

Scales of History 역사의 척도

How family history and global history work together
가족사와 세계사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다



Chapter 1

DISCONTINUITIES OF HISTORY:

역사의 불연속
WAR, PANDEMIC AND REVOLUTION

전쟁, 팬데믹, 혁명

Catastrophes in the Early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의 재앙

- 2001 9/11 911테러
- 2008 Lehman Brothers
글로벌 금융위기(리먼브라더스사태)
- 2016 D.Trump US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 당선
- 2020 Covid-19 Pandemic
코로나19 팬데믹

- ←violence
폭력
- ←economy
경제
- ←politics
정치
- ←life
생명



Acceleration of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속화

Back Side of 20th century

20세기의 이면

Neoliberal Globalization after the 1980s

- 1995 Kobe Earthquake and Aum Attack in Tokyo
1995년 고베 대지진, 오진리교 가스 테러 사건
- 2011 North Japan Earthquake and Fukushima Incident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 2021 Covid-19 Pandemic and Tokyo Olympics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도쿄올림픽



Pandemic/Globalization: Different Faces of a Same Coin

팬데믹/세계화: 동전의 양면

- Black Death in 14th century
14세기 흑사병
← Mongolian Empire
몽골제국
- Smallpox in 16th century
16세기 천연두
← Age of 'Discovery'
대항해 시대
- Cholera after 1817
1817년 이후 콜레라 대유행
← British Empire
영국제국
- Influenza (Spanish Flu) after 1918
1918년 이후 인플루엔자(스페인독감)
← World War I
제1차 세계대전
- Covid - 19 after 2019
2019년 이후 코로나19
← Neoliberal Globalization after 1980s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속화



불연속의 역사적 순간

Historical Moments of Discontinuity

● Disaster 재해

Great Kanto Earthquake (1923), Great North-Eastern
Earthquake and Fukushima (2011).....
관동대지진(1923),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 Depression 경기침체

Great Depression (1929), Lehman Shock (2008)... **Values**
대공황(1929),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 **근본적 가치의 변화**

● War (Terrorism) 전쟁(테러)

W.W.I (1939-45), Vietnam War (1955-75), 9.11.....
제2차 세계대전(1939-45), 베트남전쟁(1955-75), 911테러

● Revolution (Restoration) 혁명(해산)

French Revolution (1789), Meiji Restoration (1868), Russia
Revolution (1917)..... 프랑스혁명(1789), 메이지유신(1868), 러시아혁명(1917)

● Innovation and Discovery 혁신과 발견

New World Discovery (1492), Printing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Revolution..... 신세계 발견(1492), 인쇄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Change of
Fundamental
Values**

근본적 가치의 변화

데이터 과학과 역사의 척도

Data Science and Scales of History

● Data Science : 데이터 과학 :

Statistical Future projected with Continuous Change
← Modernization = Long Term Process of "Progress"
미래의 지속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통계
현대화 = 장기적인 발전과정

● Scales of History : 역사의 척도 :

Multiple Pasts and Futures with Historical Discontinuity
역사의 불연속성이 있는 과거의 미래

← Spiral Recurrence of History 반복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 Repetition of Similar Pattern in the Long Wave
: 장기적으로 유사한 패턴 반복

✓ Long Wave of 25 year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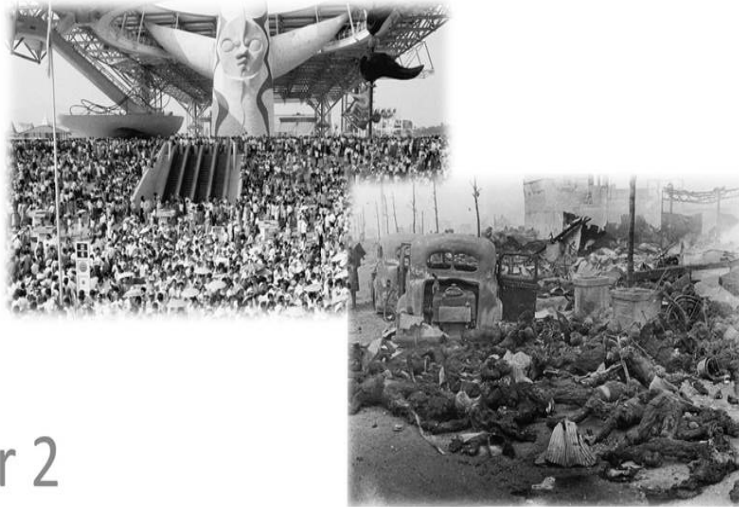
25년 역사의 물결
= History of Generation/Family and History of Economy
세대/가족사와 경제사

✓ Long Wave of 150-200 year History

150-200년 역사의 물결
= Early Modern Phase A/B ⇒ Modern Phase A/B
초기 근대화 단계 A/B 근대화 단계 A/B

✓ Long Wave of 600-700 year History

600-700년 역사의 긴 물결



Chapter 2

25 YEARS SCALES OF HISTORY

25년 역사의 척도

1945~1970 : 재건과 성장

1945~70 : Reconstruction and Growth

● 1945~ End of War and 25 years of Growth

1945 ~ 세계대전 종전과 25년간 성장

- Genocide : Tokyo 3/10, Okinawa 6, Hiroshima 8/6, Nagasaki 8/9
대량학살 : 도쿄 3월 10일, 오키나와 6월, 히로시마 8월 6일, 나가사키 8월 9일

- Turn to Life : Emancipation, Return, Baby Booming
소생 : 해방, 회복, 베이붐 세대

- Korean War : 1950~53
한국전쟁

- Vietnam War : 1961~73
베트남 전쟁

- Cultural Revolution : 1966~76
문화혁명

- Park Chung-hee Regime : 1960~79
박정희 정부

- Chiang Kai-shek Regime : 1949~75
장제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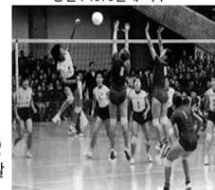


→ End of War: 1970s ~
종전 : 1970년대 이후

● Case of Korea :

한국의 경우

- 1953 End of Korean War
한국전쟁 휴전
- 1979 Assassination of Park Chung-hee
박정희 대통령 암살
-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MF)
아시아 외환위기(IMF)



1995~2020 : Decline and Crisis

● 1995 : Cold War → Globalization

- 1991.8.19 Collapse of Soviet Union
냉전 소련 붕괴
- 1993.7.18 Collapse of 1955 Regime
자민당 내각 붕괴
- 1995.1.17 Kobe Earthquake
고베 대지진
- 1995.3.20 Aum Shinri-kyo Incident
음진리교 가스 테러
- 1997.7- Asian Financial Crisis
아시아 외환 위기
- 2001.9.11 9/11 in US
미국 911테러



● After 1995: 25 years of Crisis

⇔ Expansion of ICT Industry in US
1995년 이후 25년 동안 위기
미 ICT 산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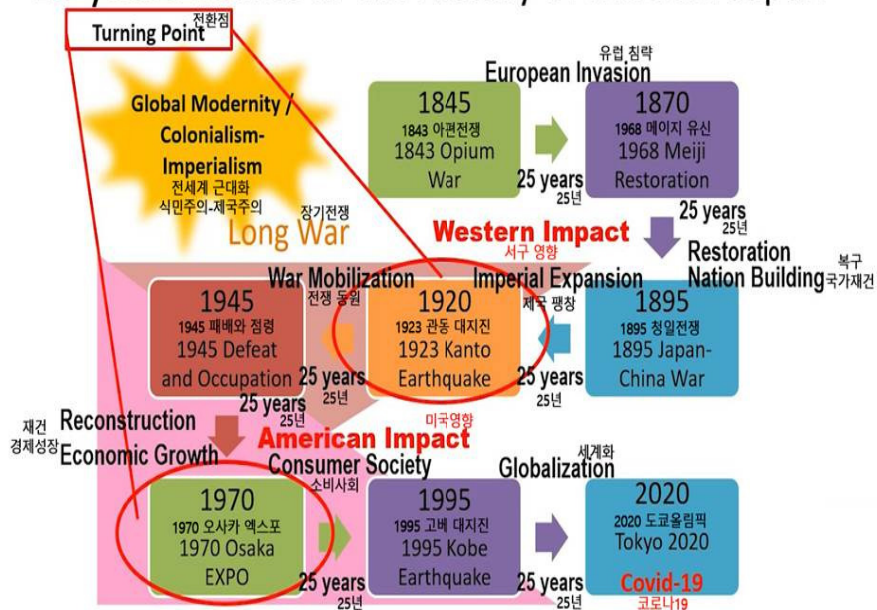
- Japanese Long Decline : Economy, Population
일본 장기 쇠퇴 : 경제, 인구
- Political Right Wing and Constitutional Revision
우파정치와 개헌
- 2011.3.11 3/11 in Japan
3/11 동일본 대지진
- Emergence of New Asia : China, India.....
아시아 신흥 시장 : 중국, 인도



2020

25 years scales in the History of Modern Japan

현대 일본사 25년의 척도



US/Europe: 1789, 1814, 1839, 1864, 1889, 1914, 1939, 1964, 1989, 2014
미국 / 유럽

2개의 수수께끼

Two Puzzles

1. Why 25 years ?

왜 25년인가?

← Two Answer: 1. Generation Interval

2개의 해답:

1. 세대간 주기

2. Kondratieff Wave

2. 콘드라티에프 파동

2. Why from mid-19th century?

왜 19세기 중반부터인가?

← History of Capitalism :

자본주의 역사:

1. Industrial Revolution

1. 산업혁명

2. World System

2. 세계체제

(In case of European History, 25 years cycles started from the late 18th century, or even from the late 15th century)

(유럽 역사의 경우, 25년 주기는 18세기 후반 또는 심지어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Chapter 3

GENERATION INTERVAL AND LONG WAVES

세대간 주기와 장기 파동

첫 번째 해답 : 세대간 주기

The First Answer : Generation Interval

● Brothers & Sisters:

형제 자매 :

within 10 years = living in the **same age**

10년 미만 동시대를 살아간 세대

● Parents and Children:

부모와 자녀 :

25~30 years = living in the **different ages**

1830년대 세대

25~30년 다른 시대를 살아간 세대

- **Generation of 1830s**: 坂本竜馬(1836)、高杉晋作(1839)、木戸孝允(1833)、伊藤博文(1841)、榎本武揚(1836)、三条実美(1837)、大隈重信(1838)、山縣有朋(1838) → **Revolution**

1860년대 세대

- **Generation of 1860s**: 森鷗外(1862)、二葉亭四迷(1864)、夏目漱石(1867)、正岡子規(1867)、幸田露伴(1867)、岡倉天心(1863)、黒田清輝(1866)、南方熊楠(1867) → **Modernization**

1890년대 세대

- **Generation of 1890s**: 芥川龍之介(1892)、吉川英治(1892)、西条八十(1892)、江戸川乱歩(1894)、宮澤賢治(1896)、大佛次郎(1897)、井伏鱒二(1898) → **Mass Culture and Critical Thought**

대중문화와 비판적 사고

세대간 주기와 안정성

Stability of Generation Interval

● Maternal Age= 25-30 stable

출산연령 = 25-30세로 안정적 추세

⇔ Radical Extension of **Life Span**

급격한 수명 연장

⇔ Shortening of **Birth Period**

출산기간 짧아짐

● Average Age of First Childbirth :

첫 출산 평균 연령 :

1955:25.1→1973:25.7

1955년:25.1세 1973년:25.7세

→2004:28.5→2013:30.4

2004년:28.5세 2013년:30.4세

≡ US:25.2 (2007)

미국:25.2세(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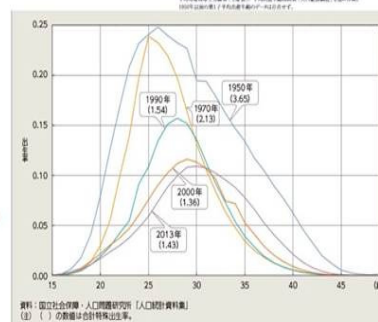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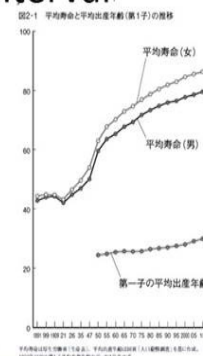
UK:27.4(2004)

영국:27.4세(2004년)

Stability of Maternal Age

From 17th century

17세기 이후 출산 연령 안정적 추세



The Second Answer : Kondratieff Wave

두번째 해답 : 콘드라티예프 파동

Kondratieff Wave (1925): Alternative Possibility of Revolution

콘드라티예프 파동(1925년): 혁명의 대안 가능성

➤ 50 years Cycle of Economy: **25 years** ↑ + **25 years** ↓

경제의 50년 주기:

25년 호황

25년 불황

(1)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 1789~1814 (25years) ←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 1815~1844 (30years) → 1848 Revolution 1848년 혁명

(2) National Development

국가발전

↑ 1844~1870 (26years) ← Napoleon III 나폴레옹 3세

↓ 1870~1896 (26years) → Division of Africa 아프리카 분할

(3) Total Mobilization

총동원

↑ 1896~1914 (18years) → World War I Kondratieff 제1차 세계대전 콘드라티예프

↓ 1914~1945 (31years) → World War II after Kondratieff 제2차 세계대전 콘드라티예프 이후

(4) Postwar Growth

전후 성장

↑ 1945~1973 (28years) ← Economic Development 경제발전

↓ 1973~1995 (22years) → Limit of Growth 성장한계

(5) ICT and Globalization

ICT와 세계화

↑ 1995~2020 (25years) ← ICT Revolution ICT 혁명

↓ 2020

~2045 (25years) → ???

Innovation and Kondratieff Wave

혁신과 콘드라티예프 파동

Development of Long Wave Theory

숨페티에 의한 장기파동 이론의 확장(1931)

by Schumpeter (1931)

● New Wave of 25 years ←

25년 새로운 물결

1. Big Project with Large Public Investments

대규모 공공투자가 수반된 대규모 프로젝트

2. Group of Innovations

혁신집단

3. Emergence of Frontier Market

프론티어 마켓의 등장

⇔ Increase of Followers

시장참여자 증가

= Saturation of Market

시장포화

→ End of Growth

성장 중단

● Long Cycle of 50 years: 50년 긴 주기:

1. 1785~1842 57 years of Crisis → Age of machine 기계시대

57년의 위기

2. 1842~1897 55 years of Expansion → Age of Railway 철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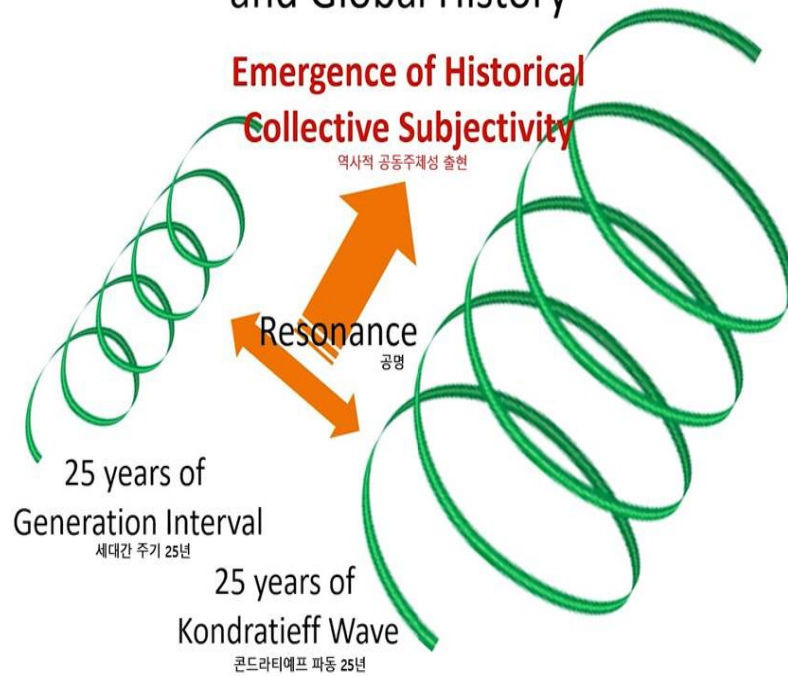
55년의 확장

3. 1897~1945 48 years of Imperialism → Age of Electricity 전기시대

48년의 제국주의

Resonance between Generational History and Global History

세대사와 세계사 간 공명



Chapter 4

500년 역사의 척도

500 YEARS SCALE OF HISTORY

25년 장기파동 / 500년 장기 지속

25years Long Waves / 500years Long D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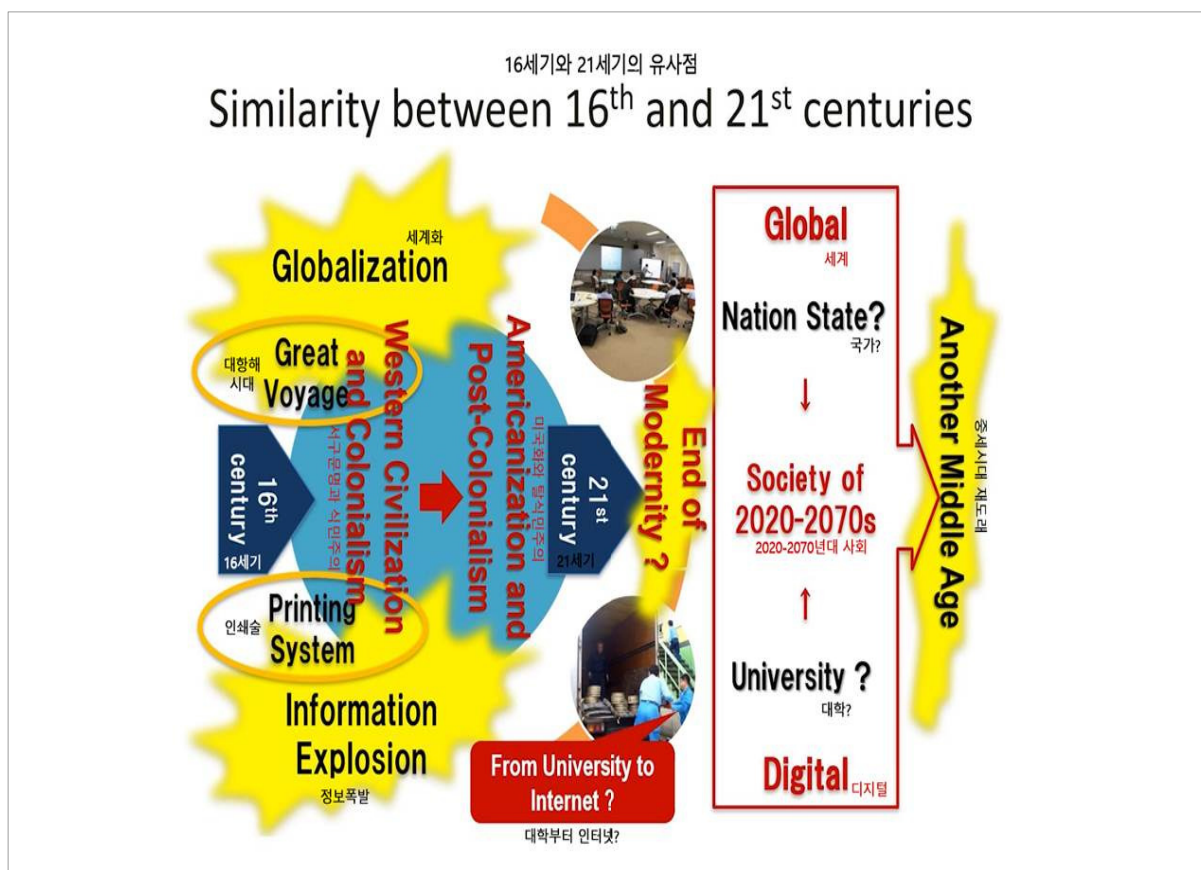
Modern World System of Long Duration

현대 세계 제재의 장기 지속

Immanuel Wallerstein ← Fernand Braudel 페르낭 브로델

: Historical Sociology of Kondratieff Wave 콘드라티예프 파동의 역사 사회학

Genova (=Spain) 제네바(=스페인)	(1) EXPANSION : 1509~1529 (20years) ⇔ Venice 베니스
	(2) STABLE : 1529~1639 (10years)
	(3) ESTABLISH : 1539~1559 (20years)
	(4) Decline : 1559~1575 (16years)
Netherlands 네덜란드	(1) EXPANSION : 1575~1590 (15years)
	(2) STABLE : 1590~1620 (30years)
	(3) ESTABLISH : 1620~1650 (30years)
	(4) DECLINE : 1650~1672 (22years)
UK 영국	(1) EXPANSION : 1798~1815 (17years) ⇔ France 프랑스
	(2) STABLE : 1815~1850 (35years)
	(3) ESTABLISH : 1850~1873 (23years)
	(4) DECLINE : 1873~1897 (24years)
US 미국	(1) EXPANSION : 1897~1920 (23years) ⇔ Soviet 소련
	(2) STABLE : 1920~1945 (25years)
	(3) ESTABLISH : 1945~1967 (22years)
	(4) DECLINE : 1967~1991 (23years)



Long 16th century : 1470-1620

긴 16세기 : 1470 - 1620

● 150 years of Expansion = Inflation of long 16th c.

150년 동안 확장 - 신 16세기 지속

➤ Population Increase in Asia and Europe

아시아와 유럽 인구 증가

⇔ American Continent : Death of Civilization = Disaster

미국 대륙 : 문명의 죽음 = 재앙

● China : 1368 ~ early 17th century ↑

중국

1368 ~ 17세기초

● Japan : late 15th century ~ late 17th century ↑

일본

15세기말 ~ 17세기말

● Europe : late 15th century ~ early 17th century ↑

유럽

15세기말 ~ 17세기말

➤ Asian Network in 15th century ← Establishment of Ming

15세기 아시아 네트워크

명나라 천성기

→ Japan: 義満, Korea: 李氏朝鮮, Okinawa and Vietnam: Integration

일본(요시미츠), 한국(조선), 오키나와와 베트남 : 통합

➤ Global Circulation of Silver ← Mexico, Peru and Japan

전 세계 은 유통

멕시코, 페루, 일본

➤ Expansion of Religious War between Islam vs Christianity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종교전쟁 고조

Long 17th century : 1620-1770

긴 17세기 : 1620-1770

Long 16th century : 긴 16세기 :

Age of Frontier, Paradigm Change, Radical Movement

and War (Spanish Conquer, Hideyoshi's Invasion to Korea....)

개척시대, 패러다임 변화, 급진운동과 전쟁

(스페인 정복,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 Long 17th century : 긴 17세기 :

Age of Contraction, Struggle against Decline,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Political Power

수축시대, 쇠퇴에 대한 투쟁, 정치권력의 안정과 통합

From Globalism to Regionalism

세계주의에서 지역주의로

➤ Tokugawa's Seclusion (鎖国)

도쿠가와이의 은둔

≡ similar tendency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향

➤ Decline of Silver Circulation = Economic Recession

은 유통 감소 = 경기 침체

➤ Decline of Trans-Regional Cultural Exchanges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쇠퇴

3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Three Alternative Possibilities of Future

Long 21st century (1970 – 2170) is

긴 21세기(1970~2170)

- Long 16th century of **Expansion**

긴 16세기 확장

Age of Globalism

세계주의 시대

- Long 17th century of **Decline**

긴 17세기 쇠퇴

Age of Regionalism

지역주의 시대

- Long 14th century of **Catastrophe**

긴 14세기 재앙

Age of Conjunction

국면 시대

Fall of Modernity (Johan Huijinga)

근대화의 몰락(요한 호이징가)

吉見俊哉(요시미 준야)

1957년 일본 도쿄 출생. 도쿄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도쿄대학 신문연구소 조교수, 사회정보연구소 교수를 거쳐,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사회학, 문화 연구, 미디어 연구이다. 저서로는 『시각도시의 지정학: 시선으로서의 근대』, 『포스트 전후사회』, 『친미와 반미: 전후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트럼프의 미국에 살다』, 『대예언: '역사의 척도'가 나타내는 미래』, 『전후와 재후의 사이: 용융하는 미디어와 사회』,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등이 있다.



우리의 섬

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



柯金源 거진위안
타이완 다큐멘터리 감독

우리의 섬 - 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

환경변화 기록의 시작

『우리의 섬 - 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은 1980년 생태환경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 후 2010년 출판 기획에 착수하여 수년 동안의 준비와 자료 정리 끝에 2018년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타이완인들이 나와 환경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이 타이완의 장기적인 환경변화를 살펴보는 실증 기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에는 각 시기 집권자의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성적표 또한 담겨 있습니다. 환경의 개선과 파괴는 정치적 정책 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이 책은 생태환경의 연구서이자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환경 기록의 맥락을 따라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간 환경변화를 수집한 자료인 이 책은 향후 환경과학 연구, 거버넌스, 정책 입안을 위한 비교 척도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외부 현장의 기록에서 목격한 국토 변화를 둘러싼 갈등

환경에 대한 기록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환경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법률에서부터 기층의 실천까지 환경변화의 심층적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 문제에는 많건 적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둘러싼 계산들과 정치계파의 움직임까지 더해져 환경 문제에는 과학적, 이성적인 논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 법리적인 분쟁 해결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역적인 환경 문제의 경우 현지 피해자들이 각성하고 단결해야만 환경오염의 주범과 대기업에 맞설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환경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라면 다수 국민이 참여해 여론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또한, 투표를 활용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구조를 타파하고, 정부의 권위적인 정책 결정에 대항해야 합니다. 2011년 있었던 빠칭(八輕) 석유화학공업지대 개발 반대와 2014년 원자력 발전 중단을 위한 사회운동 등등이 그 예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비애

현장을 기록하며 저는 하천 모래와 자갈의 불법 채취로 인해 다리와 강기슭이 침식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해안, 하구, 산지가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벌목, 불법 수렵, 해양보호지구의 불법 어획으로 보호종에 속하는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에서 폐수를 대량 배출하고 기준 이상의 배기가스를 배출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산비탈의 불법 남용, 무분별한 개간으로 수질과 토양이 파괴되어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농촌에 공장을 불법 건설하고 농지를 불법 개간하여 식량 생산 환경이 장기간 오염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기록하면서 분노와 비애를 느낌과 함께 조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집한 정보를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여론으로 압박하여 환경 파괴의 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타이완의 기후위기

타이완은 높은 산이 있는 섬나라입니다. 해양과 대륙의 2개의 판 사이에 존재해 지진과 태풍이 잦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지질이 연약하고, 급류가 많으며, 산지의 침식이 왕성합니다. 한편 독특한 지리적 위치, 지질, 기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을 갖추어 ‘아태 지역의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업화,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인해 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타이완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강우, 가뭄, 폭한 등 복합적인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기후 그룹의 ‘독일 모니터링’에서 2016년 각국 기상 데이터를 근거로 ‘세계기후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타이완의 기후 위험도는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안 국가 중 위험도는 세계 5위에 해당했습니다. 세계은행의 2005년 ‘자연재해 이슈-세계 위험도 분석 보고서’에서도 타이완이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큰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수 국제연구기구에서 다양한 위험모델 자료로 평가한 것을 보더라도 타이완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의 상승작용 및 생물다양성의 위기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인수공통 감염병학이나 전염병학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생물의 생장 주기가 영향을 받고, 각국의 생물 서식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야생 동식물이 남획되고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태계의 자연 운행 메커니즘이 균형을 잃고 만년이나 천년 단위였던 안정적인 계절학적 사이클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상업 흐름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져 인류는 각종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의 사스 바이러스는 팬데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변이가 계속되고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공황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연 조사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구온난화와 극단기후로 인해 일부 생물종의 분포 지역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솔송나무 숲이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해발고도가 낮은 안개숲지대(霧林帶)에 분포하던 사이프러스 숲에는 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삼림 환경이 바뀌면서 삼림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가는 각종 생물이 향후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삼림의 환경적 재난에 대한 인식

숲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는 경제 모델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타이완의 숲 생태환경은 1990년대 이전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어 1990년 이후 대형 산사태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마을이 하룻밤 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토사 침적으로 저수량이 줄어 저수 및 물 공급 기능이 어려워졌습니다. 2012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년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환경과 관련해 물, 식량, 에너지가 핵심 의제로 꼽혔습니다. 그중 숲은 수원을 보전하고 토양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숲이 파괴될 경우 식량 생산과 수자원 분배에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에 더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목재 생산이나 탄소 격리의 역할뿐 아니라 수많은 부생식물이 자라는 공간이고 각종 생물에게 양분과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인류 역시 나무에서 신선한 공기와 약품의 원료를 얻고 식품 또한 공급받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의 독립된 소우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소우주가 한데 모여 거대한 숲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숲의 생태적 가치가 저평가되면 전세계의 숲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숲의 붕괴되고 환경적 재난이 덮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영속성을 위한 인류의 노력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을 완벽히 막기 어려운 인간세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의 경제 발전 모델을 벗어나 환경의 영속성이 가지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각종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에너지, 수원, 식량 위기가 닥쳐올 것임을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극단기후로 인해 대대적인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자원이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양과학자들은 2048년이면 바다에서 모든 어종이 멸종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니, 이는 인류의 식량 자원이 대량 감소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소비로 인해 생물종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소비행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경이 파괴될 수 있고

오염이 가속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비 행위와 환경보호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탄소 발자국과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풍력에너지와 태양광이 화석연료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생태환경 전체로 보면 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자원 보호에 힘쓰고 안전한 식량 생산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류의 지속과 번영이 가능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인간 문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거진위안 소개

1980년대부터 환경생태환경 조사, 글쓰기, 사진촬영 및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40여만 장의 환경 기록 사진과 500여 편의 특집 기사, 5권의 전문 서적과 40여만 자에 이르는 대만 환경 조사 관련 자료를 남겼다. 또 인문 다큐멘터리, 환경관련 언론사 특집 보도, 장편 다큐멘터리 등 디지털 작품도 다수 제작하였다. TV 금종상 9회, 촬영상, 비드라마 부문 연출상 4개, 대만 지속가능 언론사진상, 타이베이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미국 몬태나 영화제 최우수 방송프로그램상, 금정상(金鼎獎)-비문학도서상, 우수저널리즘상-뉴스부문 특수공로상, TIDF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콩쿠르-걸출공로상, 국가문예상-영화부문상 등 국내외에서 100여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작품 연표

(다큐멘터리): 29편

2000 - 단층에서 보내온 소식 News from the Fault Line

2002 - 오추(烏坵) ROC

2003 - 아모르고스 Amorgos

2004 - 마카크 원숭이 열전Biographies of the Macaques,

2004 - 산호의 기억 Corals in memory

2005 - 프라타스 섬을 향해 A Pratas Island Journey,

2005 - 하늘만큼 땅만큼 Beyond Heaven&Eeyond Heaven&Earth,

2005 - 마카크 원숭이의 전쟁과 평화 Monkey war and peace (공동 연출)

2006 - 산실 Squid Daddy's Labor Room

2007 - 파라다이스 Paradise Way (흔들림 전기)

2008 - 남극으로 전진 Our Antarctic Dream

2009 - 꿈의 정상 Peak of Dreams,

2009 - 절정 Extreme Ascent

2010 - 산림의 노래 Song of the Forest,
2010 - 흔들림 swinging
2010 - 포르모사 대 포르모사Formosa&Formosa
2011 - 썰물 Ebb and Flow,
2011 - 해안 군상 Faces by Intertidal
2013 - 공습경보Take my breath away,
2013 - 블랙Black Tears of the Land
2014 - 여생을 함께 여행하다 Dive With You (1,2부 이부작)
2015 - 생명수 Water Is Life,
2015 - 물의 전쟁 The Fight for Water,
2015 - 암류Undercurrent
2016 - 바다 Ocean
2017 - 태평도 Itu Aba Island
2018 - 전진 The Age of Awakening
2019 - 신전 Sacred forest
2019 - 전나무숲(공동제작)
2020 - 평안거북 May Sea Turtles be with You ... Always

(촬영 작품 및 대표 저작물):

1990년 03월 - 「생각의 표상」 - 첫 번째 개인사진전 - 타이베이 형창(恆昶) 갤러리
1994~2006년 - 「대만 기록」 - 차이쑤(財訊) 칼럼
1998년 12월 - 「안녕 바다」 - 개인사진전 - 타이베이 사진 갤러리
2000년 04월 - 「해양 대만」 - 개인사진전 - 대만 국립해양생물박물관
2002년 12월 - 「산메이 - 타나이계곡의 전설」 전문서적 - 대만 교육부 어린이 도서출판
자금관리위원회 출판
2003년 12월 - 「대만 수자원의 맥락」 전문서적 - 범아시아국제문화 출판
2006년 03월 - 「우리의 섬」전문서적 - (커진위안, 예이쥘 공저) 위산사 출판
2018년 01월 - 「우리의 섬-타이완의 30년 간 환경변화에 대한 기록」 - 위청 출판

(관련 링크)

환경영상 라이브러리

<https://www.flickr.com/photos/kechinyuan>

YouTube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xCVrUl9vMVaqqLxmOt6yBg>

facebook환경의 들 다큐멘터리 팬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7%92%B0%E5%A2%83%E7%94%B0%E9%87%8E%E7%B4%80%E9%8C%84-232029673502245>

개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inyuan.ke>

IG

<https://www.instagram.com/kechinyuan/>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홍콩 출판 사례



李偉才 리웨이차이

작가/前홍콩 천문대 선임 과학관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한 홍콩 출판 사례

1970년대 초반에는 ‘환경주의’와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자연 보호” 및 “야생 동물 보호”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 사용된 용어는 “온실 효과”였다.

그러나 거의 반세기 전 그 당시에도 과학자들은 우리가 대기 중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면 지구는 언젠가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권과 거의 섭씨 400도에 달하는 지옥 같은 표면 온도를 가진 두 번째 금성으로 변할 것이라 주장했다.

저는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다가 Tim Flannery가 쓴 “Weather Makers” 책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더 이상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깨달았다. 이 책은 우리 앞에 이미 닥친 위기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의 가혹한 환경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저는 2006년부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홍콩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강의는 물론 기사를 쓰고 신문과 잡지에 인터뷰도 하고, 과학관과 공공 도서관에서 공개 강연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환경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한 후, 1년여의 땀과 노력 끝에 드디어 『69억 마리의 개구리를 깨우다—지구온난화 내막의 폭로(喚醒 69 億隻青蛙—全球暖化內幕披露)』(經濟日報出版社)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책을 출간하고, 공개강의와 언론인터뷰 외에 ‘350 홍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 행진을 펼쳤다. 이 조직은 실제로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350.org”의 일종의 자회사이다. 홍콩 기후 행진은 세계 기후 행진 캠페인의 일부였으며 파리 기후 회의 직전인 2015년 11월 29일에 실시되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 “350 HK”는 입법회 선거를 위한 기후 도전을 시작했다. 이 도전에서 260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설문지를 보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기자회견과 거대한 풍선 소품이 있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퍼레이드를 펼쳤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위험한 삶의 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전체 이벤트를 취재했다.

그 이후로 2017년 초에는 홍콩의 모든 대학에서 화석연료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년 초 CEO 선거를 위한 기후 도전을 시작했으며 고등학생을 위한 기후 리더십 훈련 캠프를 조직하고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른 환경 단체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부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최근에 저는 Enrich Culture라는 지역 출판사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STEM에 관한 일련의 책을 쓰도록 초대받았다.

먼저 교통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책을 막 완성했고 식품의 미래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책에서 나는 우리의 운송 시스템에서 탄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두 번째 책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식량 생산 시스템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제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토론하기로 선택한 어떤 주제와도 점점 더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해졌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을 예로 들어 보면,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불균형이 모든 곳에서 악화되고 시베리아의 툰드라가 해빙되고 고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방출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교육과 정치인의 교육에서 출판 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는 인터넷 기사가 좋은 책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순한 논리는 우리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미래에 말할 출판 산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뜨거운 더위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 붕괴와 문명이 야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운이 좋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무도 새 책을 읽을 시간과 에너지가 없을 것이다.

과장이 아니다. 20세기 초반 이후 지구의 온도가 1.2도 정도 상승하자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무시무시한 폭염과 산불, 홍수로 몸살을 앓았다. 유엔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화석 연료(석탄,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세기말까지 5~6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인류 문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과학 작가 Mark Lynas가 쓴 “우리의 최종 경고 - 6단계 기후 비상 사태”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역사를 통해 서점과 도서관은 인류의 축적된 지혜의 보고였다. 위험한 급류와 앞에 있는 거대한 폭포를 헤쳐 나갈 지혜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이다. 출판업계가 이 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李偉才(리웨이차이)

1955년 홍콩 출생. 홍콩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과학사회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홍콩 우주관 부관장, 홍콩 천문대 과학 책임자, 홍콩대학 전문 및 평생 교육 학교 선임 연구 개발 책임자(1999)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3분 우주: 현대 과학의 새로운 이론』, 『생물학적 신유: 우주 파동의 두 가지』, 『반전경제학』, 『자본충동』, 『69억 마리의 개구리를 깨우다: 지구온난화 내막 폭로』 등이 있다.

세션3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각국 출판의 동향



01.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표정훈)
02. 기후 감수성(박혜진)
03.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평향 출판인의 인식과 공헌(徐海 쉬하이)
04.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신서(落合勝人 오치아이 가쓰토)
05. 팬데믹 이후 출판계의 미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만 출판 및 독서의 가능성
(胡金倫 우캄룬)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



표 정 훈
출판평론가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

(1) 통계 분석

① 2021년 상반기 발행 종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이 교보문고, 예스24,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발행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한국의 신간도서 발행 종수는 총 39,150종으로 전년 동기(2020년 상반기)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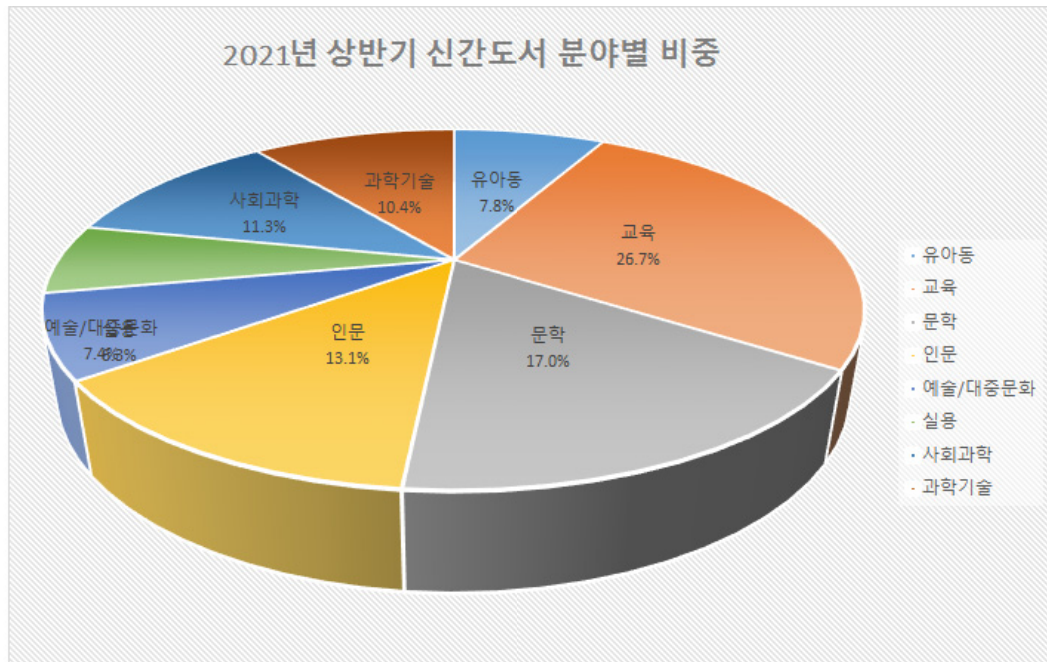
2년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종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위축되었던 출판 생산 활동이 2021년 상반기에 미세하나마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회복 추세가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유아동	3,267	4,070	3,811	3,830	3,058
교육	13,291	9,855	10,016	9,331	10,443
문학	6,984	8,013	6,637	7,992	6,672
인문	5,683	5,734	5,301	6,009	5,118
예술/대중문화	1,653	2,111	2,013	2,019	2,882
실용	2,778	2,372	2,271	2,484	2,476
사회과학	5,303	4,028	4,394	3,822	4,433
과학기술	3,574	2,999	3,771	3,023	4,068
합계	42,533	39,182	38,214	38,510	39,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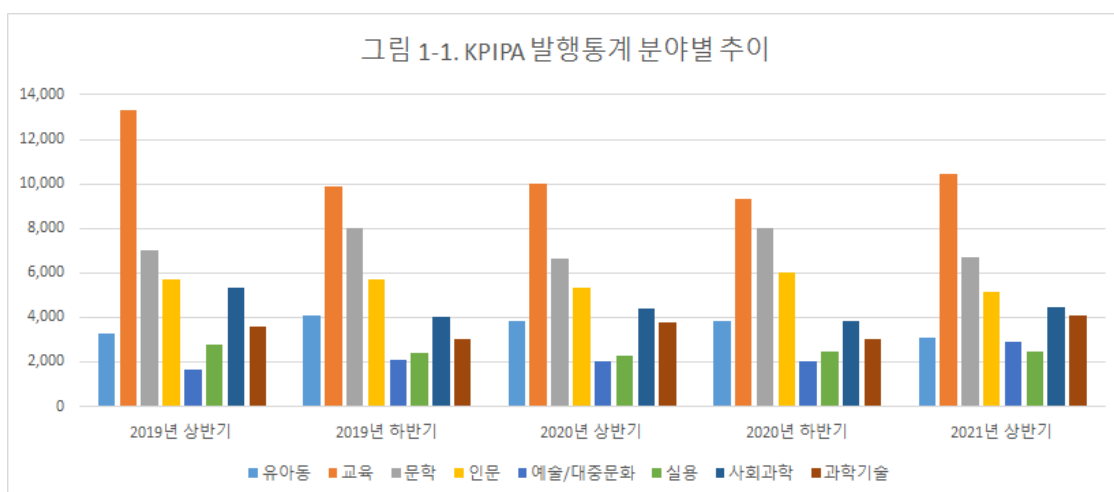
② 2021년 상반기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

2021년 상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에서 유·아동 분야는 19.7%p 감소, 교육은 4.3%p 증가, 문학은 1.0%p 증가, 인문은 3.4%p 감소, 예술/대중문화는 43%p 증가, 실용은 9% 증가, 사회과학은 0.8%p 증가, 과학기술은 7.8%p 증가로 나타났다. 유·아동 분야와 예술/대중문화 분야의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아동 분야는 전년 동기 3,811종에서 2021년 상반기 3,058종으로 19.7%p가 감소했다. 예술/대중문화는 전년 동기 2,013종에서 2021년 상반기 2,882종으로 43%p 증가했다. 그밖에 문학·인문·사회과학 등이 상대적으로 발행 종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용·과학기술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늘었다.



2021년 상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신간 도서 발행 분포(비중)는 유·아동(-2.2%p)과 문학(-0.3%p), 인문(-0.8%p), 사회과학(-0.2%p) 부문이 감소했다. 과학기술(+0.5%p), 교육(+0.5%p), 예술/대중문화(+2.1%p), 실용(+0.4%p) 등은 증가했다.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감 폭이 큰 분야는 2.2%p 감소한 유·아동과 2.1%p 증가한 예술/대중문화다. 유·아동과 예술/대중문화는 발행 종수 측면에서나 신간 발행 분포 비중 면에서나, 2021 상반기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동을 보인 분야라고 하겠다.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유아동	7.7	10.4	10.0	9.9	7.8
교육	31.2	25.2	26.2	24.2	26.7
문학	16.4	20.5	17.4	20.8	17.0
인문	13.4	14.6	13.9	15.6	13.1
예술/대중문화	3.9	5.4	5.3	5.2	7.4
실용	6.5	6.1	5.9	6.5	6.3
사회과학	12.5	10.3	11.5	9.9	11.3
과학기술	8.4	7.7	9.9	7.8	1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년 동기 이후 1년 정도 기간에 걸친 변동 수치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서 분야를 둘러싼 환경 변화까지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 요컨대 막연한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예컨대 발행 종수 43%p가 증가한 예술/대중문화는, 집합적으로 이뤄지던 예술/대중문화 향유 기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 이후 여의치 않게 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술/대중문화에 관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책이 나올 수 있는 역설적 환경이 조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아동 분야 발행 종수의 19.7%p 감소는 몇 년에 걸친 해당 분야 통계를 보더라도 그 폭이 큰 편이다. 이것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속단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 반기 혹은 후년 동기의 발행 종수가 나와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한편 문학·인문·사회과학 등이 상대적으로 발행 종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용·과학기술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출간 종수가 적은 출판사들이 발행 종수를 줄인 것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신간도서 발행분포

상위 분류	기본 분류	기본 분류 기준 구성비			상위 분류 기준 구성비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상반기	증감	상반기	상반기	증감
유아동	유아	4.1	4.2	0.6	10.0	7.8	- 2.2
	아동(어린이)	5.9	3.6	1.7			
교육	초등학습	4.5	3.6	-0.7	26.2	26.7	0.5
	중고학습	4.5	4.2	-1.1			
	외국어	2.2	2.8	-0.3			
	취업/수험서/자격증	15.1	16.0	-2.8			
문학	소설	7.8	6.9	-0.5	17.4	17.0	- 0.4
	시/에세이/희곡 등	9.6	10.2	1.5			
인문	철학/심리	2.7	2.3	0.6	13.9	13.1	- 0.8
	역사/문화	2.3	2.3	0.0			
	종교	6.3	5.5	0.0			
	기타 인문학	2.6	2.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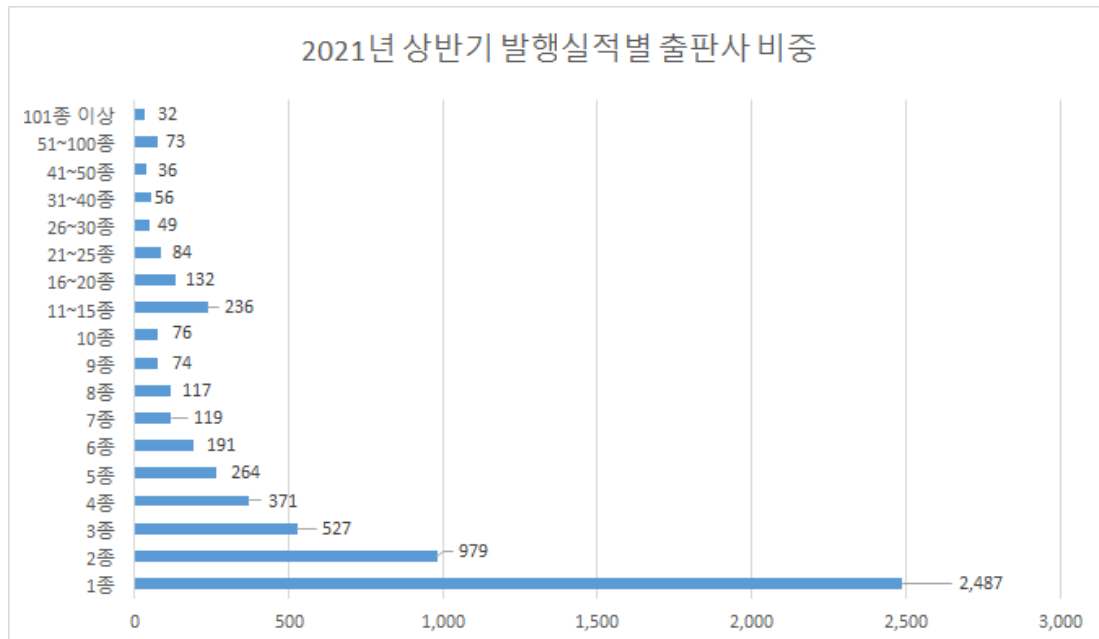
상위 분류	기본 분류	기본 분류 기준 구성비			상위 분류 기준 구성비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상반기	증감	상반기	상반기	증감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5.3	7.4	1.4	5.3	7.4	2.1
실용	자기계발	1.7	2.2	-0.2	5.9	6.3	0.4
	가정/생활	0.9	1.1	0.3			
	요리/취미	1.2	1.2	-0.2			
	건강/스포츠/레저	1.3	1.4	0.0			
	여행	0.8	0.5	-0.4			
사회과학	정치/사회	6.6	5.9	-1.0	11.5	11.3	- 0.2
	경제/경영	4.9	5.4	0.0			
과학기술	IT/컴퓨터	2.1	2.5	0.2	9.9	10.4	0.5
	자연과학	1.2	1.5	-0.1			
	기술공학	6.5	6.4	1.3			
합 계		100.0	100.0	-	100.0	100.0	-

③ 2021년 상반기 출판사 발행 실적 추이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전년 동기인 2020년 상반기 5,713개에서 2021년 상반기에 5,903개로 3.3%p 증가하였다. 출판사 숫자로는 190개 증가한 수치다.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위축되었던 출판 생산 활동이 2021년 들어와 미세하게나마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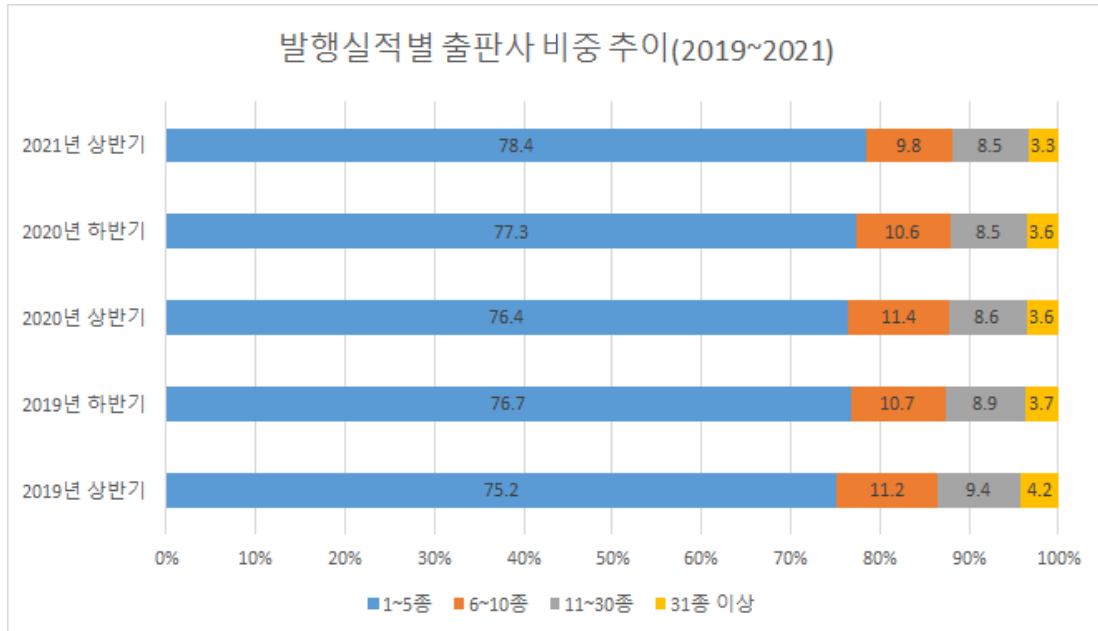
	출판사 수	구성비
1종	2,487	42.1
2종	979	16.6
3종	527	8.9
4종	371	6.3
5종	264	4.5
6종	191	3.2
7종	119	2.0
8종	117	2.0
9종	74	1.3
10종	76	1.3
11~15종	236	4.0
16~20종	132	2.2
21~25종	84	1.4
26~30종	49	0.8
31~40종	56	0.9
41~50종	36	0.6
51~100종	73	1.2
101종 이상	32	0.5
	5,903	100.0



발행 실적 구간별로 보면 반기별(하반기 기준) 5종 이하의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의 분포 구성비가 전체의 76.4%(2020년 상반기)에서 78.4%(2021년 상반기)로 증가한 반면, 6~10종 발행 출판사는 11.4%에서 9.8%로, 11~30종 발행 출판사는 8.6%에서 8.5%로,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는 3.6%에서 3.3%로 각각 감소했다.

구성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출판사 수 증감률로 보면 1~5종 출판사 6%p 증가, 6~10종 출판사 11.2%p 감소, 11~30종 출판사 2.0%p 증가, 31종 이상 출판사 3.9%p 감소로 나타났다.

발행종수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1~5종	75.2	76.7	76.4	77.3	78.4
6~10종	11.2	10.7	11.4	10.6	9.8
11~30종	9.4	8.9	8.6	8.5	8.5
31종 이상	4.2	3.7	3.6	3.6	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간 도서 발행 실적별 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기별 1종 발행 출판사는 2019년 2,325개사(점유율 40.3%)에서 2020년 2,386개사(42.2%)로 증가했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2,487개사(42.1%)가 되었다.

소품종소량을 생산하는 출판사들이 느는 반면, 다품종 생산 출판사들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출간 종수를 줄이는 것으로 대처하는 출판사들, 그러니까 출판 생산 활동에 매우 신중하게 임하는 출판사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

발행종수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증감률(%)
1~5종	1종	2,385	41.7	2,487	42.1	4.3
	2종	902	15.8	979	16.6	8.5
	3종	509	8.9	527	8.9	3.5
	4종	337	5.9	371	6.3	10.1
	5종	234	4.1	264	4.5	12.8
	소계	4,367	76.4	4,628	78.4	6.0
6~10종	6종	199	3.5	191	3.2	- 4.0
	7종	161	2.8	119	2.0	- 26.1
	8종	106	1.9	117	2.0	10.4
	9종	98	1.7	74	1.3	- 24.5
	10종	86	1.5	76	1.3	- 11.6
	소계	650	11.4	577	9.8	- 11.2

발행종수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증감률(%)
11~30종	11~15종	236	4.1	236	4.0	-
	16~20종	136	2.4	132	2.2	- 2.9
	21~25종	70	1.2	84	1.4	20.0
	26~30종	49	0.9	49	0.8	-
	소계	491	8.6	501	8.5	2.0
31종 이상	31~40종	62	1.1	56	0.9	- 9.7
	41~50종	31	0.5	36	0.6	16.1
	51~100종	73	1.3	73	1.2	-
	101종이상	39	0.7	32	0.5	- 17.9
	소 계	205	3.6	197	3.3	- 3.9
합 계		5,713	100.0	5,903	100.0	3.3

(2) 출판계 주요 동향

① 공감, 감동, 일상적 관계에 대한 욕망

2020년 7월에 첫 출간되어 2020년 주요 서점 종합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랐던 이미예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2021년 상반기에도 인기를 이어갔다. 예스24 서점의 경우 작년 10월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뒤 30주 연속 종합베스트셀러 10위권 이내에 머물렀다. 교보문고도 자체 ‘2021년 상반기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에 따르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1위를 기록했다.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상상력에 바탕을 둔 스토리로, ‘어른을 위한 힐링 판타지 소설’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떤 극적인 줄거리나 갈등, 로맨스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도 받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이어지면서 일상적 관계와 공감에 그 어느 때보다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깊이 다가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돌아온 ‘정치의 계절’

정세균의 『수상록』(4월), 박용진의 『박용진의 정치혁명』(4월), 조국의 『조국의 시간』(5월), 이낙연의 『이낙연의 약속』(5월), 황교안의 『초일류 정상국가』(6월), 추미애의 『추미애의 깃발』(7월), 김두관의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7월),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 깨기』(7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 당내 경선에 펼쳐지면서, 해당 정치인들의 저서나 관련 도서가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조국의 시간』이 상반기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다른 저자가 쓴 관련 도서가 상반기에만 7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 저서 및 관련 도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이 예년과 다른 것은 코로나19 확산 유행 탓에 대규모 출판기념회 행사를 열지 못한다는 점이다.

③ ‘파이어족’에 대한 전망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자유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자산 상태를 뜻한다. 젊었을 때 임금을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주식·부동산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노후자금을 빨리 확보해,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도서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밍키언니의 돈 계획: 2030 파이어족을 위한』, 『파이어족의 재테크』,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파이어족을 위한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등처럼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재테크 안내서들이다.

둘째는 재정적 준비도 다루긴 하지만 보다 종합적으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심리적 자세까지 안내하는 책이다. 『마흔,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가 대표적이다.

④ 주식·부동산 실용서

‘재테크셀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1년 상반기 출판시장의 분명한 트렌드는 주식투자과 부동산, 비트코인 등이었다.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2020년에 이어 꾸준히 이어졌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나의 첫 투자 수업』 등이 주식 투자 안내서로 주목받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돈의 시나리오』, 『돈의 심리학』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등처럼 돈과 재테크의 기본 마인드와 속성, 자세 등을 일깨우는 책들도 꾸준히 주목받았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월급쟁이의 첫 부동산 공부』,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등, 부동산 투자 안내서들도 많은 독자들이 찾았다.

이렇게 ‘월급쟁이’라는 말이 여러 책 제목에 나온다는 것이 시사적이다. 월급에 의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오던 많은 이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당혹해하고 또 좌절하였다. 월급에 의지하여 자산 증식을 추구해오던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새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재테크셀러에 대한 관심은 자산 시장 변동과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지금과 같은 재테크셀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⑤ 직업 에세이의 새로운 변화

이른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도배사로 일하는 청년이 쓴 『청년 도배사 이야기』,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무역회사를 창업했으나 실패하고 수도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저자가 쓴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쓴 『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각각 전철역 미화원과 건설 현장 노동자가 쓴 『나는 밤의 청소부입니다』, 『노가다 칸타빌레』 등 직업 에세이들이 주목받았다.

과거 직업 에세이는 의사·기업인 등 사람들이 선망하는 고소득 전문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썼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를 필두로 직업의 귀천에 대한 선입견이 약해지면서, 훨씬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야기가 에세이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 에세이들은 부분적으로는 실용서 구실도 한다. 저자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매우 구체적인 직업 세계를 독자들에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직업 에세이는 저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성격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⑥ 팬데믹 상황이 직접적으로 출판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작가와 출판사가 책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강연, 사인회, 북토크 등 행사를 열기 힘들어졌다. 작가들은 강연을 통한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온라인 비대면 강연이나 행사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해외도서전에서 책을 프로모션하거나 저작권 관련 비즈니스를 펼치기도 어려워졌다. 국내 도서전도 예전과 같은 규모로 열리기는 힘들었다. 책, 출판, 독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접촉하고 교류하며 대화하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출판계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대란이 국제 펄프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종이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출판용 주요 용지 가격이 2021년에 들어와 평균 25%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펄프 지수는 작년 말 142.5에서 올해 9월 207.8로 46%나 올랐다. 그렇다고 종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작 원가 상승분을 곧바로 책값에 반영시킬 수도 없다는 데 출판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종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판계의 타격은 한국 출판계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독일에선 주요 출판사들이 연말까지 도서 인쇄가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⑥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출판계의 움직임

온라인 서점 알라딘 검색을 통해 보았을 때,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 사이 출간된, ‘기후위기’라는 말이 제목이나 부제목에 들어 있는 책은 70종이었다. 이 70종 가운데 2019년 이후에 출간된 책이 63종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출간된, ‘기후변화’라는 말이 제목이나 부제목에 들어 있는 책은 367종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 이후에 출간된 책이 78종이었다.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를 합하면 모두 437종이며, 이 가운데 2019년 이후 출간된 책이 141종이었다. 이것을 비율과 함께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 부제목 / 기간	2007~2018	2019~2021	2007~2021
기후위기	7종	63종 (90%)	70종
기후변화	289종	78종 (21.2%)	367종
기후변화 · 기후위기	296종	141종 (32.2%)	437종

물론 오래 전에 나온 책일수록 절판이나 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서점에서 더 이상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7년~2021년 기간에 나온, 제목 · 부제목에 ‘기후위기’가 들어 있는 책의 90%가 지난 3년 동안 출간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 역시 ‘기후위기’보다는 덜하지만 지난 3년 동안 21.2%가 출간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라는 말의 차이다. ‘기후변화’를 분명한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비교적 최근에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2018년 기간 ‘기후위기’ 7종, ‘기후변화’ 289종이었던 것이 지난 3년 동안 ‘기후위기’ 63종, ‘기후변화’ 78종으로 바뀐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조사만으로도 한국 출판계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련 도서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또 번역 소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 감수성



박혜진

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 팀장

기후 감수성

1. 소설의 몫

기후위기 문제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연대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 활동가나 전문가들에게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에너지정책이나 국가간 외교와 같이 영향력 있는 해결 방안들이 공감이나 연대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 방식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의 기후 감수성이다. 기후위기로부터 발생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을 일컬어 ‘기후정의’라고 한다. 기후정의는 원인을 제공한 국가 혹은 주체와 피해를 감수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사이의 문제를 직시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기후정의는 어떻게 생겨날까. 문제는 감수성이다. 기후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후 감수성’이다. 이 글에서 나는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태도와 정서를 ‘기후 감수성’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0일 한국의 롯데콘서트홀에서는 ‘2050 비발디 사계’라는 주제의 클래식 공연이 있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회사 ‘아카(AKQA)’가 작곡가 휴 크로스웨이트(Hugh Crosthwaite),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나쉬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허브와 함께 미래의 기후에 맞게 편곡한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브라질, 케냐 등이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2050년의 날씨를 추론하고 그러한 날씨 속에서의 사계를 통해 ‘사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감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공연을 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일관된 것은 ‘직관적’이라는 것이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미래’는 물론이고 당장 일주일 뒤를 상상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은 인간에게 2050년의 지구를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은 과거마저도 자의적으로 기억하는 존재가 아닌가. 경험하지 않은, 더욱이 자신만의 일이 아닌 미래를 걱정할 수는 있어도 상상할 수는 없다. 상상의 불가능성에서 기후위기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 따르는 근원적이 어려움이 도출된다. 음악은 공통의 언어이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영역과 기후위기라는 문제의식을 보다 대중적인 차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음악이라는 예술이 결합했을 때 기후위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직관적’ 설득력의 부재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프로젝트로 『대혼란의 시대』라는 책의 출판이 있다. 『대혼란의 시대』는 1956년 인도 콜카타에서 태어나 사회인류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인도와 미국을 오가며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미타브 고시의 책이다.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이다.’라는 부제와 같이 이 책은 기후위기 문제가 그 심각성과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는 우리 사유가 왜 기후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과도 다르지 않다. 문학은 인간 사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위기 문제는 전례가 없는 문제로, 우리의 관습적 사고방식이나 상상의 방식과 불화한다.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폭풍우나 토네이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 문학(순문학)’으로서의 소설이 다루기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따라서 판타지나 sf, 혹은 cli-fi 소설이라고 별도의 명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문학 분야의 작가들은 정말로 왜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그 이유를 일상의 중요성, 작은 일상에서 감지되는 균열의 미학이 발전된 현대 문학의 경향에서 찾는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현대 문학의 주제로 터부시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은 목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등장하고 있는 문학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들이 어떻게 기후 감수성을 만들어 내는지,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온 인간 사유의 회로에 어떤 방식의 다른 길을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어질 글에서 다룰 소설은 김기창의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과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사만타 슈웨블린의 『피버 드림』이다. 세 작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후 문제에 접근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기후위기라는 소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밤의 여행자들』은 기후위기가 발생시키는 문제와 이 문제를 가져온 시대에 대한 이념을 파헤치고 전복한다는 점, 『피버 드림』은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차원을 서스펜스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최근 출판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표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고마운 소설에서 문학사에 남을 소설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올해 봄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편집했다. 이 소설집의 서문에 정용준 작가의 글을 수록했다. 평소 기후위기와 관련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온 터였다. 그의 글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 번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비하고 무력하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도 계속하면서 해냈다. 높은 산도 그렇게 올랐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도 더러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부족했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소소한 실천 말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때 이 책을 만났다. 소설을 귀하다고 해도 될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설은 ‘귀하고 고마운’ 무엇이다. 아직 문학적 판단을 할 수 있지는 않을 만큼 그 수가 미비하여 세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오늘날 전 인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기후변화를 테마로 쓴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이상 기후에서 촉발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그린다. 기록적인 폭염, 급증하는 태풍, 이상 고온 현상,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 반 년 가까이 지속되며 숲 면적의 14퍼센트를 태운 호주 산불... 몇 년 사이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하고 잦아지는 양상으로 우리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얼음 나라의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자 지금 당장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막막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소설은 시작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르케스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제목을 차용한 것으로, 10편의 단편소설을 수록한 이 책은 ‘기후변화’를 테마로 한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은 장르소설이나 순문학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다양한 소설들이 오직 ‘기후변화’라는 테마로 묶여 있다. 사실주의소설, 알레고리소설, sf 소설을 넘나드는 10편의 작품들로 묶여 있는 이 책의 가치는 ‘기후위기’ 문제를 ‘소설화’했다는 데에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희생되지 않았다. 형식의 다양성이 그것을 말해 준다. 소설집에 수록된 10편의 작품 중 3편은 ‘돛시티 세계관’을 공유한다. 돛시티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기후 안전 도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돛시티 행정부는 산아제한 같은 인구 조절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추방 대상을 골라내는 데 몰두한다. 인종, 민족, 종교, 재산, 교육 수준, 전과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추방을 비롯해 돛시티 진입에 수반되는 엄격한 내부 절차가 그 빈자리를 메운다. 돛시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땅굴을 파는 사람들,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 경계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돛시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사고는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의 양상을 계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여 준다. 이는 기후변화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이자 불평등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한편 세 편의 소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리얼리티에 기반한다는 환경운동가 커플의 사랑과 이별. 우석과 희연은 15년 전 환경단체에서 만났다. 이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한 일을 하며 두 사람은 울산으로 이사한다. 울산 태화강 십리대 숲의 아름다움처럼 두 사람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 작은 틈은 점점 벌어지고,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다. 희연이 서울로 떠난 뒤 울산에 혼자 남은 우석은 각종 비판에 맞서 가며 캠페인을 지속한다. 「지구에 커튼을 쳐 줄게」 역시 기후위기가 심화된 시점을 배경으로 하지만 지극히 사실적이며 차라리 현재라 부를 수 있을 미래다. 용희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의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이다. 청춘을 모두 반납하며 5년 동안 시험에만 매달린 끝에 얻어낸 자리이지만 막상 달라진 건 없다. 민원실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기막힌 사연으로 가득하지만 용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느 날 용희는 민원실을 찾아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사라지는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간다. 한편 그의 집이 무허가 증축된 건물들 사이 옥탑인 용희의 집은 들끓는 태양을 피할 수 없다.

김기창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 출간된 이후 언론은 “기후위기가 촉발한 인간사에 초점을 맞춰 쓴 열 편의 소설을 모은 최초의 책”을 일컬어 “한국 문학사에 남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했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작가가 그동안 쓴 소설 『모나코』나 『방콕』은 소위 ‘주류문학’의 틀에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순문학과 기후위기의 만남. 감각의 차원과 윤리의 문제를 주제 의식으로 승화시킨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날씨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그 묘사들은 한결같이 낯선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피는 나뭇잎으로 머리를 가린 채 몸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피부가 익어 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는 표현은 폭염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다놓는다. “커튼을 치고 자지 않으면 따가운 아침 햇살에 피부가 그을릴 듯”하다거나 “낮 동안 부글부글 끓은 옥상 바닥에서 흘러내린 열기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문장 역시 순식간에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생생한 묘사로 독자의 피부 위에 내려앉은 이 고통은 기후변화 문제가 계급과 불평등을 넘어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임을 환기한다. 이 책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연인, 돛시터 밖으로 추방된 연인을 따라가지 못해 남은 생을 죄책감과 회한에 사로잡혀 보내는 남자, 한없이 굴을 파고 하염없이 탑을 쌓는 연인. 특히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절박하고 비참하게 순간을 버텨 내는 북극곰 가족 이야기인 「약속의 땅」은 디데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줄어드는 숫자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북극곰의 죽음일까 인류의 죽음일까, 혹은 지구의 죽음일까. ‘여섯 번째 대멸종’이나 ‘거주 불능 지대’ 같은 표현은 거대한 좌초를 앞에 둔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묻는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 위에 두려운 것들의 목록을 쌓는다. 어떤 과학책도 주지 못한 무서운 감정을 이 소설이 준다. 어떤 과학책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소설이 할 수 있는 이유다.

3. 에코 스릴러, 『밤의 여행자들』

기후위기는 전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전 지구인이 동일한 규모의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별스러운 일이 아닌데, 광범위한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듯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가졌다. 더 가진 나라, 더 가진 사람은 덜 가진 나라, 덜 가진 사람보다 쉽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할 일은 아니다. 기후위기는 원인과 결과의 모순 사이에 불의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 많은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적은 피해를 입고 사실상 미미한 원인만을 제공한 나라는 큰 피해를 입는 역설. 가난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유의미한 책임이 없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폭염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50-10 법칙’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인지 보여 주는 자료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부유한 나라에서 배출되거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서 배출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비용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다. 세계 인구 중 온실가스로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10퍼센트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오염을 덜 시키는 50퍼센트의 인구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를 약간 넘는 정도다.(아비지트 베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김승진 옮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358~359쪽) ‘50-10’은 기후위기가 무엇보다 국가의 부와 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승인되는 불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불의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지닌 모순은 한층 심각하다. 미국의 어느 농가도 분명히 손해를 보겠지만 인도, 멕시코, 아프리카 등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국가의 농가가 입는 손실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후위기가 호재로 작용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 일부 지역은 일조량 증가로 포도 품질이 좋아져서 와인의 품질과 생산량이 더 향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노동 생산량도 줄고 아이들의 시험 점수도 더 낮아진다. 하지만 학교에 에어컨이 있으면 그런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후 상승은 분명 에어컨이라는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일의 효율성이 몇 퍼센트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결과는 가난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결과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앞선 기술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면 온실가스 배출은 더 심화된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에어컨을 돌려 오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기후변화를 완화해 미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같은 책 364쪽)

현재와 미래, 성장과 환경은 기후위기의 담론을 공회전하게 만드는 혼란 이분법이다. 그러나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극단적 논리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틀이라기보다는 진실을 가리는 데 복무하는 흑백 서사일 확률이 높다. 현실에는 더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 담론은 성장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다른 방식들도 생겨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국가를 구분한 뒤 에너지 사용량을 차별적으로 통제한다거나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에너지 기술 등을 원조해 오늘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일 역시

서서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와 미래, 성장과 환경이 대결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내러티브 역시 절실하다.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가볍게 뛰어넘는 생태소설이다. 지난 7월 대거상 외국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불려진 이름은 ‘생태 스릴러’ 소설이다.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은 미국의 ‘에드거 상’과 더불어 세계 양대 추리문학 상으로 손꼽힌다. 아시아인으로는 윤고은 작가가 첫 번째 수상작가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지만 기후위가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시기에 ‘재난 여행 상품’이라는 소재로 소비 자본주의와 재난 문제를 동창적으로 연결시킨 이 소설이 주목받았다는 사실에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답게 『밤의 여행자들』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한국 독자들이 체감하는 것 이상이다. 『밤의 여행자들』이 확실히 화제작이라는 사실은 아직 수상작이 발표되지 않은 또 다른 문학상에도 후보작으로 올라 있다는 것이 보여 준다.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작품에 주어지는 이 상의 이름은 ‘The Comedy Woman in Print’ 이다.

『밤의 여행자들』에 등장하는 재난은 기후위기만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이 소설은 기후위기를 포함해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재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순을 배태하고 있는 이념을 다루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의 악몽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을 무렵이던 2013년에 출간되어 자연재해와 원전이라는 맥락 위에서 독해되었던 이 소설은 2021년 현재 기후위기라는 난제 위에서 다시, 그리고 새롭게 읽히고 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자. 소설은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진해와 함께 시작된다. 주인공인 고요나는 정글이라는 여행사의 수석 여행 프로그래머로, 진해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진해와 연관된 상품을 기획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여행사에서는 1000명 가까운 직원이 1만 원 씩 돈을 모아 진해시에 조의금을 전달하고, 고요나는 진해의 쓰나미와 봉사활동을 결합한 상품을 기획할 계획을 세운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재난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 관광 상품 소비자가 되어 여행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그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낙오하게 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인간은 재난마저 상품화할 수 있다. 고요나가 알게 된 본질이란 재난을 상품화한 결과 상품화된 재난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고 팔 수 있는 소비의 행위만이 남게 된다. 팔 수 있는 것, 즉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도 만들어진다. 피해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곳이 완전한 거짓의 현장은 아니다. 이곳은 재난의 공간인 동시에 재난으로 먹고사는 경제 공동체다. 재난이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지만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것 역시 재난이다. 『밤의 여행자들』에 등장하는 세계는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재해가 발생한 곳과 무관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안전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얻는다. 두 번째는 재해가 발생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들이다. 일상을 재건해야 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에 대한 안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매칭함으로써 재난이라는 비극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시련마저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든 도움을 줌으로써 재난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고통마저 교환 가치를 띤 상품으로 만든다.

문제는 재난 지역이 소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구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하며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야 한다. 가난을 생산하는 것이 오늘의 가난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불평등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는 대상이 된다. 간극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극중 재난 상품을 만드는 기획자이자 주인공인 고요나가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관광객 입장에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낙오해 관광 상품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았다면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밤의 여행자들』을 두고 영국에서는 ‘에코 스릴러’라 부르는데, 재난에 있어 불평등 문제를 해결 대상은커녕 소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잔혹한 상상력의 측면 때문일 것이다.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가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밤의 여행자들』은 환경과 성장,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방식 만든 유예의 결과가 강화시켜 온 양극화의 실상을 참담한 현장으로 보여 준다.

딜레마는 대개 문학성을 입증하는 가치로 여겨진다.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갈등 속에서 모종의 진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에서 딜레마는 오남용되었거나 악용되었다. 이런 딜레마는 제거되어야 한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을 해결하지 않고 이용하려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흑백논리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재난 상품으로 시작된 관광이었지만 소설이 전개되며 관광의 기능과 역할은 세계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전환된다. 애초에 그것은 재난을 소비와 거래의 대상으로 왜곡하는 매개였지만 무이에 낙오한 이후 신원 불명의 존재가 된 고요나가 내부인도 외부인도 아닌 존재가 되면서부터 관광은 ‘재난 여행’의 실체를 확인하고 재난지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된다.

“무이는 가난했다. 그러나 그건 어쩌면 외부인들의 시선일지도 몰랐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무이를 재난 지역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었다.”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민음사, 2013, 151쪽.)

4. 기후 심리소설, 『피버 드림』

생태소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환기하는 이미지는 더 이상 자연 친화적이지도, 목가적이지도 않다. 자연이 돌아가고 싶은 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그친 지는 오래되었다. 돌아가고 싶다니, 그것은 차라리 일촉즉발의 위험 상태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 중인 화산에 가깝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앞에서 인류가 취해 온 최선은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내 품 안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폭탄을 제거하는 대신 끝 모를 폭탄 돌리기를 선택하게 했다. 그사이 지구는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회복할 수 없는 재난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가열되는 지구를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소수에게만 가 닿고 있는 것 같다.

정보 전달의 벽에 한계를 느끼는 환경 전문가들은 이제 문학의 언어가 지닌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그와 동시에 문학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 흐름이 비교적 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기후소설(cli-fi)이나 솔라 펑크(solar funk) 같은 장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낯선 기후라는 생의 조건이 하루하루의 인간 삶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는 일이 기존의 자연과학적, 사회학적 언어로 가능하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인간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이며,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감정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마음만으로 모든 일이 진전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 없이 진전될 수 있는 일 역시 없다.

과학이 말하는 기후변화 이야기는 지루하다. “추상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일어나며, 느리고, 눈에 확 띄는 특징이나 순간들이 부족한 전 지구적 위기를 진실하면서도 관심을 단숨에 잡아끌도록 묘사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조너선 사프란 포어,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가』 민음사) 역사가 이야기를 만든다면 이야기 역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작가 사만타 슈웨블린의 장편소설 『피버 드림』이다. 『피버 드림』은 ‘공포’의 내러티브를 활용해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야기에서 공포의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서스펜스다. 서스펜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독자나 관객에게 불안감과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내러티브 요소다. 흔히들 ‘눈을 땀 수 없는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작품이 갖고 있는 서스펜스를 평가한다. 결말로 달려가는 과정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거나 독자나 관객의 시선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불안한 미래를 정작 작품 속 인물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지켜보는 독자나 관객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내용에 몰입하게 된다. 서스펜스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자신이 이어질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가올 불운을 예측하지 못할 때, 요컨대 ‘모름’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공포의 감정을 연료로 몰입감을 높이는 이야기 장치다.

히치콕의 영화나 헨리 제임스의 소설을 읽는 동안 관객이나 독자가 느끼는 강렬한 감정을 떠올려

보면 서스펜스의 실체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온다. 나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 『나사의 회전』을 고전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포 소설이라고 기억한다. 19세기 말에 발표된 이 소설은 “스무 살 나이에 처음으로 가정교사라는 직무에 응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런던에 올라”온 어느 가난한 시골 목사의 막내딸이 일터이기도 한 저택 주변에서 목격하는 낯선 남녀의 존재에 의문을 품으며 기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유령 이야기” 형태의 심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감각과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상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 허상과 실체를 뒤섞으며 공포감을 유발한다. 급기야는 여러 시점과 목소리가 겹치도록 만들어 가정교사의 진술마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낯선 남녀의 존재는 등장할 때부터 “불안한 마음”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던 ‘나’의 예민한 성격이 만들어 낸 허상이었던 것일까. 모름에서 오는 서스펜스는 근원적인 공포를 만들어 낸다.

불안한 마음과 예민한 성격이라고 했거니와, 실제로 서스펜스가 면밀하게 작동하기 위해 등장인물은 특정한 조건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등장인물에게 약점이 있거나 외부 상황에 무방비상태에 있을 때 독자는 서스펜스를 느낀다. 그런 인물일수록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서스펜스를 일으키는 인물은 대개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이거나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으며, 『나사의 회전』에서처럼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인물이기도 하다. 감각과 착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심신미약 상태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나 심신미약이라는 국면에 처해 있는 인간은 그렇지 않은 인간에 비해 한층 더 예리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만타 슈웨블린의 『괴물 드림』은 서스펜스가 작동하는 공포의 생태소설이다. 이 소설은 아만다라는 여성과 다비드라는 소년이 나누는 대화만으로 전개된다. 대단히 모호하고 또 난해한 이 소설에서 아만다는 병상에 누워 있는 처지고 다비드는 정체 불명의 목소리로 등장한다. 어린 딸 니나와 함께 시골로 휴가를 보내러 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 가고 있는 신세에 처해 있는 여인 아만다의 궁금증은 오직 사라진 딸의 행방이다. 그런가 하면 아만다의 유일한 대화 상대인 다비드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괴물’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소년이다. 다비드는 스스로를 “정상적인 남자아이”라고 말하지만 아만다에 따르면 그의 엄마는 아들을 괴물이라 부른다. 두 사람이 처한 조건은 유사하다. 병상 위에서 죽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약하고,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무장상태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다른 탓에 대화는 계속해서 어긋난다. 오직 서스펜스를 쌓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대화가 어긋나는 방식은 가령, 다비드는 시종일관 “정확한 순간”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데 비해 아만다는 한순간도 정확한 순간을 묘사하는 일의 중요성에 공감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라진 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비드는 정확한 순간을 찾고 아만다는 사라진 존재를 찾는다. 두 사람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찾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을지 모른다.

『피버 드림』에서 서스펜스가 작동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깊이 개입한다. 첫 번째 요소는 시간이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만다는 다비드에게 재차 묻는다. “우리, 이럴 시간이 있는 거 맞니?” 대화를 나누는 중 다비드 역시 시간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에게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정확한 순간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 이 소설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고 있고, 모종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을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절대 조건이다. 이 소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어떤 소설보다 더 시간의 존재감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간의 존재감은 인물들이 시간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을 통해 드러난다.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상황적 변화는 ‘구조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거리를 구조 거리라고 한다. 소설이 전개되고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만다가 느끼는 자신과 딸 사이의 구조 거리가 줄어든다. 사만다가 애타게 찾는 딸은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죽어 가는 사만다가 현재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사라진 딸은 죽어 갈 기회마저 갖지 못한 채 사라져 간, 세계에 기입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

“나는 결정을 내려. 더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아. 구조 거리가 이제 너무 팽팽히 당겨져서 나는 딸에게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못할 것 같아. 집, 주변, 마을 전체가 내 눈에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보이는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 이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가방을 싸서 떠나는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사만타 슈웨블린, 조혜진 옮김, 『피버 드림』, 창비, 71쪽)

구조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더 빨리 구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다. 구조 거리를 느슨하게 둔 채 구조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서로를 구할 수도 있고,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를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이들이 “가방을 싸서 떠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딸이라고 쓰인 딸을 다음 세대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 보면 구조 거리가 팽팽히 당겨져서 딸에게 떨어져 있지 못할 거라는 말은 이들이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가 버렸음을 뜻한다.

‘지구 한계 시간’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내러티브다. 엘리자베스 콜버트의 『여섯 번째 대멸종』이나 데이브드 월러스 웰스의 『2050 거주 불능 지구』와 같은 책의 중심 전략 역시 시간이다. 재난 상황 앞에서 다가올 파괴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간이라는 요소만큼 위기감을 자극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정확한 순간을 찾아내야 한다는 다비드의 주장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한다. 지금이 바로 정확한 순간이며,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서스펜스가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은 현실감각의 부재다. 아만다는 다비드의 목소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사라진 나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얼마만큼을 ‘진짜’라고 생각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한다. “나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조차 모르겠어.” 기후변화나 생태 문제에 접근할 때 여전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후변화가 실재하는 두려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아만다가 느끼는 혼란은 환경 문제를 인식해 온 인류의 오래된 혼란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들이 응답해 준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에서는 2021년의 어젠다 중 하나를 기후변화로 설정하면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유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참고해야 할 만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의도적인 편파성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가디언에서는 또 지구온난화보다 지구가열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설명한 적도 있다. 현실 인식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용어를 바꿔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 더해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는 표현을 ‘기후변화 부정자’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부분 역시 인상적이다. 19세기 이래 계속된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조사로 입증한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의론’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비씨의 뉴스 책임자 프란 언스워스는 ‘거짓 균형’을 맞추느라 비비씨가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자주 틀린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적도 있다. “비비씨 보도에서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골적인 기후변화 부정자의 의견을 넣을 필요는 없다. 지난 토요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 0으로 승리했다는 기사에 이를 부인하는 누군가의 의견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허프포스트, 「영국 가디언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2019. 5. 20.)

공통 분모를 거부하는 분열된 진실은 가열되는 지구 앞에서 아무런 대처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기능한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까인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무엇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아만다의 정체된 사유는 기후변화 문제 앞에서 어떤 확신도 하지 못한 채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판단 중지를 의미한다. 사만타 슈웨블린은 공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구조 거리가 좁혀지고 있고, 안전거리가 소멸하고 있다고.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평향 출판인의 인식과 공헌



徐海 쉬하이

중국鳳凰출판그룹 편집장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평항 출판인의 인식과 공헌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항출판미디어그룹 쉬하이 부대표입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을 주제로 한 국제출판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출판업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는 출판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난징대학 장이빙(张昇宾) 교수의 ‘마르크스로 돌아가다’ 한국어판 출간기념회에 참석해 한국 출판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쉰버스출판사(肯博思出版公司) 대표님과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고 출판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탓에 화상으로만 만날 수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계와 환경에는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평항그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53년 설립한 평항출판미디어그룹은 중국 난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판, 배급, 인쇄, 영상, 문화 관련 호텔, 부동산, 무역, 금융투자, 예술작품 경영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로는 전액출자회사와 지주회사 200여 개가 있으며 직원은 약 13,000명입니다. 2020년 영업수익은 172억 위안이 넘었고, 총자산은 약 570억 위안에 달합니다. 또한 뉴스출판산업 경제규모의 종합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하에 9개 출판사, 1개 일간지가 있으며, 이 중 6개 출판사는 국가 1급 출판사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초중고 교재 출판 규모 2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출판 대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디지털 출판에도 진출했습니다. 또한 학과넷(学科网), 평항 클라우드 캠퍼스(凤凰云校园), 평항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평항 사이버 직업기술교육 플랫폼 등이 빠르게 성장하며 디지털화 전환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평항그룹은 향후 5년 간 출판 경쟁력, 문화 영향력, 국제 전파력, 종합적 실력을 갖춘 글로벌형 출판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전략’은 평항그룹의 6대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항은 본업인 출판에 주력하며 콘텐츠, 채널, 플랫폼, 단체, 번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판권 수출과 국제 협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평항의 ‘비(非)중화권 판권 수출 규모’와 ‘협력 국가 수’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그 중 ‘비중화권 판권 수출’은 1,565종으로 해외 62개국에 수출되었고, 2020년 세계 50대 출판그룹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향미디어그룹은 2011년 이후 다년간 ‘국가문화수출 중점기업’, ‘2018 중국 판권의 해 영향력 1위 기업’, ‘2020년 중국 판권 금상의 ‘운용확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5개 계열사는 ‘2021-2022년 국가문화수출 중점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000여 종의 도서가 해외 도서관을 통해 소개되었고, 그 중 중국 최초로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차오원쉬엔의 ‘청동 해바라기’가 22개국에 판권을 수출하며 중국 작품의 해외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평향그룹은 출판 관련 콘텐츠의 혁신과 문화 영향력 강화에 주력해 인문사회과학, 전통문화, 아동도서, 해외문학 등 양질의 도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외국문학을 출간하는 이린출판사(译林出版社)의 ‘고전 이린(经典译林)’ 시리즈는 중국 내 세계문학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쑤인민출판사(江苏人民出版社)의 ‘해외중국연구총서’는 지난 30년 간 200여 종을 출간하며 독창적인 시각과 연구 방식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린출판사의 ‘인문과 사회’ 번역총서는 현재까지 130여 부가 출간되었습니다. 2019년 제8회 파주북어워드에서 출판기획상을 수상한 류둥(刘东) 교수가, 중국 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전 이린’ 시리즈와 ‘인문과 사회’의 편집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평향그룹은 한국과 다년 간의 판권 협력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평향은 지난 몇 년 간 10여 차례에 걸쳐 판권팀의 한국 방문과 한국 관련 단체의 중국 방문을 진행했고, 한국의 우수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에 300여 종의 판권을 수출했습니다. ‘마르크스로 돌아가다’, ‘실크로드’, ‘중국 부호(符号)’, ‘중국 현대화 역정’, ‘지도상의 중국사’, ‘중국의 옛 성벽’, ‘장쑤 풍물 총서’(12종), ‘둔황 정선 50개 굴 감상’, ‘중화문명 독본’, ‘중의십대류방(中医十大类方)’, ‘꽃의 그림자(花影)’, ‘또 다른 부녀 생활’, ‘빨간 머리핀’ 등 학술, 전통문화, 중의학, 문학, 아동문학이 한국에 소개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향은 ‘이차대전을 회고하며 평화를 희망하다’를 주제로 한중일 공동으로 ‘평화를 염원하다(총 36권)’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중소출판협회, 연아인터내셔널 정연혜 대표의 지원을 받아 ‘한중 도서 판권에 관한 무역 상담회’를 열어 한중 출판사 간 프로젝트 협력을 도왔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운명’, ‘도시는 역사다’, ‘도시와 생태문명 총서’, ‘황선미 성장소설’, ‘제시 이야기’, ‘조선 국왕의 일생’, ‘조선 양반의 일생’ 등 우수한 한국 출판물을 중국에 소개하며 적지 않은 판매량과 함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 지난 100년 간 중국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 간 중국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제로에서 출발해 나선형 구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중국은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토가 파괴되고 전쟁이 거듭되었습니다. 국가 통일과 민족 해방은 당시 중국의 최우선 임무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는 국가 건설이 중차대한 과제였고, 빈곤과 낙후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전쟁 선포’라는 구호 아래 자연 정복을 시도한답시고 나무를 베어내고 대량으로 어획하며 화학비료를 쏟아부으면서 식량 증산에 나섰습니다. 1950년대 포스터에서는 뿜뿜이 들어선 공장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발전이라 여기고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며 ‘대약진’에 나섰습니다. 인구, 자원, 환경 사이의 모순이 점차 두드러진 후에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라는 전략적 기회를 맞아 토지, 자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비약적인 고속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수질 오염, 토지 사막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 정부는 과도하게 자연을 개발하며 자연을 생산요소로 삼는 발전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과학발전관이 제기되면서 환경보호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10년 전 중국은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발전 추진’과 2050년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을 생태 문명 수립을 위한 역사적 임무로 삼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실현과 생태 문명 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2060년 이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투자가 없는 무분별한 개발 금지’에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까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녹수청산이 바로 금으로 만든 산이요, 은으로 만든 산이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라는 말은 신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현하며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그룹 또한 출판 분야에서 지구, 기후, 생태, 자연과의 관계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평화그룹의 본업은 출판입니다. 출판은 교류를 위해, 특히 불특정인에게 사상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단, 매개물이 없으면 출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출판은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기의 매개물은 비단, 가죽, 판자, 대나무에 한정되어 생태계에 위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종이의 발명이라는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 초본과 사본이 생겨났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종이책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되자 제지를 위한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잉크는 잘 분해되지 않고 기계화로 전력 사용이 늘면서 에너지 소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친환경 출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래의 출판은 저에너지 출판이 될 것임이 틀림없고, 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재고와 낭비 없이 필요한 만큼 인쇄하고 발송하는 디지털 출판 혁명으로 종이책은 역사적 유물이 되어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소량의 종이책은 최대한 재활용될 것입니다.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고 벌목과 제지로 인한 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인쇄와 유통 과정의 에너지 저감 또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통 출판에서 미래의 출판으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생태 환경, 기후, 인류와 전염병의 사투를 다루는 책을 꾸준히 출간하며 출판물을 통해 생태 문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평향그룹의 ‘해외중국연구총서’ 중 환경 연구에 관한 책으로는 ‘위생의 현대성: 중국 개항장의 위생과 질병의 의미(Hygienic Modernity: Meanings of Health and Disease in Treaty-Port China)’, ‘호랑이, 쌀, 비단, 진흙: 군주제 말기 화난의 환경과 경제(Tigers Rice Silk and Silt: Environment and Economy in Late Imperial South China)’, ‘일강목수: 미래 중국의 환경 도전(The River Runs Black: The Environmental Challenge to China's Future)’, ‘코끼리의 후퇴(The Retreat of the Elephants: An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근대 중국의 어업 전쟁과 환경변화(Fishing Wars and Environmental Change in Late Imperial and Modern China)’ 등 1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중 ‘일강목수: 미래 중국의 환경 도전’은 중국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환경 거버넌스의 막중한 임무를 다루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지난 봄 코끼리 십여 마리가 윈난 시쌍반나(西双版纳) 자연보호구역을 이탈해 길고 긴 ‘모험의 여정’에 나선 일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떼를 취재하러 중국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향출판그룹의 ‘코끼리의 후퇴’를 보면 코끼리가 중원 지역에서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장쑤인민출판사의 ‘동일한 행성(同一顆星球)’ 시리즈(류둥 편집)인 ‘물에 잠긴 파리: 빛의 도시는 어떻게 1910년의 대홍수를 이겨냈는가?(Paris Under Water: how the city of light survived the great flood of 1910)’, ‘자연의 대도시: 시카고와 대서부(Nature's Metropolis: Chicago and the Great West)’, 정치이론과 세계 기후변화(Political theory and global climate change), ‘온난화라는 뜻밖의 횡재: 기후변화를 사업기회로 만드는 사람들(Windfall: the booming business of global warming)’, ‘더스트 볼: 1930년대의 남부평원(Dust Bowl: The Southern Plains in the 1930s)’, ‘환경퍼즐: 이산화탄소에서 프렌치 프라이까지(Environment and society: a critical introduction)’, ‘위험한 시대: 기후 변화, 장기 비상시대와 나아갈 방향(Dangerous Years: Climate Change, the Long Emergency, and the Way Forward)’ 및 장쑤교육출판사의 ‘천인지변: 기후변화와 문명의 흥망성쇠(天人之变: 变迁与文明兴衰)’ 등은 기후와 인류 발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평화 변영의 시대는 북방의 기후가 온화하고 습윤한 때였음을 생각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회 변동의 시기는 이상 기온, 전염병, 기근의 시기였습니다. 이는 환경과 생태계가 국가와 사회의 존망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장쑤평향과학기술출판사의 ‘천행: 인류사 중 50번의 전염병(天行: 人类历史进程中的50场瘟疫)’,

이런출판사의 ‘보이지 않는 적(The Invisible Enemy)’, ‘공중보건사(A History of Public Health)’, ‘신약 이야기’ 등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인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행’은 지난 천 년 간 인류가 전염병에 어떻게 맞서왔는지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전염병 발병을 ‘천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초래한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행’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인류가 더 이상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항그룹은 위와 같이 해외의 연구성과를 중국에 소개하는 한편 다수의 국내 저작들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연구 가치가 있는 국내 도서를 출판해 생태 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도서를 통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 친환경 인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평항그룹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생태환경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생태계와 지구에 대한 인식과 공헌에 더욱 관심을 두는 한편, 친환경 출판을 힘써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항그룹 계열사인 평항신화 인쇄회사(凤凰新华印务公司)는 친환경 인쇄 시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쓰며 친환경 인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친환경 설비를 도입, 개조하는 한편, 원부자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험실을 건설하는 등, 관련 사업에 1억 위안 이상 투자했습니다. 친환경 인쇄로 기업의 경영 공간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업 효율이 증가했습니다.

3. 디지털 출판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융합출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지원하여 융합발전 의식과 융합제품 수준이 향상되는 등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평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자원과 대형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장쑤인민출판사의 ‘해외중국연구시리즈’ 디지털 판권 도입과 디지털화 개발 사업의 경우, 쑤롄중두(三联中读)와 해외중국연구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디오북 ‘중국 이해하기: 세계적 시각으로 본 중화문명’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시장화 운영에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린의 소리(译林之声)’라는 음성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히말라야 플랫폼에서 37개 콘텐츠를 소개하며 이런출판사의 음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닦았습니다. 셋째, toB, toG 시장 개척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항 스튜디오(凤凰易学)’ 앱에서 스마트 교실, 스마트 캠퍼스, 화학 교실 등 교육 정보화 솔루션을 통합하여 신규 이용자가 90만 명 늘었고 누적 사용자는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넷째, 융합 제품의 온·오프라인 결합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출판사가 선보인 ‘장쑤중의(江苏中医在线)’ 앱은 학습, 훈련, 시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플랫폼을 통해 수준 높은 저자를 모으고 양질의 문제를 인큐베이팅하며 우수한 콘텐츠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쑤중약지(江苏中药志)(총3권) 등이 출간되어 전통 중의약 출판의 온·오프라인 융합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섯째, 뉴미디어 마케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술출판사가 위챗 공식계정, 틱톡, 콰이쇼우(快手) 등 플랫폼에서 쇼트클립 형식의 ‘주선생님의 그림 공부(朱老师的 绘本课)’를 선보인 후, 해당 커리큘럼 관련 그림책의 발행 총액은 80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디지털 출판이 확대되면 인쇄, 운송, 보관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생태 문명, ‘환경 보호’, ‘건강 유익’이라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향그룹의 최근 노력을 대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에는 내빈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전통 출판에서 미래 출판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자리에 계신 출판 동인 여러분 모두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평향과 자원을 공유하고 채널을 함께 구축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문화 교류와 출판 협력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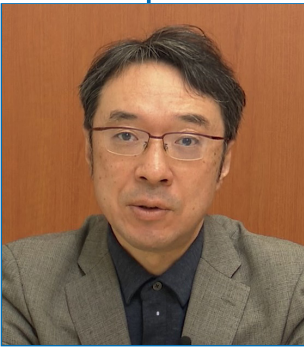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徐海(쉬하이)

1966년 중국 장쑤성 출생. 장쑤인민출판사(江蘇人民出版社)를 거쳐 현재 평항출판미디어 그룹(鳳凰出版傳媒集團)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신서



落合勝人 오치아이 가쓰토
일본 集英社(슈에이샤) 신서 편집장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신서

'기후 변화' 관련 신서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시작하며

오늘 저는 이와나미 신서와 슈에이샤 신서, 주코 신서 등 일본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소형본 시리즈 '신서(新書)'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형본 판형은 193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신서'는 각 학문 분야의 일인자로 불리는 거물급 연구자의 글을 담은 엽가판이자 대량 부수로 출간한 초심자용 입문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자 픽션 외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엽가판 신간서로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사히신문의 '론좌(論座)'나 고단샤의 '현대' 등 일본어권을 대표하는 종합잡지가 차례로 폐간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신서'는 TPP와 같은 이슈에 대해 신문이나 TV보다 깊이 파고드는 예전 종합잡지의 특집 기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 관련 신서 - 2020년대

일본에서는 최근 10년 간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신서가 아래와 같이 출간되었습니다.

- 모리카와 준(森川潤), 『그린자이언트 탈탄소 비즈니스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분순 신서, 2021.9.17)
- 가키노 신고(柿埜真吾), 『자유와 성장의 경제학 '인류세'와 '탈성장 공산주의'의 함정』(PHP 신서, 2021.8.11)
- 아스카 주센(明日香壽川), 『그린 뉴딜 세계를 움직이는 거버닝 아젠다』(이와나미 신서, 2021.6.22)
-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 『어른의 교양3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NHK출판 신서, 2021.4.12)
- 사이토 고헤이(齋藤幸平),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다다서재, 2021.10.19.) *원서: 『인류세의 '자본론'』(슈에이샤 신서, 2020.9.17)
- 사사키 류지(佐々木隆治),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산지니, 2020.6.15) *원서: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와 싸운 사회사상가』(치쿠마 신서, 2016.4.6)

- 후카이 유(深井有), 『지구는 더 이상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는다』(헤이본샤 신서, 2015.10.15)
- 기토 아키오(鬼頭昭雄),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이와나미 신서, 2015.3.21)
- 이다 테쓰지(井田徹治), 스에요시 다케지로(末吉竹二郎), 『녹색경제 최전선』(이와나미 신서, 2012.5.23)
- 후카이 유(深井有),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CO2 온난화 쟁점을 넘어』(주코 신서, 2011.7.22)

의외로 권수가 적고 위의 리스트 중 약 절반은 2020년 이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트렌드와 관련된 또다른 키워드로 'SDGs'가 있습니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약칭입니다. 2015년 9월에 열린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3개 UN 회원국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SDGs' 관련 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케시타 류이치로(竹下隆一郎), 『SDGs가 여는 비즈니스 신시대』(치쿠마 신서, 2021.9.9)
- 야마모토 야스마사(山本康正), 『세계를 바꾸는 다섯 가지 테크놀로지SDGs, ESG의 최전선』(쇼텐샤 신서, 2021.9.1)
- 다카하시 스스무(高橋進), 『생물다양성을 다시 묻다 세계·자연·미래와의 공생과SDGs』(치쿠마 신서, 2021.1.8)
- 미나미 히로시(南博), 이나바 마사키(稲場雅紀), 『SDGs 위기의 시대의 나침반』(이와나미 신서, 2020.11.21)
- 가니에 노리치카(蟹江憲史), 『SDG 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주코 신서, 2020.8.20)
- 시부사와 겐(渋澤健), 『SDGs투자 자산 운용을 하면서 사회공헌』(아사히 신서, 2020.5.13)

'SDGs' 관련 신서 역시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어권 출판계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 신서에서 다룰 법한 테마를 2020년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것일까요?

‘원전’ 관련 신서 - 2010년대

'기후 변화/신서'와 'SDGs/신서'를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양쪽 모두 '지구 온난화'에 관한 도서 제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원전)'의 추진 및 반대에 관한 쟁점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2010년대 일본 출판계의 흐름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전’ 관련 신서는 최근 10년 간 대폭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후 변화’ 관련 신서에 내포된 주제를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의 『원자력의 거짓말』(녹색평론사, 2012) (*원서: 『원전의 거짓말』 후소샤 신서, 2011.6) 입니다. 원전사고의 기억이 생생하다 못해 더 큰 대참사가 일어날지 우려되는 위험한 시기에 『원자력의 거짓말』은 20만 부 이상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고이데 씨는 훗날 슈에이샤 신서에서도 2권 정도 집필해 주셨습니다.

출판업계 전체로 보면 ‘원전’ 관련 신서의 대부분은 2011년부터 다음해인 2012년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민주당 정권이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야야한 이후 지금까지 자민당과 공민당의 연립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신서는 지속적으로 출간되기는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직후 2년간의 출판 권수나 부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전’ 관련 신서 붐이 일본의 리버럴 정권을 단명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에이샤 신서는 다른 ‘신서’ 시리즈에 비해 해당 장르의 도서를 꾸준히 출간해왔습니다. 아래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간 슈에이샤 신서가 출판한 ‘원전’ 관련 신서 리스트입니다.

2011년

- 히로세 다카시(広瀬隆), 아카시 쇼지로(明石昇二郎), 『원전의 흑막을 파헤친다』 7/15
- 이마이 하지메(今井一), 『‘원전’ 국민투표』 8/17
- 엘레나 블라디미로브나 필라토바, 『고스트 타운 체르노빌을 달리다』 9/16
- 사타카 마코토(佐高信), 『전력과 국가』 10/14

2012년

-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희생 시스템 후쿠시마·오키나와』 1/17
- 아니 건더슨(Arnie Gundersen),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진상과 전망』 2/17
-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와타나베 미쓰히사(渡辺満久) 외, 『‘최악’의 핵시설 롯카쇼 핵재처리장』 8/17
- 하야가와 아쓰코(早川敦子), 『요시나가 사유리, 옥스퍼드대학에서 원폭 시를 낭독하다』 11/16

2013년

- 아사다 지로(浅田次郎), 후지와라 신야(藤原新也) 외, 『원전, 생명, 일본인』 1/17
- 무라카미 다쓰야(村上達也), 진보 데쓰오(神保哲生), 『도카이무라 촌장의 ‘탈원전’ 론』 8/21
- 사와노 노부히로(沢野伸浩), 『진짜 도움이 되는 ‘오염 지도’』 12/17

2014년

- 히로세 다카시(広瀬隆), 『원전 제로 사회로! 신 에너지론』 4/24
-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100년 후 사람들에게』 2/14
- 하시야마 레이지로(橋山禮治郎), 『리니어신칸센 거대 프로젝트의 '진실'』 3/14
- 가네코 마사루(金子勝), 다케모토 도시히코(武本俊彦), 『돈이 되는 농업론 에너지 겸업 농가 추천』 10/17

2015년

- 가나모리 오사무(金森修), 『과학의 위기』 4/17
- 곤도 마코토(近藤誠), 『일본은 세계 제일의 '의료 피폭' 대국』 9/25
- 가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 『원전 소송이 사회를 바꾼다』 9/17

2016년

- 가사이 기요시(笠井潔), 노마 야스미치(野間易通),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반란 반원전 · 시바키 부대 · SEALDS』 9/16

2017년

- 마사노 아쓰코, 『당신 옆에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2/17

2018년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도코이 겐이치(常井健一), 『결단해야 할 때 도모다치 작전과 눈물의 기금』 2/16
- 시미즈 가즈토시(清水一利), 『‘동북의 하와이’는 왜 V자 회복을 했는가』 3/16
- 요시미 쉐야(吉見俊哉), 『전쟁 이후와 재해 이후의 시간 · 녹아 내리는 미디어와 사회』 6/15
- 히노 고스케(日野行介), 『제염과 국가 21세기 최악의 공공사업』 11/16

2020년

- 도야 히로시(戸谷洋志), 『원자력의 철학』 12/17

2021년

- 사카키바라 다카히토(榊原崇仁), 『후쿠시마가 침묵한 날 원전사고와 갑상선 피폭』 2/19

- 야마모토 아키히로(山本昭宏), 『원자력의 정신사 ‘핵’과 일본의 현 위치』 2/26
- 이시바시 가쓰히코(石橋克彦), 『리니어신칸센과 난카이 해구 거대지진』 6/24
- 하마노 다카히로(浜野高宏), 니타 요시타카(新田義貴) 외, 『원자력을 해방하라 전쟁에 농락당한 핵 물리학자들』 8/26
- 오나가 가오리(尾中香尚里), 『아베 신조와 간 나오토 비상사태의 리더십』 10/15

위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 신서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공통된 논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A. 원전 구조의 소개, 기술적 과제(사고 시의 환경 오염)
- B. 원전 추진과 경제 관계(입지한 지자체의 이익과 부담, 전기요금 산출 문제)
- C. 미디어 리터러시(안전신화 캠페인, 온난화 진위)
- D. 과학기술에 관한 철학적 고찰(테크놀로지 체계의 불가지성, 폭주 리스크)
- E.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자연과 ‘인간’의 관계)
- F. 일본 특유의 과제(지진)
- G. 저항 운동(데모, 선거, 재판, 국민투표)

‘코로나’ 관련 신서에서 빠진 논점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슈에이샤 신서에서도 ‘원전 신서’는 거의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이 동일본 대지진 10주기여서 다양한 프로젝트나 기념 출판을 뒤로 미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일본대지진에 비견되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입니다. 2020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슈에이샤 신서에서는 여섯 권의 ‘원전’ 관련 신서가 출간되었는데 출간 부수도 부진하고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각 출판사에서 코로나 관련 출판이 이어지며 2011년 이후 2년간의 ‘원전’ 관련 신서에 견줄 만한 기세로 ‘코로나’ 관련 신서가 서점 매대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원전’ 관련 신서처럼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략 위의 A~E처럼 논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A. 전염병 구조의 소개, 치료 관련 기술적 과제
- B. 코로나19의 대책과 경제 대책 간의 관계(도쿄올림픽 개최의 옳고 그름)

- C. 미디어 리터러시(음모론, 페이크 뉴스, 백신 접종 찬반)
- D. 바이러스와 인류 관계에 관한 철학적 고찰
- E.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바이러스와의 공존)

그렇다면 'F. 일본 특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국민이 감염 리스크를 우려하여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이 강경 개최된 흐름을 일본 특유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유행 초기 서구와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PCR 검사 등이 크게 뒤쳐지고 있는데도 감염 억제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요인 '팩터 X'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F. 일본 특유의 과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기세에 눌린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 문제는 'G. 저항운동'입니다. 최근 2년간 리버럴 진영의 논자가 경제정책(올림픽 추진)보다 전염병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국가에 의한 '규제'나 '감시'를 요청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 신서, '코로나' 관련 신서에서 빠진 것은 '지진'과 같은 지역 고유의 구체적인 과제, 중간적인 논의입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실제적인 '사회'의 상실입니다. 온라인으로 기존 '사회'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인류 사회'와 '사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족이지만 'society'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대인 교제'나 '사교'로 번역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말하고 어울리며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경험 없이 형성된 집단은 10년 후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이러한 감시사회 전례를 남겨도 되는가

2020년 봄 일본에서는 저와 같은 세대인 비평가 아즈마 히로키(東浩紀)가 잡지 『아에라(AERA)』(2020년 4월 20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체 권력은 감염 확대 방지라는 ‘절대적인 선’이나 GPS와 같은 감시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초기부터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로 감염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시작한 단계이다. 빅데이터의 이용은 더욱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감시하여 집회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위치 정보는 궁극의 개인 정보이며 집회를 열지 못한다면 정치적 자유도 사라지게 된다. 수개월 전이라면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겠지만 지금은 이에 항의하는 의견이 거의 없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내팽개친 상태이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축이 되어도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 상황이 긴박하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감염 확대(방지)를 위해 접촉을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시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 비전이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정도의 바이러스는 아니다. 대부분은 살아남는다. 그렇기에 어떤 사회를 남길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는 생명과 경제 중에 선택을 요구하는 논의가 잦다. 하지만 진정한 선택은 ‘현재의 공포’와 ‘미래 사회’ 중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감시 사회 전례를 미래에 남겨도 되는 것인가?

인간은 동물이 맞다. 그래서 동물을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동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인간에게 ‘society’란 어떤 의미(‘economy’와는 다르다)인가”라는 물음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평의 눈은 항상 날카로워야 한다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출판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요?

마치며

슈에이샤 신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원전’ 관련 신서를 출간했습니다. 창간되고 얼마 후에 가마다 게이(鎌田慧)의 『원전 열도를 간다』(2001년 11월)를 출간했고 그 이후에도 테레즈 델페흐(Thérèse Delpech)의 『이란의 핵문제』(2008년 4월), 히로세 다카시(広瀬隆)의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의 붕괴』(2011년 7월) 등을 출간했습니다.

슈에이샤 신서의 ‘원전’ 관련 신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가마다 사토시(鎌田慧)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직후부터 원전 반대 운동에 참여한 논픽션 작가인 마쓰시타 류이치(松下竜一)를 경애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반대하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인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역시 마쓰시타 류이치와 깊은 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마쓰시타 류이치(松下竜一, 1937~2004)는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이다. 오이타현 출생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업인 두부집을 물려 받았다. 20대 중반부터 와카(和歌)를 짓기 시작하여 아사히 가단(朝日歌壇)에 여러 번 입선했다. 1969년 『두부집의 사계 어느 청춘의 기록』을 출간했는데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져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70년 두부집을 폐업하고 글을 쓰면서 살기로

결심했다. 72년 『풍성의 여자들 어느 어촌의 투쟁』 출간을 계기로 우에노 에이신(上野英信)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또 같은 해부터 '환경권'을 주장하며 부젠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했고, 비록 패소했지만 31년간 미니 커뮤니케이션 잡지 「풀뿌리 통신」을 발행(380호로 종간)하여 전국의 시민운동가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저서로는 『루이스 아버지에게 받은 이름은』(고단샤 논픽션상 수상) 등이 있다.

마쓰시타 류이치가 제창한 '환경권'의 정신은 가마타 사토시, 고이데 히로아키를 통해 2010년대 '원전' 관련 신서의 암묵적인 가치관으로 공유되어 현재의 '기후 변화' 관련 신서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쓰시타의 논고는 'G. 저항 운동'이나 '인류 사회'와 위상을 달리하는 작은 '사회'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落合勝人(오치아이 가쓰토)

1969년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출생. 1993년 와세다대학 교육학부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슈에이사(集英社)에 입사하여 문예지, 『소설 스바루(小説すばる)』 부서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신서 편집부에서 근무하면서 『고민하는 힘』(강상중 저)을 비롯해 여러 책을 편집했다. 2014년부터 슈에이사 신서 편집장으로 일하는 한편 사상사를 배워, 2019년 호세이대학 대학원 정치학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 『하야시 타츠오 편집의 정신(林達夫 編集の精神)』(이와나미 서점, 2021)이 있다.



팬데믹 이후 출판계의 미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만 출판 및 독서의 가능성



胡金倫 우캄룬

타이완 時報(쉬바오)출판사 편집장

팬데믹 이후 출판계의 미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만 출판 및 독서의 가능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2019년 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2020년 초부터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어 팬데믹을 초래했다. 2021년 10월 1일까지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통계의 의하면, 최소 2억 3,363만 2,6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최소 477만 9,778명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COVID-19는 인류 역사 중 또 하나의 대유행병이 되었다.

21세기 가장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겨지는 COVID-19는 끊임없이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COVID-19와 같은 대유행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가장 오래된 서양문화도 전염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호메로스 「일리아드(Iliad)」의 서두에는 전염병에 초토화된 그리스 군대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에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장기간 치러진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 초기 아테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장정들이 죽었으며 도시의 뛰어난 지도자조차 명을 달리했다고 나와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대유행병은 133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그 후 10년간 유럽 전체에 퍼진 선페스트(bubonic plague)이다. 흑사병(Black Death)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쥐나 벼룩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의 림프계를 공격하는 병으로 여타 전염병처럼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스페인독감 역시 1차세계대전 당시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로 인해 전쟁 사망자의 2배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 사망했다. 스페인독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병이 스페인에서 발생해서가 아니라 당시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아 뉴스 검열이 없던 스페인이 독감 유행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였고, 관련 보도가 해외까지 전파되어 사람들이 유행병이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이고 항바이러스제도 없어 해당 바이러스의 본체를 확인하지 못해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가장 중요한 3대 지침을 마련하였다. COVID-19 백신 개발 전에도 상기 3대 원칙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정기 점검’이 추가되었다.

지난 20년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및 에볼라 바이러스 등 유행병이 발발했다. 2015년, 빌 게이츠(Bill Gates)는 TED 연설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한 번에 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에도 그는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세계적 대유행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행 또는 불행하게도 지난 20년간 발생한 세계의 대유행병을 모두 겪은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는 세계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국가들이 국문을 걸어 잠그고, 도시가 봉쇄되자 회사들은 재택근무(‘work at home’과 다른 개념의 ‘work from home’)를 실시하고, 학교는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교육과 수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해외여행, 출장, 소비, 외출, 쇼핑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다. 수많은 국가의 식당, 백화점, 관광지는 물론이고, 예술전시와 공연 등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여러 업계가 아예 멈추었다. 마치 비어버린 도시처럼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없어 관광 외화수입이 급격히 하락했다), 회사들은 구조조정, 감봉, 무급휴가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로 인해 그 전부터 하락세에 처해있던 오프라인 서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2021년 대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다.)

국제출판업계에게 있어 가장 굵직한 행사는 바로 각종 국제도서전이다. 출판사, 판권대리상, 출판인들이 함께 모여 만나 판권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모든 국제도서전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행사로 바뀌었다. 아마 전시(戰時)를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태일 것이다. 동서양간 국제판권 수권(受權)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우편이 원활하지가 않아 샘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마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물건이나 서적 구매 시 배송기한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오프라인 서점도 손님을 받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다.(그렇다면 온라인 서점 매출은 대폭 상승했을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식주행, 시청각 체험, 여가, 예술, 전시, 보전, 독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대만 지역의 답은 아주 명확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독서가 가장 하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품질의 우열과 상관없이 인터넷에서의 정보 획득이었다.(온라인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문명은 진화하는가? 인류의 사고도 날로 어려워지는 생존환경에 따라 출로 모색을 위해 업무방식의 빠른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최근 2년간 대만의 상황은 2021년 5월 19일을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5월 19일 전 대만은 1급 방역태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해외 방역의 영향을 받아 앞서 언급한 각종 불리한 현상과 분위기들이 대만의 출판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만 국가도서관이 발표한 「109년 대만 도서출판 현황 및 추세 보고」를 보면, 대만의 신간 출판량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2020년 신간은 35,041종으로 지난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2019년보다 4.81% 감소하였고, 판매액 또한 4.4억 TWD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COVID-19로 인해 각종 신간 출간기간이 연장되었다. 레저관광류 서적은 70% 하락한 데 비해, 심리·자기계발서는 대폭 증가하여 제작년보다 240여종 추가되었다. 2020년 4,694개 출판사가 ISBN를 신청하였고, 총 35,041종 신간을 출판하여 2019년 대비 출판사는 258개 하락, 신간은 1,769종 감소하였다. 이렇듯 최종적으로 2021년은 2001년 신간 수인 36,353종 보다 더 낮은 수치로 지난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과거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일인당 출판량은 세계 2위로 인구수 기준으로는 영국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신간이 1,769종 감소하여 3.5만 종대로 추락한 지금, 세계 랭킹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과연 좋은 변화일까? 세계 출판업계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지금,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책을 사는 사람은 있는 걸까? 독자는? 실제 판매량은 정확히 얼마인지?

상기 통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에는 연간 100종 이상의 신간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51개였다면, 2020년에는 45개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90%가량의 출판사의 신간 출판 수는 10종 미만이었다. 한편, 대만 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대만 실물서적 및 전자책 판매액은 190.4억 TWD에 그쳐 2019년 대비 4.4억 TWD, 즉 2.49% 감소했다.

하지만 전자책 관련 통계만을 본다면, 2020년 전자책 신간은 2,038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여 제작년 대비 28.10% 성장하였으며, 매출액 또한 32.61% 증가했다.

대만 국가도서관은 2020년 출판량은 COVID-19 영향을 받은 대만 독자들의 독서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2020년 ISBN 신청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언어 및 문학 서적(경문학, 연문학, 대중문학 등)으로 20%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사회과학, 예술, 응용과학 등 분야가 각 15%씩 차지하였다. 만약 대만 출판업계에서 즐겨 사용하는 주제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2020년 가장 많이 출판된 서적은 인문·역사·지리 분야의 신간으로 총 4,177종이 출판되었으며, 레저관광류는 197종에 그쳐 2019년의 676종보다 479종 감소하여 7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승한 탓인지 심리·자기계발류 서적은 대폭 상승하여 2020년 총 1,601종이 출판되었으며, 2019년 보다 240종 증가해 17.63%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심리·자기계발류 서적은 2020년 각종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2021년 5월 19일 이전 대만은 1급 방역태세를 유지해왔다. 조건부 입출국 제한이나 자국민 외 입국 금지 조치 외에는 도시 봉쇄도 없었고, 재택근무(work from home)를 실시하는 회사도 드물었으며, 온라인 수업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가 없어 식당, 백화점, 관광지

등이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예술전시 및 공연 등 문화사업 또한 점차 정체되었다. 거리의 수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거나 임대 공고를 내걸었다. 회사들은 직원을 내보내거나 감봉 또는 무급휴가를 시행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진 사람들은 책을 살 돈, 특히 급한 수요가 없는 책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5월 19일 이후의 상황은 모두가 알다시피 더욱 악화되었다. 대만은 3급 방역태세를 선포하였고, 도시들은 半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바깥활동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실명등록제 도입 등 조치가 시행되고, 모든 식당, 헬스장, 노래방, 클럽, 스포츠센터가 영업을 중단했다. 백화점과 서점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검역과 백신 부족 등 소식에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에 대만의 출판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차선택으로 집에서 독서하기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대만 최대 서점그룹인 에스리트(ESLITE, 誠品)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영업보고서를 보면, 3급 방역태세의 영향으로 5-6월 오프라인 서점 매출액은 2020년보다 60% 하락하여 2분기에만 9,900만 TWD 손실을 입었다.

그 후 COVID-19 상황이 완화에 따라 대만은 7월 27일부터 2급 방역태세로 조정하고 식당 운영을 허용했다. 백화점, 식당, 서점 등 오프라인 점포들에 차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기간 내 '보복성 소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과거의 호황은 이제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 또는 더 나쁜 시기도 없을 것 같다(계속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인가?).

대만 최대 온라인 서점 북스닷컴(Books.com.tw)은 지난 7월 「2021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했다. 2021년 추세를 살펴보면, COVID-19와 3급 방역태세의 영향으로 북스닷컴은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중, 재테크 서적은 2020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하였으며, 베스트셀러 중 50%를 차지하였다. 심리, 양성관계, 그리고 재테크 등 선호 분야에서 대만 온라인 서점의 고객들은 3급 방역태세로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입자 자기 계발과 심리 안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테크 관련 서적 TOP10을 보면,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주식투자'가 인기 분야로 떠올랐다. TOP10중 6권이 투자 분야의 고전을 포함한 투자 관련 서적이다. 이 중에는 202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투자 팟캐스터와 성공학 관련 서적 3권, 인물전기 1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년간 대만 출판업계 동향과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대만에서 뉴미디어, 1인 미디어, 옴니미디어(omnimedia), 미디어 컨버전스(convergence) 등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플랫폼 니즈에 따라, 전자책, 디지털 출판물, 오디오북(종이책, 전자책을 잇는 3세대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대만의 출판사들은 기존 출판물의 전자책화와 오디오북화(본토 및 해외 판권 일괄)에 착수했다. 전통 미디어가 점차 몰락하고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자 출판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 작가, 편집자, 번역가, 북디자이너, 출판사,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페이스북,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라이브, 웨이보(Weibo), 인스타그램(IG), 인스타 광고,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유행어 따라하기, Plurk, 트위터, 링크드인, 클럽하우스, 팟캐스트, 팟캐스터,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VTuber, 인플루언서, KOL(Key Opinion Leader), UGC(User Generated Content), 온라인, 오프라인, 클래스, 오디오, 영상 등 키워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의견, 정보, 평가 등을 다른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 포스팅하고 전파한다. 이제 우리는 B2B(Business To Business)의 시대를 넘어서 B2C(Business-to-Customer)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리테일 활동이 판매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서적 등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기업은 독자에게 새로운 판매채널, 즉 온라인상점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며, 독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고르고 지불(DM 판매 포함)한다.

세계 출판업의 환경이 변했고, COVID-19가 불러온 재앙적 타격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작가, 번역가, 편집자(총편집에서 일반 편집자까지), 북디자이너, 출판사들이 막후에서 무대로 나와 능동적으로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한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하드·소프트웨어와 다원화된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활용하여 출판서적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출판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수많은 책 중에서 자신의 책을 발견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때, 편집자는 1인 미디어가 되기도 하고, 팟캐스터나 스토리텔러가 되기도 한다(작가와 독자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 역할을 가진 작가와 독자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견뎌내야 한다. 과거 독자들은 자신이 읽는 책의 편집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다면, 전국민 미디어 시대인 지금, 편집자(작가도 마찬가지)가 셀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팔로워수/팬클럽 등).

오늘날 대만 출판업계에서는 편집자가 1인 미디어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작가나 독자 모두 과거 수동적으로 출판사나 편집자가 보여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플랫폼이나 기타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 참여하는 위치로 바뀌었다. 이제 일방적 소통이 아닌 1인 미디어간의 쌍방향 소통, 또는 다방향 소통의 시대[A2C(Author To Customer)의 옴니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세계 출판업계에 발생한 커다란 변화, 그리고 2년간 이어진 COVID-19가 대만 출판업계에 불러온 변화는 편집자, 출판사, 기획자의 관념과 포지셔닝의 전복을 일으켰다. 대만 출판업계의 핵심과 가치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종이책 시절에는 편집자는 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작가 발굴, 비용 관리, 시장 홍보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편집자는 마치 감독처럼 다채로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서적의 인쇄와 출판 외에 해당 서적을 어떻게 여러 디지털 방식(오디오북, 클래스, 팟캐스트 등)으로 전환해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옴니미디어 시대에서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여러

상품형식으로 전환할지가 편집자들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이다. 예전에는 문서 처리 능력만 요구되었다면, 이제는 오디오나 영상 편집 능력도 요구된다. 심지어 새로운 미디어 형식에 맞추기 위해 작가와 어떻게 책의 내용을 재편집하여 여러 종류의 콘텐츠로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편집자는 각종 플랫폼에서 작가를 발굴하여 SNS에 올린 콘텐츠를 어떻게 서적의 형식으로 출판할지 연구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만 출판업계에서는 아마도 편집자의 창의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출판업계의 전망이 가장 암울한 시대이면서 인류의 지혜가 글로 압축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독서 신봉의 시대이면서 출판계의 미래를 의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편집자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가시영쿨이 가득해 한달음에 천국에 도달할 수 없으나 자칫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胡金倫(우캄륄)

1971년생.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신. 2002년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를 졸업하고 타이완 출판계에 입문했다. 타이완 밀밭출판과 링크(聯經) 출판사를 거쳐 2020년 시보(時報)문화출판 제1편집국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간 기획한 책들이 홍루몽상(세계화문학장편소설상), 연합신문문학대상, 대만문학금전상·올해대상, 김정상, 도서전대상, 인문 및사회과학학술전문도서상, 중국시보좋은도서상, 연합신문 독서인 최우수도서상, OPEN BOOK좋은도서상, 중산학술문화재단상 등을 수상하였다.

2021
국제출판포럼

세션4

종합토론



진행 : 안희곤(사월의책 대표)

패널 : 표정훈(출판평론가)

박혜진(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2팀장)

박경수(프인돌 출판사 기획실장)

● 사회자 시작 멘트

[포럼 주제를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으로 선택한 이유]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위시한 국제출판인들이 공통적으로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논의한 끝에 결국 ‘기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결되면서 이번 출판포럼 주제를 “기후위기와 재난시대”로 잡게 되었다.

기후와 재난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맞이한 전체적인 문제이고 재난은 지진, 홍수 등 특정한 재난 상황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 주제로 묶이게 된 것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가 단순히 하나의 전염병 유행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팬데믹 사태라는 측면이 크다.

재난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시작은 지진/해일이라는 자연재해였지만 인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증폭되어 원전사고로 확대된 것을 볼 때 오늘날의 재난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서의 재난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를 갖고 있는 재난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기후가 위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과 같은 원인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기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난상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기후위기와 재난시대”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 종합토론 주제

1. 기후위기와 재난시대를 보는 출판의 시각 또는 출판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2.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출판의 변화와 진행 방향 짚어보기
3. 기후와 재난의 담론에서 출판도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주제 1 : 기후위기와 재난시대를 보는 출판의 시각 또는 출판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표정훈 (출판평론가, 저술가)]

- 1980년대는 사회과학 출판의 시대, 사회과학의 시대였다. 당시는 공해라는 말이 키워드였고 환경이라는 개념은 요즘의 생태적 의미의 환경이 아니라 ‘주변 환경’ 같이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공해는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이를 추방하자는 시민단체 활동들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환경, 생태, 공해에 관한 책의 출판이 많지 않았으며, 일본의 환경운동, 원전반대운동, 공해추방운동 전문가들의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정도였다.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태, 환경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쓰는 의미나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80년대 말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지나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시민운동의 시대가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여성, 노동, 환경의 세 가지 키워드가 진보 담론으로 많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 1997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정책으로 환경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전까지는 산업화에 부수되는 피해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환경부가 생기면서 환경이라는 것을 축으로 삼아 환경정책을 처음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 생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 ‘기후’라는 말은 2000년 초까지는 생태환경의 하나로 쓰였다. 그전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 차츰 기후 전체,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로 옮겨왔다.
-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 노동, 환경이 진보 담론에서 보편적인 의제가 되고, 누구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변해왔다. 2010년대 후반에는 여성은 페미니즘으로, 노동은 IT, 디지털, AI, 사물인터넷으로 의미가 격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 역시 포괄적으로 다루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후’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즉 여성은 페미니즘, 노동은 IT, 디지털, AI, 사물인터넷, 환경은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덮친 것이다.
- 80년대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공해 단계, 생태 담론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사회과학적인 책들이 많았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과학교양서, 기후변화, 환경생태에 관한 자연과학, 과학기술의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다. 2010년대 이후로는 문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에세이, 생태자연에세이 등 훨씬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를 볼때 출판도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의식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대응해서 변화해왔다.

[안희곤 (진행자, 사월의책 대표)]

- 70, 80년대 우리의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은 공해, 동물보호, 천연기념물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는 수준이었다. 이후 차츰 이런 단어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기후위기, 생태라는 단어들로 바뀌어 갔고, 이런 단어의 변화는 우리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 ‘환경생태’라는 개념이 생물보존,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인식 수준에서 생태, 기후와 같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심각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혜진 (문학평론가, 민음사 문학팀장)]

- 기후위기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신념적인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 같다.
- 정치적, 신념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그레타 툰베리를 다룬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영화는 기후위기라는 측면에서 한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툰베리는 의사소통,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입의 어려움을 겪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는 소녀다. 툰베리의 이러한 약점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영웅서사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기에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편리함들이 툰베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 이것을 보면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편리한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신념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기후위기’라는 것이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그 방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수익모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학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작가가자 환경운동가인 올라 토카르추크의 작품을 보면 동물에 대한 감정이입이라든지, 그 이입이 궁극적으로 아주 낯선 존재, 낯선 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감정이라든지, 소비를 위한 선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을 밀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이고, 개인이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미학적 기준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 가능성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야기, 문학작품, 영화들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경험을 꾸준히 하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아래에서의 변화, 흔들리지 않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희곤 진행자]

- 기후위기라는 것이 사회적, 지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사람들이 나 하나라는 개인의 실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측면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박혜진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런 논자들을 연결시키고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통로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 실존적인 위기, 개인적인 고통, 불편함이라는 것을 생활에서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내러티브로 만들면서도 왜 그것들이 좀 더 사회적인 차원의 행동, 주장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박혜진]

- 나 자신이 기후위기 혹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과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개인의 목소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세력화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개인의 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튼베리 같은 행동수준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완결성으로 인해 지속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이 공론화되고 세력화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아니다.
- 지금은 개별로 흩어져 있고, 각각 느끼고 있는 완전무결하지 않음에 어떤 주저함들이 뭔가를 더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을 메워줄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출판물일 수도 있다. 특히 출판물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이 되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집시켜줄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표정훈]

- 예전에는 약간의 자연친화적 감수성, 약간의 환경보호의식이나 문제의식이 가미되면 생태문학이 되었는데, 요즘의 생태문학은 예전의 생태문학이나 응용문학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

[박혜진]

- 이게 가장 큰 화두중의 하나인 것 같다.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라는 것이 중요한 테마로 들어와서 문학작품을 비평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했던 생태소설, 생태학과 지금의 작품들이 어떻게 다른가이다. 이걸 앞으로 더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과거 생태소설은 목가적이고, 자연친화적,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상실했던 곳에 대한 이미지들이 아주 강하게 재현되었다. 반면 지금의 소설들은 앞으로 도래할 폐허로서의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굉장히 파괴적이고, 성장 담론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성격들에도 과거 소설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안희곤 진행자]

- 확실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의 목가소설하면 떠오르는 풍경과는 위기의식이라든지 생각의 차원에서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든다.
- 기후위기, 재난 담론에서 개인적으로도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수 실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박경수 (뜨인돌 출판사 기획실장)]

- 인류사에서 역사적으로 전환기가 아닌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장이나 환경이나 이런 딜레마에서 단호하게 탈 성장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새만금 방조제가 서로 연결되던 날, 한 쪽에서는 반대시위를 하고 한 쪽에서는 서로 눈물 흘리며 부둥켜안고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광경을 보면서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 판단과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다.
- 바다를 막고, 4대강을 틀어막고, 거대한 다리를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한때는 이런 게

자랑스러웠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일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런 말들 속에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것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전기를 계속해서 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 전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 문명의 편리함이라든지 풍요로움들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기후위기, 에너지 담론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나 지식인들이 분명하고 솔직하게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 외국사례발표에서 에너지나 땅, 바다, 강 이런 것들에 대해 일체 손대지 않고 모든 것을 금지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다루는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불편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후위기 문제도 분명한 계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후진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마치 기후위기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선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재난이라고 일반화시켜 버린다면 그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들, 후진국들은 피해를 호소할 곳도 해결할 방법도 없어지게 된다.
-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개량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희곤 진행자]

-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거기서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하는 어떤 세력, 어떤 계급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장본인이기도 한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은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계층과 상관없이 골고루 분배된다는 그런 의미의 불평등이 있다.

- 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자체가 불평등을 오히려 이용하고 불평등에 터를 잡아서 벌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 기후, 환경과 같이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재를 특권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힘, 기술, 이런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진 특정 세력들이 먼저 이용하거나 독점해왔기 때문인데,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더 많은 자연의 이용의 독점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렇게 하여 벌어진 결과가 기후위기라 할 수 있다.
-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 자체에도 허구가 있는데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 시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기만이 있다. 말 그대로 불편함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현재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인데, 그것은 여전히 상황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성장 중독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표정훈]

-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이 비대칭적이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아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이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다. 민주주의 기후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판단 또는 제도적인 의사결정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때 그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지식을 공유한 상태여야 한다.
- 숙의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식정보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공평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한다는 뜻인데, 아직까지도 그 지식은 비대칭적이고 그게 인식수준이나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출판의 역할 중 하나가 그런 지식 정보의 비대칭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서 의사결정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후위기에 관한 의사결정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제 2 :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출판의 변화와 진행 방향 짚어보기

[안희곤 진행자]

- 기후위기 또는 생태적 재난을 책을 통해서 접근할 때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후에 대해서도 책이 다뤄야 하는 방식, 책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책에 담아낼까 라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표정훈]

- 90년대말 2000년 초 『출판저널』이 큰 판형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때 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환경 분야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정과 공감은 모두가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구매와 독서로 이어지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런 대표적인 책이 ‘환경 도서’라는 것이 그 기사의 골자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재난에 관한 책은 착한 책, 올바른 책, 당연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있어야 할 책이다. 다만 환경 도서가 보였던 사회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공감과 실제 구매와 독서 행위 사이의 간격이 기후 관련 재난 관련 도서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두 번째로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책 장르에서 문화, 문학, 과학기술, 예술, 철학사상, 사회과학, 어린이, 심지어 실용서도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라는 건 대주제이고 근본적인 주제여서 모든 도서 장르에 어린이 도서를 포함해서 다 스며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출판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 기후위기라는 주제, 재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시도해 보지 못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안희곤 진행자]

- 출판의 여러 장르에서 독자에게 의무감을 강요하는 그런 책들은 항상 안 팔린다. 대중의 설득은 의무의 방식, 강요의 방식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동참하게 만들고 필요성을 느껴야만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데, 기후 내지 재난 관련 책들이 식자들에게는 사회경제적 이슈, 불평등 이슈, 탈성장의 이슈로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고 보지만, 개인들에게는 실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감이 있다. 그 간극을 돌파하는 것이 출판의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박혜진]

- 기후변화 스터디에서 가장 공감하며 읽었던 『기후변화의 심리학』이 있다. 그 책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꺾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인가 묻는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하는 듯하다.
- 책 내용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이었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죽음과도 같다는 얘기였다. 죽음이라는 건 미래에 누구에게나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 죽음을 상정하고 오늘, 내일을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죽음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죽음에 맞서서 인간이 발명한 건 종교였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도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 실천 가능하고 변화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더가보다는 신념의 문제인거 같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신념의 문제이고, 그 신념의 핵심에는 성장이 하나의 종교적인 믿음인 것처럼, 탈성장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 체계라고 본다.
-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기득권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들, 특별하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아도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전환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의미 있고 가능한 전환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다소 냉소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쪽의 사람들이 도태되는 방식의 전환도 예상 가능한 전환이라고 본다.
- 그래서 기후변화와 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분노가 담겨 있는 목소리들, 속도와 자유라는 현대의 미학들, 현대의 가치를 거부하고, 탈성장의 세계관이 진지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20대, 30대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의 담론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희곤 진행자]

-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기후문제 내지 기후에 대한 개인의 실천 차원으로 들어가면 불편함부터 느끼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데올로기적인 중독이 있는 것 같다. 성장 중독, 소비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은폐의 논리가 있다.

- 그 은폐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자기 활동이 은폐할수록 유리하니까 그런 은폐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판이 그런 연결고리들을 감성적으로 자꾸 느끼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출판도 아직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경제학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체험적인 차원에서 눈앞에서 보이는 동물보호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식의 거대한 구조 자체를 개인적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도 있고, 종교적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 어제 발표하신 박경미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고대국가 형태가 탄생하고 전쟁이 막 시작되고 문명 단위로 혼란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종교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위안시키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
- 그래서 현대도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감수성, 종교적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고 박 교수님은 말씀해주셨는데, 영성이라든지 종교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불편함을 참고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로 들렸다.
- 하지만 오늘날 그런 것들은 불편하고 나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박혀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은폐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토록 하는 것도 출판에서 담아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경수]

- 표정훈 평론가님 발표에서 기후위기 내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 그동안의 출판동향을 말씀하시면서 국내서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유영초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보면 그동안 출판된 관련 도서를 쭉 봤을 때 국내도서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 우수환경도서 같은 경우에 100종 넘게 선정하는데 60% 정도가 유아 초등 대상의 책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서는 굉장히 나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환경, 생태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는 마이너(비주류) 분야이고 판매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

- 우수환경도서라고 하는 게 환경 분야의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선정만 하고 나면 끝이다. 실제로 출판사들이 좋은 환경 생태 관련된 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런 쪽의 문제의식을 갖고 좋은 책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되어도 국가나 도서관에서 공적인 예산으로 사서 보배해주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환경 생태에 대한 책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소한 국내 저자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애를 쓰는 편집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 지속 가능한 출판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안희곤 진행자]

- MB 정부 때부터 정부 당국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해진 ‘친환경’ 출판이라는 말이 있다. 친환경 출판이 뭔가 하면 종이책을 eBook으로 바꾸면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 종이가 절약되니까 친환경 아니냐라는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eBook에 끊임없이 지원하고 산업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 아래에는 출판산업의 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 이념이 있다. 종이책으로는 출판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인터넷 시대에 널리 책을 보급하고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eBook이 최적이다, 종이도 많이 안 쓰니 나무도 많이 보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이다.
- eBook은 전자적 디바이스(미디어)를 통해서 봐야 하는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산업 집중과 비환경적인 일들이 못지 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보는 식이다.
- 또한 최근의 오디오북은 개인화되고 바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에서 환경이라는 분야를 대분류로 따로 두어서 환경 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출판에서도 그쪽 분야의 콘텐츠 발굴이 더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서점에서도 환경이 대분류로 나뉘어져 되고, 당연히 공적인 방식의 구매를 통해서 널리 보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박혜진]

- 올해 처음으로 환경 관련된 책을 기획해서 냈고, 생각보다 호응이 있었다.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메시지성이 아주 강한 소설이다 보니 책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부여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독자들이 읽고, 이런 이야기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작가에게 작품에 다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이야기,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싶다. 가능하면 일본출판사 편집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총서도 기획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권 한 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고 싶다.

[표정훈]

- 기후위기를 내세우지 않는 기후위기에 관한 책이 나오면 좋겠다. 명시적으로 기후위기야 이렇지 않으면서도 박혜진 팀장님이 소개한 책들처럼 기후위기를 다루는 책들이 더 독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경수]

- 우리의 일상자체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일상이 이 지구에서는 악당의 일상이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판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상황을 각자의 수준에서 직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희곤 진행자]

- 기후위기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책들, 또는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절감할 수 있는 자기비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책들 양쪽 다 필요할 것 같다.

● 주제 3 : 기후와 재난의 담론에서 출판도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희곤 진행자]

- 박경수 실장께서 파주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출판 활동 외에 생태운동, 생태조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설명해주시겠다.

[박경수]

- 출판도시가 위치한 한강 하구는 한반도 육상생태계(백두대간/DMZ)와 하천생태계(한강/임진강), 해양생태계(서해)를 하나로 이어주는 생태적 연결고리이다. 또한 출판도시의 갈대샛강은 인근 공릉천, 장월평천, 산남습지 등과 함께 한강하구의 중요한 생태 나들목,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번식지이며 월동지이다.
- 출판도시는 시민생태조사단을 조직하여 출판도시의 생물종 분포와 주요지표종 파악, 출판도시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 확인, 출판도시 생태계의 위협요인 파악 및 보전방안 제시, 출판도시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공감대와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020년 5월부터 하고 있다.
- 시민생태조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식물 257종, 조류 100종, 포유류 8종, 어류 12종, 담수무척추동물 29종, 양서파충류 5종, 육상곤충 245종, 절지동물(거미) 및 기타 13종의 생물들이 출판도시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참매, 흰꼬리수리, 개리, 잣빛개구리매, 새호리기, 큰부리큰기러기, 큰말뚝가리, 금개구리, 맹꽂이, 삿, 대모잠자리(14종)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8종이 포함되어 있다.
- 기후위기 시대의 출판도시의 역할을 제안해보자면, 개별출판사, 출판인, 출판업계 차원의 역할과는 별개로 ‘출판도시’라는 공간의 상징적, 현실적 위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아젠다 제시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판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안팎으로 공유, 홍보하고, 심학산 난개발 등 지역 현안에 적극 개입, 출판도시 관련 대기업들과의 관심 지원 유도과 출판도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 출판도시 생태 자원을 활용한 탐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출판도시를 기후위기사대의 대안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안희곤 진행자]

- 박경수 실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의 출판”을

주제로 의미 있는 발표를 여럿 들었고, 오늘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는 토론을 했다. 끝까지 들어준 청중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내/해외 출판인과 독자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이어질 것 같다. 모두들 수고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MEMO

MEMO

2021 국제출판포럼 PROGRAM BOOK

운영위원 위원장: 강말실(사계절출판사 대표)
 위 원: 한성봉(동아시아출판사 대표)
 강성민(글항아리 대표)
 안희곤(사월의책 대표)
 이수정(열화당 실장)

인 쇄 일 2021년 11월 6일
발 행 일 2021년 11월 6일
발 행 처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책과영화의도시건설본부 3층
 T. 031-955-0026 F.031-955-0029

문의처 기획팀(Tel.031-955-0026)

디자인 · 인쇄 (주)온페이퍼크리에이티브

2021
국제출판포럼

